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8

제9권 제1호 · 통권9호 · 1960년 10월 7일 창립

대한치과의사학회

대한치과의사학회지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88

대한치과의사학회

大韓齒科医史學會誌

第 9 卷 第 1 号 通卷 9 号

1988年 10月 發行

目 次

原 著

- 齒科醫學研究 備要 李德一(7)
東西古代醫說의 相似性 金正均(9)
東西齒科醫學 發達의 本幹考 金官興·朴勝五(10)
植民支配下에서의 我側齒科界의 變遷過程 任慶彬(12)
단군조선(檀君朝鮮) 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 李丙台(37)
齒科界의 团体活動(5) 辛在義(79)
東醫寶鑑 牙齒門考察 裴珖植(84)

其 他

- 卷頭言 李東燮·金正均·李丙台·金官興(6)
現代史教育〈살아있는 教育캠페인〉 (96)
財務報告 朴勝五(99)
참고자료〈정관〉 (100)
表紙의 설명 李漢水(102)
任員名單 (102)
編輯後記 朴勝五(102)

大韓齒科医史學會 發行

卷 頭 言

우리 모두의 영예

終身名譽會長 李 東 燮

한국 의약계 중에서도 그 역사 관계의 연구가 점차 앞서가는 분야가 이제는 치과 부문이 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치과 분야의 그것이 뒤진게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도리어 앞서게 된 점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다. 이만한 학회 잡지가 계속 나오는 나라는 해외에도 없다. 일본이 의사학에 있어선 앞선 나라이지만, 우리만한 학회지는 아직 못내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 한국 치과의사의 영예임을 자부한다. 우리들 학회 회원의 진승을 바란다.

우리들 모두가 주인공

會 長 金 正 均

끝임 없이 앞으로만 흐르는 시간속에서 또 한 권의 회지를 냅니다. 우리 치과의사학 회지는 결코 어느 특정한 회원들만의 회지는 아닙니다. 우리들 치과의학의 역사는 이 땅의 치과의사들 모두가 참여하여 현재까지도 만들어 왔고 미래에 있어서도 역시 전체 치과의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인 까닭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올해의 이 회지는 그 의의가 대단히 큰 것이며 앞으로도 기리기리 빛날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모든 선후배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지는 그 논문 게재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니만큼 더욱 많은 분의 투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南北架橋 아쉬웠던 '88

副會長 李 丙 台

檀紀四三二一年이 西紀 1988 년이다.

제 24회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

금메달 순위로 1위 소련, 2위 동독, 3위 USA에 이어 4위가 우리나라였다.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필자는 이런 결과를 상상하지 못했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는 남북한이 같이 하도록, 북한이 참여하도록 노력했으나 끝내 그들이 불참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치과학의 역사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문호도 열리려나 하는 기대를 금메달 수만큼이나 고대하였던 점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기대와 아쉬움속에 올해도 학회지를 인쇄하게 되었으니 치과계의 내일에도 다시 큰 희망을 건다.

회원들의 끊임없는 학술활동을 기다리면서 다음호를 생각한다.

다시금 내일을 기약하며

副會長 金 官 興

학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남모르게 도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 모든 뜻은 결코 헛됨없이 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는 치과계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드높은 학술 연구의 뜻을 이어받아, 다시 그 정신을 후세에 전하면서, 한국 치과의사학의 내일을 기약한다. 우리 학회는 처음부터 이미 고난을 이기고 전진하고 있는 학회이다. 영광의 빛은 앞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다. 우리는 학술 연구의 열의에서 승리하고서 다시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齒科醫史學研究 備要

終身名譽會長 李 德 一

치과의사학은 일반 사학(史學)의 연구 방법으로써 치과의학 지식의 변천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치과의학사는 치과의학 및 그 의학의 사적(史跡)을 탐구하여 그것을 기록하며, 또 체계도 잡아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계시키는 실리 법칙을 인식하고, 새로운 연구와 진료에 있어서의 의거(依據) 사료가 되는 동시에 지침이 될 수도 있을 치과의학 그 본체(本體)의 역사이다.

이제 필자의 사건을 기탄없이 써 보면, 필자 자신을 포함시킨 우리 치과의사학 연구자들은 이제 다시 여기서 자성해 볼 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매우 오해되기도 쉬우니, 어쩌면 이 말은 필자 자신의 반성이라 이해해 주어도 좋다.

다른 학문과 같이 치과의사학 분야에도 많은 분화(分化)가 있게 되고 그것은 다시 세분화되어 그 활동은 귀찮될 줄을 모르는 실정이다. 본시 학문은 세세히 전문화되면서 발달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선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그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여기 우리 치과의사학 연구자들이 결코 잊어서 안될 점도 있으리라 하는 점을 쓰고자 한다.

그것은 그 연구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향해 도도히 흐르는 치과의학 발달의 본류(本流)를 그만 노쳐선 결코 안되리라하는 점이다. 그 본류라하는 말은 큰 줄기라 해도 좋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러 광범하고도 다기(多岐)한 치과의학의 발달 양상을 종합 정리하여 거기서 하나의 기준(規準)이라 인식되는 체계를 얻는다면, 치과의사학은 하나의 큰 기반을 얻어 다시 앞으로의 새 진보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을 터이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국내외의 허다한 연구들은 다소 본줄기와는 떨어진 옆가지에 집착한 느낌이 없지도 않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치과의사학 연구의 모습은 그 본가지는 심히 연약하면서 가지만이 무성한 초목과 같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학문의 중심이 될 큰 가지를 보다 튼튼히 하는 작업에 정면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하리라 하는 주장이다.

치과의사학이 학문인 이상은 학문적으로 보다 든든한 기반위에 서지를 얹으면 안될 점이란 너무나도 뻔하며, 우리는 모두가 우선 그 연구의 일차적 초점을 거기 맞추지 않으면 안될 터이리라는 말이다. 이러한 말은 금시 다른 반론에 봉착할 견해이기도 하나, 치과의사학이 사학(史學)중의 하나의 분과일 경우는 특별히 유의할 점이라 본다. 다소의 이론(異論)이 있을 터이나, 치과의학이라는 하나의 작은(?) 부문일 경우 몇몇 안될 연구자들이 그 힘을 하나의 뚜렷한 지표를 향해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조속한 그 발달의 길이란 없을 터이다.

이제부터 치과의사학 발달의 기초일 사학적(史學的) 이론(理論)의 정립(定立)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집요한 역구가 계속되어 더욱 그 이론을 확립시키는 점이 중요하리라는 것이다. 현재까지와 같은 어떠한 사적(史跡)의 기록만으로서의 미흡한 것이란 물론 이제껏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러나 그러한 연구란 용이한 작업이 아니었기에 충분한 결과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물론 이해가 된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러한 학문적 작업이 어려운 문제라 한다면 더욱 그러할 수록 연구자들은 더욱 능동적으로 그와 대결할 적극성을 보여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 전체의 재인식이 새롭기를 바라며 감히 우견을 여기 피력했다.

금년에 우리 학회 관계로 오래 기억되어야 될 것에 2권의 책의 출판이 있다. 우리 학회에서 오래 전부터 바라던 「韓國齒學史」가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된 것과, 또 치과대학의 의사학 교재인 「齒科醫史學」이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역시 간행된 사실이다. 이제 이 2권이 출판됨으로써 한국 우리 학계의 1차적 소원은 이룬 셈이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사학 관계의 책이 최근에 와서 의외로 인기를 얻고 있기는 하나, 회원 여러분의 관심이 여기 있기를 다시 바란다. 우리 학계의 출판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금후의 의사학 관련 출판물의 간행은 더욱 앞길이 우려된다. 두 대학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비로소 나올 수 있던 책이니만큼, 다른 분야의 것보다도 놀라운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자 이한수 선생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미 기획된 3번째의 책도 순조롭게 다시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학회에서 이러한 책들이 직접 발행되는 그러한 시기도 곧 도래될 것을 믿으며 우리의 오늘의 의지가 곧 내일의 우리들의 영광일 것임을 믿는다.

치과의학의 여러 사료(史料)는 지금도 시시각각 소실되는 실정이니만큼 여기서 서둘러 그 수집과 정리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안될 터이다. 이웃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중국대륙의 자료 수집과 새로운 연구 활동에 착수하고 있는 줄 안다. 연구자의 수가 적기는 하나 한국의 경우도 동양 치과의학의 깊이있는 연구가 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중국과의 학술교류도 서서히 추진해야 될 때이다.

東西 古代 醫說의 相似性

金 正 均*

한 개의 발상(發祥)의 뿌리를 갖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는 인류의 치과의학은, 비록 그것이 크게 동서로 갈라져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인류문화가 발달되면서 그것은 자연히 어떤 기본이념으로서 점차 체계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서 먼저 자연철학 이론으로부터 나온 의설이 탄생하게 되었고, 질병 치료에 적합한 병리설이 세워졌다. 곧 이것은 과학사상의 대두이었다.

중국 자연철학의 기본사상은 이른바 음양오행설이다. 이것은 춘추전국시대로부터 발달되어 한대(漢代)에는 각 학문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치과의학 의설의 기초도 그것으로써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면면히 계승되어 현대로까지도 미치고 있다.

음양오행설로부터 다시 전개된 오운육기설(五運六氣說·運氣說)도 특히 송대(宋代)의 성리학설(性理學說)하에서는 치과의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각시대 각 학파와 개인들도 음양오행설, 오장육부의 배당, 생체의 필수요소, 기후 풍토의 변화 등등에 기초를 둔 여러 의설을 내세웠던 일은 말할 바도 없다. 더우기 그 중에서 금원사대가(金元四大家)의 의설은 특기될만 하다.

음양오행설은 인도의 삼요소설(三要素說)과 사대설(四大說), 희랍의 엠페도구레스,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四元素說), 사질사체액설(四質四體液說)과 비교해 볼 때에, 그 내용과 성립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거기서 인지(人智)가 찾은 공통성이 인정되어 그 서로는 동서가 모두 동

일한 발달의 궤도(軌道)에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음양오행설에 의거한 치과의학은 현대 중국에 있어서도 아직 뿌리 깊은 힘을 지니고 있다.

서양의 경우도 희랍의 의설과 그로부터 다시 전개된 각종 각양의 의설은 설사 그후 과학적 치과의학이 진흥되었다고는 해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큰 영향을 주면서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번잡성을 피하고 간단히 동서 치과의학의 그 고대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의설 내용을 비교해 보면 별표와 같다. 그 서로가 유사한 뿌리를 지니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즉, 동서 의학의 원천은 어디까지나 하나이었음을 추리케 한다.

동서양 고대 의설의 대비

고대희랍	火水氣土	熱溫乾寒(四元素說)
고대인도	火水風地	火濕乾寒(四大四元說)
고대중국	木火土金水	暑濕風寒(五行, 運氣說)

물론 동서 고대의 의설은 갖가지 있어서, 그것을 자세히 분석 종합시키며 다시 서로 대비시켜서 동서 치과의학의 뿌리가 일원적(一元的) 체계를 갖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야만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나, 여기에 관해서는 상당한 금후의 연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리라. 필자는 우선 여기에서 하나의 지적 내지 문제의 제기로서 본고(本稿)는 끝맺고자 한다. 참고로서 언급한다면, 아마도 본제(本題)에 관해서 일찌기 주목한 학자는 일본의 미끼 사카에(三木榮)가 아닐까. 그러나 그도 학문적으로 깊이있게 다루지는 못한 줄 안다.

* 本會會長・金正均齒科醫院長

東西齒科醫學 發達の 本幹考

金官興*・朴勝五**

이른바 학문적으로 동양이라 하면 여기에는 당연히 인도와 중근동(中近東) 지역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중국대륙을 뜻하는 것일 뿐더러, 치과의학의 경우는 인도와 중근동 지역의 그것은 관례적으로 뜻하는 동양 치과의학이라는 것에 결정적이라 할 큰 영향을 계속적으로 끼친 것이 나이었기에, 여기서는 그것을 제외하면서 또한 동시에 한국의 그것도 19세기까지는 중국의 그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에 중국만을 중심으로 다룬다.

중국 치과의학은 하나의 전통 밑에서 자국내에서 발달된 것이라 곧 동양 치과의학의 대표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중국 치과의학은 복희, 신농, 황제의 개국 문화 전설 시대와 지금으로부터 대충 3천 7백년 전의 이윤(伊尹)이 탕액(湯液)을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전하는 하·인시대(夏 時代)는 일단 제외를 시킨다 해도, 그래도 그 후로 이어진 주(周), 전국시대에는 이미 치과의학의 발달이 현저하였다.

주례(周禮)에는 의학의 분과(分科)가 벌써 기재되었고, 편작(扁鵲)과 같은 명의가 출현했다. 곧 이 시기는 회람 치과의학의 황금기와 흔히 서로 대비시킨다.

동양의학에서 매우 유명한 의서인 소문(素問), 영구(靈樞), 난경(難經) 등은 아마도 이 시기부터 나왔을 것이라, 현재까지 전해지는 상기한 의서들은, 아마도 전한(前漢)의 후기쯤에는 그것

이 성립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전한(前漢) 때에 이르러 순우의(淳于意)가 나와 여러 치료법을 확립시켰고, 후한(後漢) 때에는 장중경(張仲景)이 그의 저서 상한론(傷寒論)에서 경험증후병증설(經驗證候病證說)을 제창했고, 또 화타(華陀)는 외과적 수술을 마취를 실시한 후에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대(漢代)에서는 그 이후의 의학의 기반, 즉 한의학(漢醫學・漢方醫學)의 기초를 형성시킬 만큼의 큰 발달이 있었다. 한대의 치과의학은 곧 로마제국의 치과의학과도 대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어 진대(晉代)에는 맥학(脈學)이 왕숙화(王叔和)에 의해 완성되었고, 남북조(南北朝)에 이르러서는 도교(道教)의 갈홍(葛弘), 도홍경(陶弘景) 등에 의해 연단술(鍊丹術), 복석법(服石法) 등이 연구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수대(隋代)에는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당대(唐代)에는 천금요방(千金要方), 천금익방(千金翼方), 신수본초(新修本草), 외태비요방(外台秘要方), 송대(宋代)에는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 전씨소아직결(錢氏小兒直訣), 증류본초(證類本草), 성제총록(聖濟總錄), 부인량방(婦人良方) 등등이 계속 나왔다.

그리고 금·원대(金元代)의 사대가(四大家)의 출현과 특히 주진형(朱震亨)의 양음의학(養陰醫學), 원대(元代)의 무원록(無冤錄), 명대(明代) 말의 본초강목(本草綱目), 오씨온역론(吳氏溫疫論) 등등은 뛰어난 의서로서, 이러한 책들을 그 내용은 같은 시대의 서양 치과의학의 그것과 비

* 서울·金官興齒科醫院長

** 서울·朴勝五齒科醫院長

교할 때에 도리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마땅한 것들이다.

하지만 중국의 그것은 오직 발달된 경험치과의 학이라는 형태로서 그만 그대로 그것이 정체되었기에, 그 이후는 과학적 체계를 갖게 된 서양치과의학보다 그 발달이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서양치과의학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부터 발생되어 소아세아, 동지중해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페르시아에서 통합되었던 것이 다시 인도의 치과의학이 거기 가미되면서 성립된 에게해(Aegean sea)의 이오니아의 희랍치과의학이 그 근간(根幹)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것이 히포크라테스 치과의학이다. 희랍에서 당시 치과의학을 포함한 모든 문화가 융성될 수 있었던 점은 아마도 그 때의 국가 성립의 사정과 자유로웠던 사회적 환경이 곧 동방제국의 학문을 수입시켜 대성시키기에 적합했던 까닭이었으리라.

히포크라테스 치과의학은 그 후에 로마치과의학, 갈레누스 치과의학의 체계가 되었다.

갈레누스 치과의학은 뛰어난 것이었으나, 로마의 중앙집권 하에서는 그 발달을 크게 볼 수가 없어서, 그것은 기독교에 지배되면서 별다른 발달을 보이지 못하면서 천년 이상을 그대로 정체(停滯)상태로서 놓여졌었다.

하지만 이 사이 곧 9~11세기에 흥성한 아라비아 치과의학은 이것이 서진(西進)하여 구라파대

륙의 각국 치과의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교량적인 역할을 했다. 아라비아 치과의학에서 많은 공적을 남긴 사람으로서는 라하제스, 아리압바스, 아비센나, 아불카시스 등이 있다.

이어 문예부흥기에 들어 치과의학 역시 종교의 구속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자유실증정신(自由實證精神)이 배양되어, 파라세르스스, 파레등이 나오고, 안드레아스 베사리우스의 해부학으로부터 실존실증치과의학, 17세기의 과학적 치과의학으로 발달되어,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쳐 19세기 후반에는 그 연구방법의 새로운 전개에 따라 치과의학은 급속히 발달되고, 여기에 다시 신흥국인 아메리카의 치과의학이 합류해서 현대 치과의학으로서의 발달을 이룩했다. 만국치과 회의(萬國齒科會議, International Dental Congress)의 제2회 회의를 특별히 The World's Columbian Dental Congress라 호칭하면서 이것이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어, 미국이 명실 공히 세계 치과의학의 확고한 중심적인 위치를 굳힌 때는 1893년이다.

세계 치과의학 본간(本幹)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함은, 치과의학사 연구의 기초이기에, 저자들은 현재까지의 여러 선현들의 연구를 참고로 삼아 그것을 정리해 보았다. 혹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발달의 큰 줄기는 엄존하리라.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의 變貌過程

— 京城齒科專門學校 卒業生の 一元化와 關聯하여 —

任 慶 彬*

目 次

※ 論文의 概要

1) 序 論

2) 韓半島의 「開化」 過程 涉獵

3) 植民支配下 我側齒科界의 變遷過程

① 初創期 齒科界의 一片貌

② 過渡期 齒科界의 一片貌

③ 混沌期 齒科界의 一片貌

④ 整理期 齒科界의 一片貌

4) 植民支配가 我側齒科界에 미친 影響

5) 結 論

※ 英文 Abstracts.

<論文의 概要>

본 연구는 처음에 비록 植民支配下이나 한반도 齒醫學이 발전하는 과정을 더듬어 보려고 시작하였다.

당시 한반도 齒科界에서 활약하던 日本人 齒科醫師들의 회고문, 해당 시기에 京城齒醫學校가 설립된 사실, 또 정치와 학문간의 별개성에 바탕을 두었더니 植民支配下이나 齒科界의 학문적 발전은 가능하리라고 보아 아무 문제가 따르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한 植民支配下였지만 한반도 齒科界는 대증요법에 국한되던 단계에서 西洋式 外科의 處治術을 받아들여 마침내 동남아에서 日本 다음가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見解에 설득력이 있어 보였고 종래 학계를 지배하는 실정이었던 까닭이다.

실제로 당시에 한반도의 여러 분야는 「開化」되고 있었으며 반면에 日本은 일찍 「開化」되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엔 종래의 見解에 대하여 별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연구는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과정 중에 入齒師의 등장에 간직된 의미로부터 본연구의 진행 방향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京城齒醫學校의 졸업생이 여러 부류를 발견하고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總督府가 당시 我側齒科界에 대하여 모순된 시책을 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음성적인 영향들이 발견되자 오히려 종래 학계를 지배하던 見解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침내 본연구의 진행 방향이 영향을 받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연구 도중 1933년 이전과 이후를 동일한 植民支配下로 보아서 아니 되겠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선 1933년경을 고비로 당시 我側齒科界의 주역을 배출하던 京城齒科專門學校가 눈에 띄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 주는 까닭이다. 또한 「세브란스」 齒科部를 통하여 비록 국한성은 띄우지만 미국인 新敎齒科醫師들로부터 西洋式齒醫學을 직접 익히는 변화가 따르는 까닭이다. 더구나 1933년경에 이르면 齒科界에 남겨지는 기록의 양과 질은 이전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소상하며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체험담에도 接할 수 있기

* 新羅 齒科醫院長 (서울·瑞草區)

때문이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임은 분명하지만 1933년경 이전과 이후를 한데 묶어 고찰하면 오히려 앞뒤의 조화가 깨어지는 흠이 남겨질 염려가 따를 것 같았다. 때문에 植民支配下이지만 1933년경 전후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본연구가 산만하게 될 여지가 있음에도 한반도의 「開化」 과정을 결들이고 있다. 아무래도 당시 齒科界 사료만으로 그 변천 과정을 소상하게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당시 齒科界의 변천 과정에 국한된 관찰로는 「開化」와 其界間의 변천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칫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불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 외에 我側齒科界의 西洋式 변천은 분명 한반도 「開化」의 한 부분으로서 병행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開化」 과정에 대한 이해는 我側齒科界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에 해당하는 때문이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본 연구는 시작당시와 그 진행방향이 달라졌다. 그리고 연구 대상 시기도 1933년경까지로 국한되었다. 또 한반도의 「開化」 과정을 연구 속에 결들이게 되었다. 이로써 본연구를 통하여 植民支配下 我側齒科界의 발전 측면을 고찰하는 데에서 벗어나선 변모 과정 한단계 한단계에 간직된 의미들: 이해하므로 당시 齒科界 실정을 똑바로 파악하는데 이르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러나 이 바람은 욕심일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로 인하여 그저 그럴것같이 여겨져 온 종래의 見解에 재음미만 따라도 적은 소득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무래도 연구의 진행 방향이 바뀌므로 논리의 비약이나 一貫性이 결여되지 않았는지 조

심스럽다. 이에 大方의 忌憚 없는 叱責을 바라며 외람되이 본 연구를 내어 놓는다.

1987. 初夏

1) 序 論

86년 겨울 本誌를 통하여 門戶開放 이후 西洋式 齒醫學이 한반도에 傳來되는 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시기로 보아 국권이 상실되던 때를 전후하여 마감되었던 관계로 본연구는 그 속편의 성격을 띠우고 있다.

그런데 전편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영성한 편이다. 여기에 비하여 본 연구 대상 기간은 선입관과 더불어 회고록이지만 자료는 풍부한 편이다.¹⁾ 이러한 자료 中에는 京城齒醫學校 설립자인 柳樂達見의 학교 설립 당시 회고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회고문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柳樂達見 자신이 회고문 집필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회고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²⁾ 정도이다. 이런 까닭에 자료의 양에 비하여 마음 놓고 사료로 선택하기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植民支配下에서 한반도 齒科界가 발전하였다는 見解外에³⁾ 어떤일인지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자료의 양에 관계없이 연구에 어려움이 따르는 마참까지였다.

그러니까 본 연구는 진행 도중 얻어낸 하나하나 자료에 의존하여 도출되는 결과를 따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연구 도중 발견되는 자료로 인하여 종래 학계를 지배하던 見解나 先人見⁴⁾과 상반되는 결과에 接할때마다 점점

註 1.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No1. 1960.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No3. 1962.

註 2.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No3. 1962. P. 63. 參照.

註 3. 언제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大局的인 見地에서 거론할경우는 보다더 설득력이 있는 見解로 보인다.

註 4. 入齒師는 當時 齒科界의 발전을 저해할 뿐아니라, 구강위생을 해치던 존재로서 敎育을 통하여 지니게된 見解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No3. 1962. P. 70 ~ P. 80 參照.

당시 我側齒科界의 실정에 대하여 갈피조차 잡기 어려워 스스로 여러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솔직히 두려웠고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연구를 그칠 수 없어 계속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도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 결론이 종래의 見解나 先入見과 여러 곳에서 달랐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나아가 흥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 도중 흥미를 느끼거나 흥분할 만큼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스스로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뚜렷한 연구 방식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뭏든 소홀하였던 자료도 가능한 한 모으고 거기에 간직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 결과 때로는 스스로 놀라고 자신마저 의심하여야 했기에 더욱더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마침내 종래의 見解나 先入見에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見解나 先入見에서 벗어나자 홀가분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일한 한가지 사실도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인식세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알고 있는 한 종래의 見解나 先入見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은 잠깐 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당한 마음가짐이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 필수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곁들인 한반도 「開化」 과정이 지나치게 소략하다. 때문에 오히려 산만함을

초래하고 그치게 되지 않을런지 모른다는 염려가 극복되어야 할 두 번째 과제였다.

비록 그리하지만 종래의 見解나 先入見에 연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상반된 결론이라 하더라도 연구의 결과라면 발표조차 꺼릴 것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開化」 과정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미 밝혀져 있으므로⁵⁾ 조금만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보다 이해를 깊이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솔직히 주저가 앞섰지만 감히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2) 韓半島의 開化過程 涉獵

한반도의 개화과정을 要約한다는 작업은 無理에 가까우다. 特히 才智, 學問, 識見도 갖추지 못한 까닭과 부분부분이 생략되는 관개로 솔직히 부담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어 요약하려는 작업이 試圖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의 개화과정을 관찰하여 보면 마침내 우국계몽운동(憂國啓蒙運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국계몽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은 당시 학계의 조류와 밀접하다. 그런데 당시 학계의 조류는 재론의 여지없이 韓半島의 齒醫學이 西洋式으로 변화여가는 배경에 해당한다. 때문에 한반도 齒醫學의 西洋式變化過程, 特히 植民支配下의 變遷過程을 이해하는데 한반도 개화과정에 대한 이해가

註 5. 李鉉淙, 「韓國開港場研究」一潮閣, 1979.

李光麟「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81.

崔文衡「列強의 東아시아政策」一潮閣, 1982.

黃德模「韓國의 開國과 國際關係」서울大 出版部, 1983.

歷史學會編「實學研究入門」一潮閣, 1983.

韓祐勲「韓鮮後期社會와 思想」乙酉文化社, 1983.

李光麟「韓國開化史研究」一潮閣, 1985.

李光麟「韓國開化黨研究」一潮閣 1985.

李光麟「韓國史講座」(V) 近代篇, 一潮閣, 1984.

李光麟, 愼庸夏「韓國史論文選集」近代篇(VI). 一志社, 1986.

歷史學會編「史料로 본 韓國文化史」(近代篇)一潮閣, 1982.

주자학 비판
정통학 서양학은 정
려해당시

사회의 정체 - 대원전
전통학 서양학 정체

앞선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한반도 개화가 싹트는 모습부터 우선 주목한다.

조금은 갑작스러운듯 하지만 周知하는바 大院君代 단행되었던 書院의 철폐가 어찌되었던 傳統學問體系에 대한 권위에 금이 가게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겠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미 「開化」하기 시작한 淸을 통하여 천주교와 함께 西洋학문이 전래되고 있었다⁶⁾. 그런데 그 속에는 믿어도 좋을지 의심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획기적인⁷⁾ 수준이었다.

그위에 既存의 학문체계가 형식에 치우치고 空理 空論에 흐르는 경우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고 미래지향성을 간직한 새로운 학문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태동되게 磨鍊이다. 그런데 既存의 학문체계가 이미 사회질서와 이념체계의 骨幹을 이루고 있다면 새로운 학문체계가 一舉에 사회속에서 수용되기도 용이하지 않을것이다. 이렇게 학문이 지향하는 바 임에도 경우에 따라 限界에 직면하게 되므로 갈등이 야기된다. 그러하지만 결코 保守나 傳統에 기울어 머물러하지 않음이 곧 학문의 한가지 취향이라 하더라도 無理는 아니겠다. 때문에 흔히 보수와진보, 전통과 개혁간에 갈등이 따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大院君代이르러 새로운 학문체계가 대두될 계기가 磨鍊되었고, 새로운 학문체계를 확립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으로 西洋학문이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었다는데 도달된다. 여기에 덧붙여 설득력이 간직된 한가지 견해를 인용한다.

“...조선의 사회질서와 이념이 확립되는데 朱子學이 공헌하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朝鮮中葉에 이르러 발전, 심화된 朱子學은 이론의 是非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오히려 현실성이 희박하게 되었다”⁸⁾ 는 견해이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후기사회에 西洋학문을 수용하려 노력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었다⁹⁾.

따라서 조선후기에 이르러 그 사회의 一角에서 朱子學에 대한 비판이 일고있는 한편 淸을 통하여 전래된 西洋학문을 접하게되며, 일부 識者들에 의하여 보다 현실성이 重視되는 학풍이 대두되는 동기와 모습에 관하여 多少나마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 이 학풍의 학자, 사상, 그리고 업적이 궁금하게 된다. 그러하지만 이 학자들의 면모를 일일이 찾아내는 것과 그 脈絡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¹⁰⁾. 또한 본 연구에 얼마만큼 기여할런지 궁금하다. 그러나 아물튼 몇몇은¹¹⁾ 당시 사회에 남긴 업적이 분명하여 지워지지 않는다. 즉 저술을 남기므로 이들은 당시로서 신학문 체계가 간직한 학설을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열심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아가 실생활에 接木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회적 落後로부터 탈피를 도모하려 노력하였음도 보여 준다. 여기서 조금더 그들의 저술 내용에 주목하면, 앞에서 지적된 궁금증의 일부가 해소되려니와 몇가지 흥미있는 소득을 거둘 수 있다.

우선 개화사상가라기보다 傳統儒學者에 해당하며 개화사상가인 兪吉濬과 同시대 인물인 黃玹(1855~1910)의 저술 내용에 주목하여 본다.

“「開化」란 「開物化民」이라” 하였다. 즉, 만물의 理致를 깨달아 인간을 깨우치도록 教化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開化」가 “「本」을 무시하고 「末」

註 6. 柳洪烈. 「韓國社會思想史論巧」—潮閣, 1980. P. 348. 參照

註 7. 一例로 地球원형說, 地動說을 들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도무지 납득될 수준이 아니었다.

註 8. 李佑成 “實學研究序說” 「韓國社會思想史論選」學文社, 1982. P. 485. 參照

註 9. 朴齊家, 丁若鏞, 朴趾源, 徐大渠, 洪奭周等.

註 10. 소박한 見解이다. 그리고 實學者들을 전부 열거할 수 없고 제도를 통하여 그 자격이 인정된바도 아니다. 따라서 몇몇의 思想은 존중받기도 하고 때문에 두고두고 기억되지만 그들간에 人的關係가 면면히 이어진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태어 脈絡關係는 들추지 않는것이 바람직 한것 같다.

만으로 이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本」은 親賢, 遠姦, 愛民, 節用, 信賞必罰이라”고 하였으며, “「末」은 軍事, 技術, 貿易이라” 요약하였다. 따라서 “「開化」는 인간적인 面의 「開化」가 따를 때 진정한 「開物化民」이 가능할 것이라”¹²⁾ 하였다. 이번에는 實學者인 俞吉潸이 「開化」에 관하여 거론한 바를 고찰하여 본다.

“...該當國의 處地와 時勢에 맞는 無理없는 「開化」와 他人의 景況을 보고 나서 前後를 가리는 知識도 없이 그대로 따라 施行하다가 經費의 浪費만 招來하고 마는 「開化」의 두 가지를...”¹³⁾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兩人的 「開化」론을 거론한 까닭은 이들의 견해가 개화사상을 대표한다거나 특히 黃玹의 「開化」론에 대한 適否를 가리려는데 있지 않다.

黃玹이 「開化」를 거론하고 있음에서 「開化」가 당시 새로운 識者들의 專有物이 아니었음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다. 따라서 19세기말 實學의 대두 당시 전통 유학자 중에도 학문과 현실간의 거리를 좁히려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이 밝혀진다.

그리고 「開化」를 각기 여러 角度에도 이해하려 하였음에서 당시 「開化」의 의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兩人的 견해 속에 아직 「開化」가 반드시 외국 문물, 특히 西洋 문물의 수용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의미는 간직되지 않았으며, 이는 아무래도 看過할 수 없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낙후로부터 발전되기를 똑같이 바라고 있었다. 그러하지만 순서와 처지를 분명히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에 첨가할 것은 19세기경 朝鮮의 識者들이 대부분 儒敎의 학문 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다¹⁴⁾. 또 淸을 통하여 선진 문물을 接하는 재래의 방식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이다.

以上에서 시작 단계의 「開化」, 즉 朝鮮後期 實學에 나름대로 간직된 특성이 드러난다. 즉 새로운 학문 체계를 수용·응용하여 實事求是 利用厚生을 도모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아직 전통성을 완전히 탈피하지 않은 한계성을 지녔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門戶開放까지 주장하지 않은 것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개화사상이라 하기엔 多少 미흡하다. 反面에 당시의 識者들과 實學者들이 엄연히 「開化」라는 용어의 의미를 규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後期 實學을 커다랗게 「開化」라는 테두리 안에 넣어서 바라보면 改新儒敎의이며 기독교 성향이 가미되고 親中國의이며 점진적 사회 발전을 회구한 「開化思想」의 바탕 위에 서 있는 학문 체계로 보인다. 그러므로 實學이 實事求是와 利用厚生을 추구하였던데 比해서 실사회 속에 파급된 효과는 그리 뚜렷하다 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곧이어 닥쳐온 開港期를 맞으며 實學과 또 다른 새로운 學風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또다른 새로운 학풍의 주도 집단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관찰함도 흥미 있을 것 같다. 이들은 전통 학문 체계가 비판의 차원을 넘어 밀리게 됨을 계기로 사회 속에 胎動되고 있었다¹⁵⁾. 그러더니 閔妃가 집권하는 정치적 변화로 말미암아 조선사회에 門戶開放의 氣運이 고조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었다¹⁶⁾. 이에 힘입어 본격적인 開化思想이 사회에 수용될 수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이들이 이제 제법 무리를 형성하니 곧 開化派였다¹⁷⁾. 그리고 門

註 11. 俞吉潸, 朴趾源, 丁若鏞等.

註 12. 黃 玹 “言事疏” 「梅泉集」卷之六, 參照

註 13. 俞吉潸. “開化의 等級” 「西遊見聞」第 14 編, 東京, 交詢社, P.P 375 ~ 380. 參照

註 14. 李光麟 「韓國開化思想研究」—潮閣, 1981. 參照

註 15.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潮閣, 1985. 參照

註 16. 上揭書 參照

註 17. 上揭書 參照

戶開放 이후 日本을 시찰하고 돌아와 사회 一角에서 祖國의 「開化」를 주장할 수 있었다¹⁸⁾. 그러던 中 이들의 주장은 甲午更張의 주도 세력과 이어졌다²⁰⁾. 따라서 開化派가 親日性向을 띠게 된 것 같다. 이로부터 開化派라면 곧 이들을 지칭하는 代名詞란 인식을 사회에 남게 하였다.

그런데 전통 학문 체계가 표면적으로 억압받은 것은 大院君代였다²¹⁾. 그리고 大院君의 새국정책은 너무 유명하다²²⁾. 또 전통유학자들이 정치로부터 초연하려 하였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前述한바 實學者들도 「開化」를 주장하였지만 西洋一邊到는 아니었다. 이들은 전통 학문 체계를 바탕으로한 識者들로서 아직 門戶開放까지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實學者들은 권력의 주변에서 멀리 있었다²³⁾.

그런데 또다른 새로운 학풍의 주도 집단인 開化派는 서양의 新文物 도입을 꺼리지 않았다²⁴⁾. 또 門戶開放을 마다하지 않았다²⁵⁾. 뿐만아니라 종래로부터 있어 온 學者로서 정치적 초연 또는 無關이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²⁶⁾. 오히려 자신들이 내세운 「開化」를 위해서 정치권력과는 물론 外勢와도 숨김없이 제휴하였다²⁷⁾. 이로서 전통 학문 체계로부터 과감한 탈피를 서슴치 않은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이 開化派는 학문을 숭상한다는 것 외에 大院君, 전통유학자, 實學者 中 그 어느 쪽과도 일치한다 하기에 꺼끄러운 面을 간직하고 있었다. 때문에 實學者들과 맥락을 이어보려 한다면 몇몇 인물에 국한하여 타당할 듯 보이는 일

면이 있지만 우선 實學者의 數도 그렇거니와 이들을 開化思想家나 開化論者로 정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開化派와 맥락 관계는 무어라 斷定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다. 그러나 實學者와 開化派의 맥락 관계는 本연구의 취지상 생략하기로 하고, 다시 開化派의 人的 구성에 조금 더 주목하기로 한다.

周知하는바 開化派를 大別하면 開化論者, 開化思想家, 開化黨에 속한 부류로 나뉜다. 따라서 정치적 성격을 따우므로 그 존재는 뚜렷하였다. 그러나 그 數의 증가란 黨勢에 따를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政黨이라면 정권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간직한 집단을 의미한다. 때문에 政黨政治가 실시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필요성이 없는 집단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開化派가 비록 日本을 배경으로²⁸⁾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國王이나 그 측근 인물들의 비호를 받는 수준이라 보이며, 정당세력이라기보다 아직도 비밀결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여건이었다.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여건 때문에 開化派가 주위로부터 위험視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門戶開放 이후 독자적이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위에 정치 성향까지 깃들인 또다른 새로운 學風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開化派에 소속된 開化論者和 開化思想家의 一團이라면 이제 實學者나 開化派間의 차이도 아울러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시간상의 순서가 뒤바뀌어 혼동될런지

註 18. 前掲書 參照

註 19. 上掲書 參照

註 20. 上掲書 參照

註 21. 서원전체

註 22. 소박한 見解임.

註 23.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潮閣. 1983. 參照

註 24. 李光麟. 「韓國開化思想研究」—潮閣 1981. 參照

註 25. 上掲書 參照

註 26. 上掲書 參照

註 27. 上掲書 參照

모르지만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되돌아 볼 때 「開化」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래도 外國 문물을 接하면서이다. 때문에 처음에는 生疎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實學者들과 開化派의 「開化」間에는 前述한바 차이가 있다. 때문에 「開化」에 대한 사회로부터 인식이 어떠하였을런지 미루어 짐작될 것이다. 특히 적극적인 현실참여를 서슴치 않는 開化派였던 만큼 그들이 주장하는바 「開化」를 위해서 百姓을 계몽하고 수궁하게 하는 단계를 거쳐 사회 속에 具現함이 순서였을 것이다. 그 과정 중 예측하지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면 더 연구하고 홍보, 교육, 실천을 반복 지속함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모함이 요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開化派는 「開化」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치중한 나머지 그들의 사상을 사회에 서둘러 具現하여 보려는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²⁹⁾.

勿論 당시로서 전통 학문 체계로부터 탈피, 서양문명의 흡수·모방을 서슴 없이 주장하면 改革의 범주에 속한다 하더라도 無理가 아닌 형편이었다. 그리고 학문의 발전이란 전통성, 독창성, 모방성 중 擇一할 성질이 아니다³⁰⁾. 그러나 開化派는 모방에 치우쳐 있었고, 전통성을 외면하는 듯 보일 여지가 있었다.

특히 西洋의 새로운 문명에 接하기 이전 발달된 문물의 전달경로는 그 起點을 중국으로 하여 한반도, 그리고 일본열도라는 인식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아무리 百聞不如一見이라지만 조선이 일본에 대해서 문명의 傳授國은 되어도 傳受國일 수 없다는 舊態가 아직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³¹⁾. 더구나 親日開化派는 少壯層이었고 그 수도 많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傳統學者들에게 親日開化派는 관망의 대상인 정도였다. 더구나 門

戶開放 이전까지 조선 사회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미 倭夷는 洋夷와 다를 바 없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倭夷가 武力을 사용하여 門戶를 개방한 것으로 보일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물며 이들과 제휴하여 國益을 도모하려 함이 곧 「開化」라 보일 수 있음을 감안하면 開化派의 사고 체계가 얼마나 위태로우며, 아직도 자신을 지켜온 傳統學者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을 것은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우물튼 甲午更張을 계기로 사회에 널리 보급된 「開化」는 甲申政變을 맞고서 정치와 次元이 다름에도 주춤하게 되었다. 당시 「開化」가 노골적으로 정치권력과 유착되어 親日性向을 띄우고 있었으므로, 親日派의 몰락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 까닭이다. 그러더니 韓·日合邦이란 국가적 비운과 더불어 마침내 開化派는 한반도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이르자 이제 「開化」 자체가 사회로부터 아예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았다. 뿐만 아니라 국권이 상실된 此際에 「開化」 자체가 무의미하여진 듯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開化」는 의미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보지 못하고 중단되어야 하는 듯 했다.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는 「開化」 자체가 위와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당시 學界가 받은 영향이 어떠하였을런지 不問可知일 것이다. 이 모두 선진 문명은 스스로 쌓아 올리기도 힘들거니와 모방 또한 용이하지 않은 때문에 극복해야 할 피하지 못할 시련이었다.

그러나 국권은 상실되었지만 민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들은 유구한 전통을 갖춘 문화민족이었으며, 그 정기 또한 엄존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周知하는바 이들이 좌절하지 않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였으니, 요원의 불길같이 타오르며 마침내 두 갈래로 집

註 28. 李光麟, 「韓國開化黨研究」—潮閣, 1985, 參照

註 29. 社會의 落後로부터 脫彼란 어느므로 보아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外勢, 權力, 金力에 의해서 短期間에 이룩될 수 없다. 構成員들의 精神狀態가 먼저 그것을 위한 수단을 찾아야하고 실천하고자 한후에 外勢, 權力, 金力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성이 있게된다.

註 30. 소박한 견해임.

「한민족의
교육개량운동」; 韓民衆

약되어 韓半島에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武力항쟁이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憂國啓蒙運動이었음 또한 周知의 사실이다.

이렇게 憂國啓蒙運動은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하여서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凡民族的運動의 한 갈래였다. 그리고 국권을 상실한 韓國이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그들 中 일부는 “아는 것” 卽 지식의 습득이 “힘”임을 잊지 않았다. 이제는 사회 전반의 낙후로부터 탈피를 위한 次元의 지식 습득이 아니었다. 국권을 상실한 까닭에 공공연히 외칠 수 없었지만 自主, 自立, 自強을 위한 지식 습득이었다. 日本으로서도 배우려는 한민족의 의지를 공공연히 방해할 명분은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배우므로 韓民族이 自主, 自強, 自立을 도모하여 마침내 국권을 회복할런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런지 모른다. 그러나 韓民族의 배우려는 의지를 밝아 버릴 명분은 마땅하지 않았다. 다만 배움의 여건을 磨鍊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뭏튼 그 당시 韓民族에 의한 私學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았고 설립되었다라도 그 운영이 어려웠음 또한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할수록 이에 대한 反作用까지 곁들여 예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韓民族의 향학열은 달아 오르지만 하였다³²⁾. 그 결과 뜻있는 몇몇이 개별적이며 나름대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派黨에 국한되어 지식을 습득하던 종래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름대로 모습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점차로 짜임새 있는 교육이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비교적 광범하게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면면히 지켜오던 강토를 되찾아 전통성

을 회복하고 독립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新知識의 습득을 도모하는 民族的「開化」로 그 모습이 전환되어 새 모습으로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 實學의 대두로부터 開化派에 의하여 주도되던 한반도의「開化」는 우선 의외로 그 주도자들의 數的 국한 때문에 사회성이 제한되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憂國啓蒙運動의 전개로 凡民族的「開化」로 모습을 바꾸게 된 것이다. 그 과정 中 周知하는 바 미국인 선교사들의 지원에 힘입은 新知識의 습득에 게을리하지 않는 사회적 변화가 일게 되었음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憂國啓蒙運動에 미치는 바 미국의 영향이 증대되는 새 국면 속에 서서히 독립정신을 함양하게 되었음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實學者, 開化派, 憂國啓蒙運動家들이 모두 西洋의 新知識을 습득하려는 공통성을 지녔지만, 處한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었음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때문에 「開化」의 의미가 시대변천에 따라 서로 달랐던 까닭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實學으로 始作되어 憂國啓蒙運動으로 이어진 韓半島의 「開化」가 歷史의 指向하는 바였으며, 學問的 趣向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에도, 凡民族性を 띄우기까지 時代的 變遷과 더불어 그 간직된 意味조차 一慣性を 喪失하므로 그 展開過程이 의외로 順呑할 수 없었음을 理解하게 되었을 것이다.

3) 植民 支配下 我側齒科界의 變遷過程

앞에서 고찰된 바 한반도 「開化」 과정이 順呑하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학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齒醫學界라 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일취월장 발전의 과정을 밟았을런지 궁금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반도 齒醫學의 西洋式 변모 과

註 31. 李光麟, 「韓國開化黨研究」—潮閣, 1985, 參照.

註 32. 南宮 勇權, 「韓國開化期の 社會教育 活動에 關한 研究」教育史學博士學位 請求論文」1984, 參照.

정을 외람되지 初創期, 過渡期, 混沌期, 整理期로 가능한 한 細分하고 한반도 「開化」와 연관시켜 고찰하여 본다. 그러므로 植民 支配下에서 한반도 齒醫學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① 初創期 齒科界의 一片貌

초창기라 하면 아무래도 朝鮮 후기 實學者들의 학문적 활동이 시작되고 있을 시기라 하겠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開化」된 淸을 통하여 여러 저술물의 틈에 끼어 西洋醫學 관계 저술물이 새로이 전하여지기 시작하므로 한반도 醫學界에 영향을 미치게 된 까닭이다.

그런데 朝鮮後期 實學者들은 당시까지 醫學과 齒醫學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醫學 속에 齒醫學이 그냥 포함되거나 附隨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때문에 「開化」초기, 즉 초창기까지 齒醫學이란 뚜렷한 한 분야로 分化조차 아니된 상태였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實學者들의 醫學에 대한 관심에 주목하므로 齒醫學의 斷面이나마 接觸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實學者들이 醫學에 관심을 기우렸던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初創期 實學者들의 醫學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마땅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시 많은 흥미거리가 간직되어 있으므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期間에 해당한다.

그런데 植民 支配下와 동떨어진 時期上의 차이로 본격적인 연구는 부득이 제외되어야 하는 까닭에 더 이상 언급은 그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갖게 한다.

② 過渡期 齒科界의 一片貌

과도기란 초창기 이후 아직 조선인 또는 한국인 齒科醫師가 탄생되지 않은 門戶開放 이후 1915년까지로 잡아 보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외국인 齒科醫師가 來鮮하여 西洋式 齒科施術이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서 行해지고 있던 時期가 된다. 인물로 구분하면 이들이 한반도 나름대로의 醫師制度를 따르지 않았던 崔漢綺³³⁾ 이후 咸錫泰의 등장 이전에 해당되며, 엄밀한 의미로 論하면, 한반도 齒醫學이 표면적 西洋化를 이룩하던 時期라 하겠다.

이 기간 중 西洋式 齒醫學이 전래되는 과정, 그리고 비록 외국인에 의하므로 표면적으로나마 施術되는 과정은 이미 밝혀진 바³⁴⁾ 있으므로 중복은 피하고자 한다.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인 入齒營業者들이 한반도 치과계에 등장하고, 활동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된다.

그런데 入齒營業者에 관해서도 이미 언급은 된 바 있다³⁵⁾. 그러므로 用語는 그다지 생소하지 않을 줄 믿는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왜 그런지 한국인 入齒營業者가 本項이 의미하는 過渡期에 한반도에서 차지하던 사회적 지위와 齒科界에서의 비중에 관한 한 종래의 연구에서 비교적 무관심해 온 듯하다. 따라서 本項의 연구 방향은 보다 뚜렷이 결정되어진다. 돌이켜볼 때 한반도의 齒醫學이 西洋式으로 변하여 감에 있어 외국인 醫師나 齒科醫師들의 역할에 관한 것은 이미 밝혀져 있다³⁶⁾. 그러나 이들의 역할로 인한 한반도 齒科界의 변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표면적인 西洋化 일 뿐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西洋

註 33. 줄일만큼 줄여서 표현하면 朝鮮後期 實學者로서 마지막이라 할 수 있음.

註 34. 任慶彬 “朝鮮 齒醫學의 西洋式 變化 過程에 對한 一 飭” 「大韓齒科醫學史會誌」第7卷 第1號 1986. 參照.

註 35. 申在義. “韓國에 齒醫學의 傳來와 初創期の 齒科界 그 文獻의 考察 “「齒苑」” 第7卷, 1972. P. 47 參照.

註 36. 任慶彬 “朝鮮 齒醫學의 西洋式 變化過程에 對한 一 飭” 「大韓齒科醫學史會誌」第7卷第1號, 1986. 參照.

화로 볼 수 없다. 학문적 移植의 단계나 무비판적 傳受 단계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인 만큼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활약이 사회에서 목격될 때 아무래도 내면적 西洋化가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실제로 한반도의 門戶開放 이후 한국인 齒科醫師 咸錫泰가 등장하기까지 약 30여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齒科界의 내면적 西洋化는 1915년 이후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보다 약 7~8년 앞선 1907년 조선인이 등장하여 아뭇튼 西洋式 入齒方式으로 당당히 서울의 종로에서 영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한반도 齒科界가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西洋化되다가 한국인 齒科醫師와 공동으로 西洋化되기 앞선 약 7~8년간 조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齒科界에서 종사하였음이 분명하여진다. 따라서 이 시기는 韓國齒醫學史上看過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우선 이 7~8년간의 사회상을 勘案한다. 다음으로 당시 齒科界에서 종사하던 인물들의 활동상을 주워 모아 본다. 그러면 本項이 설정된 의미와 아울러 과도기 西洋式 齒醫學에 대한 이해는 물론, 我側齒科界 전체의 「開化」 과정에 대한 이해까지 깊어지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周知하는바 이 조선인들이 바로 崔勝龍을 비롯한 當時入齒師들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 入齒師에 대하여 先入見이 排除된 고찰이 따르는 것은 당연할 뿐 달리 도리가 없게 된다. 그러나 종래 학계에서 고찰된 入齒師像은 한결같다³⁷⁾. 때문에 韓國齒醫學史上看過한 수 없는 入齒師인 반면 한결같은 이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인한 兩者간의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 韓國 齒醫學史上 한 부분은 아뭇튼 半쪽이 가려져 남게 될 것이다. 이는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위에 거론된 兩者간의 간극을 메운다는 것이 간단한 작업은 아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거니와 入齒師에 관한 종래의 연구 결과가 신기하리만큼 한결같은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예민하며 조심스러운 작업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入齒師 역시 시대별로 세분하여 보았다. 재론의 여지 없이 앞서 지적된 兩者간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은 일종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첫째, 咸錫泰 등장 이전의 入齒師, 둘째, 京城齒醫學校 초기 졸업생 배출 전후의 入齒師, 셋째, 京城齒醫學校 제8회 졸업생 배출 당시까지 入齒師, 네째, 京城齒科專門學校 제3회 졸업생 배출 이후의 入齒師로 區分하였다. 이렇게 細分하는 데에 무슨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한 本연구의 目次에 일치시켜 細分한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한반도 齒醫學의 西洋式 변모 과정과 入齒師의 변모 과정을 중첩시켜 동시에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복잡성이 따르는 흠은 있겠지만 한반도 開化 과정과 더불어 한반도 齒科界의 西洋式 변모 과정을 보다 폭넓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한국인 入齒師가 등장하는 背景에 우선 주목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한국인 入齒師 崔承龍이 등장하여 서울의 종로에서 개업하였을 때는 1907년이었다. 이때에 日本이 露·日전쟁에서 승리한 후이다. 그러므로 아세아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開化」도 親日開化派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앞선 實學思想은 이미 學界에 實事求是를 追求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實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齒科界는 어떠한하였을까. 미국인 齒科醫師는 아직 來鮮하지 않았다. 그리고 日本人 齒科醫師 3인의 鼎立 시대가 바야흐로 개막되고 있었다.³⁸⁾ 물론 1884년경부터 미국인 醫師들에 의하여 일부 口腔外科的

註 37. 金知浩, 許正圭, 李漢水, “大韓帝國時代의 醫術의 研究”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 第7卷第

1號. 1986. 參照. ※ 註 35 參照.

註 38. 「大韓齒科醫學史會誌」 No1. 1960. P. 78 參照.

치치술이 施術되고 있었다³⁹⁾. 그러나 이들이 齒科補綴分野에 착수하였던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崔承龍이 미국에서 귀국하였다거나 日本에 留學하였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때를 전후하여 日本人 入齒師들이 대거 한반도로 밀려왔다⁴⁰⁾.

여기에 당시 外國人醫師들이 조선에서 開院하던 모습을 상기하여 곁들여 본다. 아는 이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野田應治가 仁川 또는 京城에서 開院할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日本의 세력이 漸増하고 있었다. 그러나 私設醫院의 경우 開院의 필수 요건인 장소 卽 부동산의 사용 및 소유가 아직 外國人에게 私私로이 허용되지 않았다⁴¹⁾. 따라서 野田應治 역시 私私로이 齒科醫院을 개설하려면 특정 지역⁴²⁾을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조선인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한 여건이었다. 실제로 外國의 醫療人들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조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應하여 補助를 하던 조선인 중 醫療人이 되기로 결심하여 醫療人이 되기도 하였다⁴³⁾. 또 당시 來鮮하여 있던 日本人 중에 醫師修業을 위하여 日本人 相互間에 私師한 예도 있었다⁴⁴⁾.

上記한 여러 요인을 감안하면, 京城에서 野田應治가 齒科醫院을 개설하였을 때 동업자, 副手, 또는 助手의 위치에서 협조한 조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경우 그 조선인이 피

상적이거나 기술적인, 나아가 학문적인 면에서 齒科 분야에 接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었다라고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崔承龍이 日本人 齒科醫師였는지 入齒師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아 물론 日本의 영향을 받아 入齒術을 익힐 수 있던 과정의 윤곽까지 떠올려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本項에서 의미하는 過渡期 西洋式 齒醫學은 특히 醫學에서 分化되는 시작 단계에 있었다⁴⁵⁾. 또 固有齒醫學獨存時代에서 西洋式 齒醫學이 移植되어 뿌리 내리고 마침내 공존하게 되는 轉換期였다⁴⁶⁾. 비록 외국인 醫師라 하더라도 齒科 분야에 관한 施術 능력을 보유하였다면 神奇하게 여겨졌다. 때문에 국권을 상실하자 醫師制度를 爲한 그나마⁴⁷⁾ 법규도 상실되었다. 齒科醫師를 양성한 교육기관이 없었음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 위에 齒科醫師와 入齒師는 자신들이 그 차이를 인식할 뿐 사회는 별로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형편이었다⁴⁸⁾.

따라서 崔承龍이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에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한 평가보다 實事求是에 입각한 施術 능력의 소유 여부가 重視되었을 것에 着眼하면 入齒師라는 자격이 多少 애매하였더라도 論難할 바 아니었을 것이다⁴⁹⁾. 때문에 崔承龍을 비롯한 약 7~8년간의 한국인 入齒師들이 日本을

註 39. 任慶彬 “朝鮮 齒醫學의 西洋式 變化過程에 對한 一 齣” 「大韓齒科醫學史學會誌」第 7 卷第 1 號, 1986. 參照.

註 40.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 1960. P.117. 參照.

註 41. 殷仲基. “韓末의 齒科業界에 對하여” (回古文)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 1960. 參照.

註 42. 任慶彬 “朝鮮 齒醫學의 西洋式 變化過程에 對한 一 齣”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第 7 卷第 1 號 1986. P.P.36 ~ 37. 參照.

註 43. 서우드, 홀 「닥터·홀의 朝鮮回想」東亞日報刊, 金東悅 譯. 1984. P.97 參照.

註 44. 大澤義誠, “朝鮮齒科界의 物語”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77. 參照.

註 45. 本項에서 過渡期로 본 시기에 비로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註 46. 소박한 견해임.

註 47. 金正均 “朝鮮朝 醫事制度의 考察” 「大韓齒科醫學史學會誌」1985. 第 6 卷 第 1 號. 參照.

註 48.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17. 參照.

註 49. 當時 한반도는 「開化」의 과정에 있었고 新知識을 습득하고 한반도의 사회적 낙후로부터 탈피를 도모하려는 新知識層은 이른바 「開化人」이라하여도 무리가 아니었다.

통하여 西洋式 齒醫學에 開眼한 齒科界의 「開化」人 바로 그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다고 보아 지나침이 없게 된다⁴⁹⁾.

그러나 이들 또한 국권을 상실하는 국가적 비운에 처하여 아물든 親日開化人으로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이다. 사회적 추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하기는 하지만 齒科 분야는 워낙 순수 분야이며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需要 또한 漸增하고 있었다⁵⁰⁾. 그럼에도 한국인 入齒師들은 실사회에서 日本人 齒科醫師들로부터 민족적인 面과 자격상의 차별이 따르는 위치에 있어야 하였다. 물론 入齒師들은 아무래도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이나 학문적 교육에 바탕하기보다 제각기 나름대로 技能을 傳受한 수준이었다. 때문에 이들이 어느 정도 技能을 익혀서 독자적으로 개업하게 되었을 때 기능 보유자로서 성격과 감각을 지니는 일면은 배제될 수 없겠다. 그러나 이들이 일단 개업하고 나면 日本人 齒科醫師들과 단번에 동등한 業者인 듯 보이는 까닭에 혼동될 가능성이 수반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직업인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본능, 자격상 차별대우에 의한 齒科醫師에 대한 저항感, 민족적 감정 등으로 뒤엉킨 한국인 入齒師는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당시 한국인 入齒師들의 사회에서 운신의 폭이 잘 이해될 것이다. 그 위에 日本人 齒科醫師들이 한국인 入齒師들은 脾下하면 할수록 식민지 교육의 한계성⁵¹⁾ 때문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齒科界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抗辯되더라도 당시 한반도 분위기는 얼마든지 용납해줄 수 있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적 공감대라는 바탕을 감안하면 무조건에 가까운 호응이 한국인 入齒師들에게 따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入齒師들은 비록 어깨너머 入齒術을 익힐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미흡한 術式이었지만, 나름대로 同族의 불편을 덜어 주려는데 뜻을 두고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 日本人 아래서 西洋式 齒醫學에 바탕을 둔 新技術을 익힌 셈이다.

따라서 過渡期의 入齒師는 한반도의 齒科界가 日本의 식민지배 아래 놓이지 않았으나 日本의 영향하에서 「開化」를 도모하던 과정 중 어쩔 수 없이 탄생된 존재라 하겠다. 때문에 보다 덜 植民化되었다고 보아 무리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1907년부터 한국인 齒科醫師가 탄생되기까지 한국의 齒科界에서 한국인으로서 전위 역할을 수행하던 「開化」인이며 보다 민족적 주체성이 보존된 韓國齒科醫師의 원시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齒科醫師가 한반도 내에 존재한 후 탄생된 까닭에 아무래도 한반도 齒科界⁵²⁾로부터 異端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一面을 처음부터 간직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 스스로 入齒師에 머물지 않고 한반도의 齒科界가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하여야 하였다. 그 결과 이들이 모두 시대 변천에 부응하여 齒科醫師로서 발돋움에 전념하였다면, 탄생 당시 비록 齒科醫師와 일반인의 중간쯤에 위치하였다고 하겠으나, 선구자가 분명하므로 韓國齒醫學史上 길이 추앙받아 마땅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이 간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韓國의 齒科界가 표면적 西洋化로부터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西洋化로 이전되는 過渡期 30여년간이라 하여 한국인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리고 당시 활동하던 한국인들이 過渡期 入齒師들이었다. 때문에 入齒師라 하여 韓國齒醫學史上 간단히 과소 평가될 수 없을 것이

註 50. H.N. 알렌 「朝鮮見聞記」申福龍 옮김. 平民社. P.P.161 ~ 162. 參照.

註 51. 소박한 견해상 傳受하는 쪽은 답습의 단계를 뛰어넘기 힘들고 傳授하는 쪽은 길들여지기를 바란다 할 것이다.

註 52. 당시는 入齒師라는 명칭도 형성되기 전에 해당된다. 그리고 한반도의 치과계는 외국인 醫師나 齒科醫師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었다.

다. 여기에 이르면 本연구에서 過渡期가 별도로 설정되며 당시 入齒師를 중심으로 고찰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③ 混沌期 齒科界의 一片貌

앞에서 고찰한바 한국인 入齒師가 我側齒科界의 내면적 西洋式 변모 과정 中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만족한 수준일 수 없었음은 이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1915년 마침내 韓民族으로서 齒科醫師가 탄생되었으며 咸錫泰였다⁵³⁾. 그리고 이로부터 我側齒醫學의 내면적 西洋化는 또 다른 轉機를 맞게 되었다. 이제 한반도에서 眞正한 西洋式 齒醫學이 어떠한 것이며 齒科醫師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여졌던 까닭이다. 한마디로 실존하는 그리고 意思消通이 원활한 인물 咸錫泰를 보면 되었다. 그래도 아직 한반도 내에 齒醫學 전문교육기관은 설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入齒師들은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 眞正한 齒醫學에 대한 관심은 점증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日本에서 齒科醫師 면허를 획득하고 귀국하는 例가 증가 추세에⁵⁴⁾ 있음에서 입증된다. 무엇보다 1921년 한반도에 아무런 齒醫學 교육기관이 없음에도⁵⁵⁾ 불구하고 齒科醫師 檢定시험에 합격자가 등장하는 데에서⁵⁶⁾ 뒷받침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我側齒科界는 한국인 齒科醫師면허 획득자들에 의해서 내면적 西洋化가 주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왜 그런지 表面化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入齒師는 日本에서도 사회문제였었다⁵⁷⁾. 前述한바 韓·日 合邦 이후 한반도 「開化」는 憂國啓蒙運動의 전개와 더불어 日本의 영향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我側齒科界는 오히려 점점 日本一邊到의 「開化」 과정을 치닫고 있었다. 이럴 즈음 日本總督府가 돌연 한반도의 入齒師를 陽性化하였다⁵⁸⁾. 그 까닭은 당시 入齒師들의 자세도 자세러니와 증가하는 齒科醫療施惠需要 때문인지 모른다. 어쩌면 日本의 植民地公衆 保健政策이었는지 모른다. 또는 한반도 齒科界에 대한 日本의 인식 수준일런지 모른다. 그러하더라도 군국주의 체제 아래서 모든 국민의 강인한 체력을 念頭에 두었던 당시 日本人 만큼 入齒師의 공인은 남득하기 어려운 처사의 하나였다.

아무튼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 齒科醫師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入齒師에게 그 수효부터 뒤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한국인 入齒師로 인하여 직업상 日本人 齒科醫師들의 天下가 차츰 위협받게 되었다⁵⁹⁾. 따라서 이미 過渡期의 入齒師와 성격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 한편 門戶開放 이후 한반도는 앞을 다툰 국제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줄지에 국제화된 셈이다⁶⁰⁾. 此際에 入齒師라는 모호한 존재가 齒科界에 공공연히 활동하는 日本임이 국제사회에 알려져서 日本의 입장이 유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러한 中에도 前述한 바 한반도에서 齒科醫療 需要는 증가하고 있었다. 때문에 가능하면 皇國民으로 개조된 한국인을 포함하되

註 53. 한국최초의 西洋式 齒科醫師.

註 54.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P.117~118. 參照.

註 55. 수련기관은 있었으나 교육기관은 없었다. 따라서 技術의인 面은 그래도 배울수 있었을 뿐이고 자격과는 無關하였다.

註 56.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16. 參照.

註 57.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P.79~80. 參照.

註 58. 註 57. 參照.

註 59.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79. 參照.

註 60. 美國, 日本, 러시아, 淸, 英國, 프랑스등이 제각기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결과였다.

한국인 入齒師를 한반도 齒科界에서 추방할 수 있는 密度있는 또다른 醫療傳達體系가 형성된다면⁶¹⁾ 당시까지 한반도 齒科界를 주도해 온 日本人 齒科醫師들에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된다. 또 한반도에서 증가되는 日本人의 口腔衛生도 방치할 수 없었다. 醫學校의 설립은 이미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기선을 빼앗겼다. 그리고 그속에 이미 齒科部가 존재하고 있었다⁶²⁾. 특히 統治者로서 항학열이 고조되는 此際에 植民地內 有史以來 없던 醫療교육기관을 세운다면 커다란 思典을 내리는 것에 해당한다. 재론의 여지없이 彼支配國民에 대한 人道的 관심이 尺度가 되며 고도의 과학기술을 傳授하려는 의지도 담겨있기 때문이다.

上記한 여러요인이 뒤엉켜 있을즈음 總督府병원에 柳樂達見이 부임 하였다. 그런데 周知하는 바 이 병원내에 齒科部가 부설되어 京城醫學專門學校 교수들이 진료에 臨하고 있었다. 따라서 京醫專부속병원의 역할과 修鍊병원의 기능도 갖었던것 같다. 上記한 분위기속에서 근무하게된 柳樂達見이 私私로이 開院한 日本人 齒科醫師들보다 교육적 입장에 處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自身이 근무하는 齒科部の 발전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보다많은 인재의 충원을 요망할것은 누구라도 共感할 것이다⁶³⁾. 이러한 요망을 충족시키려면 후진양성이 한 방편임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진양성이 意志만으로 도모될수 없다. 수준높은 齒醫學 교육기관의 설립이 뒤따라야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의욕적인⁶⁴⁾ 柳樂達見이 京醫專 설립과정에 주목하는것도 당연한 處事中的 하나일 것이다. 이상의 추측을 容許하려는 듯 마침내 柳樂達見이 京醫專 初創期⁶⁵⁾와 같이 야간 2년제의 齒醫學교육기관을 개설 하였다. 그런데 야간제로 출발한 표면적 이유는 校舍 때문이었다⁶⁶⁾. 그러나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그해에 바로 주간 3년제로 학제가 변경되었다. 아뭏든 1925년 京城齒醫學校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된 것이 분명한 이상 1922년 주간3년제였음은 움직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京城齒醫學校가 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주간3년제의 제1회 졸업생이라도 아직 所定の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었다. 제1회 졸업식을 전후하여 비로서 부속병원이 開院되

註 61. 京城齒醫學校는 어디까지나 한국에 거주하는 日本人子弟를 위한 학교였다. 여기에 한국인이 입학하였으니 동화되어갈 것이며 동시에 齒科醫師로 육성되므로. 유리한 위치에서 入齒師를 견제할 수 있는 韓國人群이 형성되고 있었다.

註 62.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117. 參照.

註 63. 柳樂達見이 來鮮하였을때 「세브란스병원」 齒科部에도 美國人선교치과의사가 근무하였고 소문이 나 있었다.

註 64.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3. 1962. P.66. 參照.

註 65. 上掲書, P.P.63~64. 參照.

註 66. 上掲書, No.1.1960. P.P.64~66. 參照.

註 67. 京城齒醫學校는 京齒專의 前身이다. 그런데 京齒專은 문부성의 지정을 받았고 京城齒醫學校는총독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 여기서 승인을 혹 지정과 같은의미로 해석하여도 좋을런지, 그리고 문부성과 총독부의 승인여하에 따른 齒科醫師의 면허는 면허통용地域의 범위라는 差異이외에 어떤 可視의 差異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할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京城齒醫學校를 졸업하던 京齒專을 졸업하던 졸업과 동시에 同一한 齒科醫師의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면 구태어 재편입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까닭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간직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關하여 종래 학계는 무관심하여 왔던것 같다. 그 까닭이야 어찌되었던 문부성과 총독부의 差異는 눈에 보인다. 따라서 京齒專과 京城齒醫學校間에 學制나 服制 이상의 差異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齒醫學專門教育機管의 졸업생이라도 同一한 입장일 수 없음이 우선 밝혀진다. 조금더 고찰하면 또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만 후일을 기약하고 여기서는 이만 그친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이유인지 京城齒醫學校 제1회 졸업생중 同校가 후일 京齒專으로 승격되자 재편입하여 다시 졸업하는 예가 있었다⁶⁷⁾.

그리고 어려운⁶⁸⁾ 과정속에서 설립된 齒醫學 전문교육기관은 기대를 모으고⁶⁹⁾있었다. 그러더니 1929년 마침내 4년제 專門學校로 승격된 후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 여전히 3년제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었다. 그까닭은 무엇일까.

總督府에서 실시하던 齒科醫術開業자격시험이 있었는데 그 應試대상은 누구일까. 이런 여러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이것은 바로 京城齒醫學校가 설립되고 京齒專으로 승격되는 과정에 여러 부류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여기에 덧붙여 京城齒醫學校당시 재학생들이 야간에 柳樂校長宅 물려가 강의하여 교장이 난처하였던⁷⁰⁾ 사실을 상기하여본다. 그러면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이 어느 시기에 이룰때까지 모든 졸업생이 동등한 면허를 획득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⁷¹⁾ 이르게 된다. 이 놀라운 결론은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의 설립필요성이 제고되고 마침내 설립되므로 비록 植民支配下이나 齒科界가 질서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알아보려 하던中 얻게된 의외의 소득이었다. 여기서 京城齒醫學校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入齒師가 존재할 수 있던 궁금증도 얼마간 해소될 수 있었다.

따라서 咸錫泰등장이후 京城齒醫學校 초기 졸업생이 배출되던 시기 한반도 치과계에서 활동하던 부류가 다양하였음이 드러난다. 즉 日本人 齒

科醫師, 入醫師 그리고 醫師로서 齒科部에서 근무하던 人物들이었다. 기타 외국인 齒科醫師, 또는 醫師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는 人物들도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면허를 획득하거나, 檢定시험에 합격 또는 齒科醫術開業資格시험에 합격한 齒科醫師도 있었다. 또 京城齒科學校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학제변경에 따른 여러갈래의⁷²⁾ 졸업생들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入齒師도 있었다. 이처럼 植民支配下⁷³⁾에서 我側齒科界는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그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체내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었다⁷³⁾. 그러하다면 당시 我側齒科界는 오로지 日本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을까. 한국인 齒科醫師 咸錫泰의 등장과 미국인 宣敎齒科醫師의 來鮮시기가 1915년이다. 한국의 齒醫學교육기관이 胎動되던 시기와 거의동시인 1921년 이미 「세브란스병원」 齒科에는 2代科長이 부임하고 있다⁷⁴⁾.

특히 2代科長은 한국에 19년간 머물게 되는 동안 낮익은 齒科醫師 李有慶博士를 지도 하였다. 그러나 개별적인 面에서 미친바 영향은 깊었지만 범위는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⁷⁵⁾. 그러하지만 미국의 齒醫學과 直接할 기회가 全無했던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 齒科界가 混沌像을 보이면서까지 꾸준히 日本一邊到 「開化」 과정에 있어야 했던 까닭도 궁금하겠지만 우선 이런 과정에 있었음은 움직일 수 없겠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에서 한반도에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였음에도 我側齒科界의 混沌像이 가시기는 고사하고 그 초기에는

註 68.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3. 1962. PP.63 ~ 66. 參照

註 69. 上掲書, PP.64 ~ 66. 參照.

註 70. 上掲書 PP.65 ~ 66. 參照.

註 71. 註 67. 參照.

註 72. 註 67. 參照.

註 73. 註 67. 參照.

註 74.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1960. P.92. 參照.

註 75. 「세브란스」病院에 齒科部는 있었지만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다. 따라서 齒科部에서 필요한 기성 齒科醫師들을 뽑았고 선발된 몇몇이 근무하면서 美國의 齒醫學에 直接할 수 있었다.

오히려 加重되고 있었다고 보아 무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齒科界의 내면적 西洋化가 완성되기에는 아직 時機尙早였다.

④ 整理期 齒科界의 一片貌

1932년 京城齒醫學校 제8회 졸업생이 배출되자 이후로부터 비로서 京城齒科專門學校의 一元化한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 京城齒醫學校 학생과 京城齒科專門學校 학생은 服裝부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京城齒醫學校 졸업생이라 하더라도 開院하였을 경우 단번에 入齒師와 구별될 특징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京城齒醫學校 졸업생들에게 비록 日本人 齒科醫師들에 의해서 창립된 齒科醫師會였지만 이는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인정받게 하여주는 인식처가 될 수 있었다. 그 까닭을 이해하려면 당시 齒科界와 주변상황에 주목하게 된다.

前述한바 국권이 상실되는 국가적 비운에도 한반도 齒科界는 표면상 국제화시대를 맞았다. 그러는중 日本에 의해 總督정치가 시작되자 이제 한반도 齒科醫師법규는 日本人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최초의 齒醫學교육기관 설립 또한 日本人에 의존되었다.

그런데 학문이라 하더라도 植民支配下일 경우 흔히 傳受하는 입장은 답습이라는 수준을 뛰어넘기 어려움고 傳授하는 입장은 傳受하는 쪽이 길 들여지기 바라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미국인 宣教師에 의하여 설립된 醫學校이던 日本人에 의하여 설립된 齒醫學校이던 궁극적 목적은 公衆保健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아울러 동일분야이거나 인접분야라 하여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설립자의 신분상 특성⁷⁶⁾, 국적, 對韓觀에 따라 설립후 그 標榜하는바가 조금씩 다르게 되

는것은 아무래도 피할 수 없다.

그위에 齒醫學은 齒醫學校와 醫學校 설립시기上的 차이, 표면에 드러난 施術上的 차이, 人間의 生死에 미치는 영향등으로 인하여 醫學분야와 공통성이나 특성上的 모든문제가 정확히 구별되어 똑바로 인식되기까지 醫學分野에서조차 독자적 위치에 있어야했던 이유를 감수해야 되었다.

더구나 당시의 齒醫學이 미국과 直接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이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었다. 그렇다하여 固有醫學과 連系관계를 제대로 성립시키기위한 의도 때문에 미국과 교류를 멀리한것도 아니다. 때문에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醫學은 傳受에 급급한 나머지 日本一邊到의 「開化」 과정에 놓여있던 셈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醫藥學間에, 西洋과 固有醫學間에, 여기에 「開化」 과정에 있던 齒醫學까지 끼어들어 제각기 전문 분야임에도 醫療分野라는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 어느사이 位相이 구분되는 특이한 관계가 형성된 형편이었다.

때문에 日本의 주도아래 뒤늦게 탄생한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立地여건과 운신의 폭은 도무지 당시 한국인 醫師들과 비교될 수 없었다. 그런가운데에서 자체내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入齒師들로부터 도전, 사회로부터 인식 부족이라는 장애물을 넘기위하여 고군분투 하면서 「開化」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즈음 日本人 齒科醫師에 의하여 창립된 京城齒科醫師會가 있었다. 이 會는 창립당시 日本人 5~6명에 불과하였다⁷⁷⁾. 그리고 한국인 齒科醫師의 가입이 용이 하였다. 뿐만아니라 日本人들은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터였다⁷⁸⁾. 때문에 이 會에 가입은 당시 日本人으로부터 민족차별이 없는 사회를 接할 수 있는 기회 하나였다. 그리고 재론의 여지없이 회

註 76. 설립자가 선교사라면 교육과 선교가 어쩔 수 없이 병행되듯 설립자에 따라 그취지가 교육과 병행되므로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설립자의 취지가 스며들어 되는것이 교육의 효과이다. 따라서 졸업후 사회활동中 설립자의 취지가 배어나오게 된다.

註 77.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 1960. P.P.74 ~ 79. 參照.

원간의 친목과 학술교류도 가능케하는 터전이었다. 또한 入齒師와 可視의으로 구분이 가능한 회원증을 부여하므로 한국인 齒科醫師들에게 권익을 가져다 주는데 모자람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입회는 어찌면 당연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齒科界 종사자들間에 일단 선망의 모임이었다.

여기서 잠깐 당시의 특수한 사회적배경과 관련하여 그 가입을 바라본다. 그러면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京城齒科醫師會 가입이 반드시 리로운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보는이의 視角에 따라 뜻하지 않은 오해가 따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입후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의 오해인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開化」는 미국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으며 憂國啓蒙運動으로 변화되어 부활되는 셈이었다. 그런데 我側齒科界의 진정한 정통「開化」群이라 할 京城齒醫學校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亂脈像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교육과정에서부터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줄곧 日本人들과 보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 자신은 자존심과 지도자의식에 충만하여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었다⁷⁹⁾. 그러니까 一見 오만하여 보이고 日本化한 新親日開化派로 오인되더라도 당장 이를 해명할 구실이 마땅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자신들로서는 誤認되고 있는지도 차 깨닫기 용이하지 않았다.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고 선진학문의 습득이 요구되는 자연과학분야에서 傳受단계에 흔히 파생될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까닭이다. 그위에 그토록 당당한 日本人이 비호하는듯 보였고 이미 正規라할 과정을 이수한 터였기에 누구도 함부로 범할 상대이지도 않았다.

그 결과 入齒師는 抗日齒科界 종사자의 위치쯤에 한국인 齒科醫師는 親日齒科界종사자의 위치쯤에 있는듯 오해되는 奇現狀이 빚어져도 변명하기 어려운 애매한 국면이 전개 되었다. 그러므로 아직도 入齒師가 건재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수가 증가 되었다.

그러나 바람직스러운 과정은 아니지만 上記한 애매한 국면속에서도 한국인 齒科醫師와 入齒師는 아뭏든 구별이 용이하여지기 시작 하였다.

그러던 1925년 京城齒醫學校는 專門學校로 승격되었고, 복제가 바뀌고, 졸업과 동시에 면허가 획득되었다. 마침내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국한되던 齒科醫師로서 자격이 文部省지정교가 되면서 日本에까지 확대되었다⁸⁰⁾.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들은 이제 한반도 齒科界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물론 이들가운데 한국인들이 我側齒科界의 색별로 등장하고 있었다. 또 專門學校로 승격되어 3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을때는 이미 京城齒醫學校에 입학한 학생들은 어떤형태로든 사회에 흡수된 후였다. 그러므로 학제변경에 따른 자체내 난맥상이 가시게 되어 모처럼 정리되고 있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도 증가 하였다. 그위에 뒤늦고 국한성은 지녔지만 「세브란스」병원 齒科部를 통하여 미국식 齒醫學과 直接하므로 힘을 입어 그 시야또한 조금씩 확대될 수 있었으며⁸¹⁾ 늦었지만 憂國啓蒙運動에 가까워 갔다. 그러니까 齒醫學이 醫學으로부터 분화되는 過程中에 있을 때 醫療界로부터 의문과 脾下의 대상이던 단계에서 마침내 독립된 한 분야로서 自立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문적 주체성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醫學과 인접분야의 위치에서 상호교류를 도모하므로 상호상昇의 효과를 거두려 시도할 수 있었다. 그 一環으로서 마침내 醫師와 齒科醫師의 연합단체를 구성하였다⁸²⁾. 이로써 사회에서 종전

註 78. 註 77. 參照.

註 79.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 1960. P.22. P.40. 參照.

註 80. 上掲書. P. 40 ~ 41. 參照.

註 81. 上掲書. P. 92 ~ 93 參照.

註 82. 奇昌德「韓國齒醫學史(上)」민족문화문고간행. 1987. P.175 參照.

의 我側 齒科界와 次元이 다른 모습에 接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한국인 齒科醫師로 구성된 漢城齒科醫師會도 유지하고 있었으니 더이상 日本의 비호에만 의존하려 하지않고 이제는 民族的 主體性을 찾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入齒師와는 그 지향하는 바가 비교조차할 수 없는 새로운 그리고 장래성이 번득이는 장래 韓國의 진정한 齒科醫師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점차 사회적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사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간직한 존재들로 부상하고 있었다. 특히 하나 하나의 이들은 이미 我側齒科界의 役軍이었으며 學者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두꺼운 民族差別의 장벽이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고 있었다. 때문에 여전히 自生할 수 밖에 없었다.

4) 植民支配가 我側齒科界에 미친影響

實學은 實事求是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사회속에서 응용의 효과보다 사회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머문다⁸³⁾. 그리고 朝鮮의 「開化」는 시대의 요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과정은 순조로움지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齒醫學은 朝鮮後期 實學의 대두와 더불어 分化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一分科로서 「開化」와 출발을 같이 한 셈이다. 그렇지만 齒醫學은 그 나름대로 실사회속에서 응용의 효과를 거두고있었다.

그리고 指向하는 바에 충실하려 고군분투 하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나 齒醫學이 一段 分化를 시작하였다고 한반도 「開化」라는 커다란 테두리로부터 결코 초연한입장에 있었던것은 아니다. 때문에 齒醫學이 지니는 한반도 「開化」과정과 차이에 대한 이해는 곧 당시 齒醫學의 변모과정상

특성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本연구의 성격상 植民支配가 我側齒科界에 陰陽으로 미친바 영향은 보다 밀도있게 주목되고 관찰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周知하는바 齒醫學은 醫學의 범주내에 속하여 왔다. 그리고 醫學은 그 학문체계가 갖추어질때 까지 동서고금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험때문에 존중될 수 있었다. 이 효험은 곧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었다. 나아가 이 효험이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므로 간절한 소망과 함께 기원을 同伴하게 되었다. 그러는중에 어느새 醫學은 神通한듯한 성격을 결들이게 되었다.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는 요청도 따랐다. 그러나 시대의변천과 더불어 人知가 啓發되며 그 학문적체계가 갖추어져 갔다. 그리고 정교함과 전문성이 胚養되어 인위적으로 보다 확실한 효험을 얻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로부터 점차 醫術은 神秘라는 차원에서 벗어나 仁術이란 새로운 차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비록 朝鮮이 계급사회였고 韓方 혹은 漢方醫學의지식을 습득할 醫人, 醫生, 醫博士, 醫女, 기타 등 대부분 中人계층이 醫療施惠를 베풀던 시대에도 변함없이 仁術의 지위를 굳히고 있었다. 朝鮮이 「開化」期에 접어들고 西洋醫學이 傳來되었어도 上記한 醫術에 대한 인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醫學이 神秘性을 상실하고 인위성을 떠웠으나 생명의 존엄성이 증가할 수록 仁術로서 인식은 비례하여 증대될 뿐이었다. 그러면서 분과별로 세분되어 마침내 제각기 전문성을 띠우게 되었다.

그런데 정교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문의 경우 순수한 학문적교류에 바탕을 두지않고 멋대로 밀려오고 서둘러 習得하려 하였을때 無理가 따르게 마련이다. 흔히 理論보다 손쉬운 術式부터 익히게되는 屬性을 지니게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학문이란 진실을 요구하며 심오하다. 그러므로

註 83. 歷史學會編, 「實學研究入門」, 一朝閣, 1983.

註 84. 미국인 醫師에게 발치를 부탁하고 入齒師가 入齒를 하고있다.

註 85. 승려, 무당, 지식인등

기초가되는 理論을 바탕으로 指向하는 바를 간직한다. 이것을 망각하면 단순한 모방조차 용이하지 않다. 뿐만아니라 때로 발전은 고사하고 시행착오에 직면하게된다. 그위에 한분야의 새로운 學問이 傳來되는 경우 해당사회의 여건과 思潮가 그 傳來에 미치는바 영향도 看過할 수 없다.

특히 醫術이 仁術로 인식된경우 인종차별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意外로 人種에 따라 仁術을 베풀 자격여부가 擧論될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一・二等國民이 구분되는 民族의受難期인 植民支配下에 놓여지는 사회적변화를 맞이하여 종래 간직해온 醫術에 대한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고 斷言할 수 없게된다. 唯獨 齒科界라하여 예외일 수 없다. 때문에 한반도 齒科界가 植民支配下에서 西洋式으로 변모하던중 混沌期를 거치는것도 그저 우연한 결과라고 넘길 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植民支配下에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의 윤곽이라할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받은 영향에 관한 언급에는 아직까지 接할 수 없었다. 무슨 까닭이었을까. 植民支配下에서 對症療法에 국한되던것으로 보이는 固有齒醫學이 西洋의 外科의 處치술을 받아드려 發展되었다는 막연한 견해가 其界를 지배하게된 까닭 때문일까. 아물튼 궁금증에서 벗어나날 수 없다. 여기서 다음 몇가지 사실에 주목하여 본다.

첫째 당시 한반도가 日本을 통하지 않더라도 西洋式 齒醫學과 接할 기회는 있었다. 실제로 西洋式 齒醫學을 接하게된것도 美國의 宣敎醫師「알렌」으로부터였다. 둘째 이미 齒醫學이 독립된 한 분야로서 分化를 시작한것은 재론의 여지없이 朝鮮後期 實學의 대두로부터 비롯된다. 셋째 한반도 固有의 齒醫學에 西洋의 새로운 術式이 가미되어 한단계 진보된 수준에 이른것이 아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한반도 固有齒醫學은 傳統醫學 體係내 安住하다가 實學의 대두와 더불어 새로운 轉換期를 맞았다. 그러다가 門戶開放이후 西洋齒

醫學과 공존하게 되었다. 그러더니 植民支配下에서 固有齒醫學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西洋齒醫學에게 내어 주었다. 때문에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학문적 대치임이 움직일 수 없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서두르므로 그 와중에 固有齒醫學의 소멸조차 깨닫지 못하는 대치였다. 여기서 기존의 학문체계가 전혀 새로운 학문체계로 재빠르게 대치되기도 어려웠겠거니와 재빠르게 대치되었다 하여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을 수 없음을 감안한다.

그리고 固有齒醫學은 일고의 여지가 없고 西洋齒醫學은 완벽하다고 아무도 斷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 첫번째 影響은 傳統性的 상실로 인한 아픔따위는 느껴볼 겨를도 없이 서둘러 西洋化의 외길을 걸어야 했음이다.

그런데 새로운 학문체계가 수용되고 뿌리내리기까지 사회로 부터 육성이 따라야할 것이다. 흔히 뿌리내리는 과정에 예측하지 않았던 시행착오가 따르는 까닭이다. 여기에 植民支配下에 시행된 入齒師의 제도권내 수용을 연관시켜 본다. 入齒師란 아물튼 모호한 존재이다. 따라서 入齒師의 탄생은 植民支配下 我側齒科界의 一過性 존재에 지날수 없다. 그러므로 齒科醫師가 등장하면 어찌되었던 소멸되어야 아무런 韓半島의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 齒科醫師의 등장이 가능하다면 總督府가 서둘러 한반도에서 入齒師를 제도권내에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위에 日本人에 의하여 설립된 京城齒醫學校 였지만 그 졸업생들은 한반도와 만주에 국한된 齒科醫師로 보아 無理없겠다. 이렇게 이들이 비록 지역적 제한성은 따랐지만 일단 사회활동을 시작하였을 경우 總督府는 入齒師를 더이상 면면히 존속 시킬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이 모두 植民支配下에서 我側 齒科界가 거치고 있던 움직일 수 없는 한 과정이었다. 이처럼 한반도 齒醫學은 한분야의 학문으로 分化부터

註 86. 憂國啓蒙運動의 一環에 입각한 피교육과 植民地의 피교육과의 차이만큼.

독자적 이었고 그 진행과정에서 전통성마저 상실하게 되더니 마침내 植民支配下에서 行政지원이나 사회적육성 부재속에 방치된채 고군분투 「開化」되고 있었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에서 齒醫學은 제도적이나 사회적 뒷받침없이 私私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는 바람직하지않은 인식이 사회속에 싹트게 되었다. 아울러 자체내 난맥상으로 무질서 양상을 노출하였고 서둘러 傳受에 급급한 나머지 本然의 仁術분야라기보다 기술분야인듯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두가지도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京城齒醫學校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었지만 이들이 충분히 실습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물론학교시설의 미비로 인한 결과였다. 한반도 유사 이래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이 日本의 植民支配下에서 日本人에 의하여 설립되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의 수준에 걸맞는 실습시설이 따라야함을 모를리 없다. 더구나 學制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동일학교 졸업생이면서 그 수준이 일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미 전문교육기관으로 모습을 갖춘 醫學이나 藥學專門學校졸업생들과 선후배간의 관계나 수업과정부터 비교될 수 없었다. 특히 미국인 선교사들이 설립한 「세브란스」 醫學專門學校 졸업생들과는 현격한⁸⁶⁾ 시야의 격차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에서 醫學분야간에 서로 位相이 구분되는 奇妙한 현상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齒醫學이 가장 뒤지게 되었다. 이 또한 植民支配下에 빚어진 풍조로서 我側齒科界가 감수하지 않을 수 없던 影響中의 하나로보아 無理 없을 것이다.

특히 京城齒醫學校의 시설이 재학생의 교육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였음은 또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齒醫學校의 시설은 그 자체의 진료수행능력에 직결되기 때문

이다. 이는 齒科界 자체내 문제이나 그 중요성은 구태어 舉論할 필요가 없을만큼 重大한 성격의 것이다. 무릇 醫院과 病院이 구분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덧붙여 綜合病院과 구분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京城齒醫學校 부속병원은 綜合病院과 修鍊病院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학교 재학생들의 실습조차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웠다면 더이상 舉論함이 무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당시 齒科界에서 醫院, 病院, 綜合病院의 진료수행 능력상의 구분은 애매할 수 밖에 없게된다. 더구나 당시 日本人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던 公立病院 齒科部에도 無資格者들이 공공연히 근무하는 실정임을⁸⁷⁾ 감안한다. 때문에 구분은 고사하고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의 我側齒科界는 一次診療機關과 二次診療機關間에 구분없는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출발이 其界의 전개과정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와 더불어 간직한 의미의 중요성은 새삼 舉論될 문제가 아닌것이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가운데에서 제외될 수 없는 하나임이 분명하여진다.

그런데 本연구는 韓·日合邦이후 1933년경까지의 植民支配下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1945년에 이르는동안 앞에서 舉論된바 몇가지 음성적 영향이 말끔히 부식되었는지 언급할 수 없다. 때문에 1933년이후 획기적인 전기가 日本의 주도하에 다가와 我側齒科界에 마침내 충격을 주어 大局的見地에서 바라보면 발전이라는 양성적 결론에 도달될런지 모른다.

물론 한반도에 西洋式 齒科醫師가 등장하므로 我側齒科界가 받게된 신선한 충격은 日本의 영향이다. 여기서 그 시기가 植民支配下가 아니라 하여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과 無關하게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안목에 해당될 것이다. 바로 그 齒科醫師가 植

註 87.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誌」No.1, 1960, P.79. 參照.

民支配下에서 京城齒科醫師會 會長으로 활약하는 한가지만⁸⁸⁾ 하더라도 無關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까닭이다.

또 한반도 齒科界가 실질적이고 내면적 西洋化를 도모하는데 기념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있는 咸錫泰의 등장은 我側齒科界가 植民支配下에서 받은바 진취적 영향임이 분명하다.

특히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이 植民支配下에서 日本人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설립취지가 我側齒科界에 미친바 영향이 얼마나 고무적이었는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我側齒科界는 비록 政治的으로는 植民支配下에 있었지만 학문적으로는 대중요법에 국한되었던 단계에서 日本에 의하여 발달된 西洋式 外科的 處治術을 익혀 당시 동남아에서 마침내 日本 다음가는 수준으로 발전되었다는 見解가 성립된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見解를 따른다면 구태어 까다로우게 당시 總督府의 處事나 入齒師에 관하여 學論하면 복잡성만 더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 1945년까지 我側齒科界에 관한 넓고 깊은 고찰없이 上記한 見解에 언급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는 발전하였고 그 바탕에는 總督府의 적극적 지원이 놓여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1933년경을 지난 我側齒科界에 깊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였음에도 언급할 수 있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一貫性を 상실함 없이 새록 새록 등장하는 入齒師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때문인지 아무도 이들의 지속되는 등장에 간직된 의미는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평범한 한가지 사실로부터 조금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서도 언급되었지만 入齒師는 탄생당시 의미와

달리 아무래도 齒科界에서 과도기의 一過性 존재에 머물러야 되었다. 주역은 齒科醫師에게 맡겨져야 하는 까닭이다. 때문에 京城齒醫學校가 京城齒科專門學校로 승격되고 그 졸업생의 면허가 日本까지 통용되는 변화가 따랐다면⁸⁹⁾ 이즈음 我側齒科界에서 入齒師와 관련된 뚜렷한 변화가 따름도 마땅할 것이다. 또한편 齒科醫師檢定시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⁹⁰⁾. 기타 齒科醫師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我側齒科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었다⁹¹⁾. 재론하거니와 入齒師는 日本에서도 사회문제였으며 당시 한반도의 日本齒科醫師들에게도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다. 때문에 日本人들에 의해서 入齒師가 齒科界의 발전저해 요인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었다. 그뿐아니라 자격이 애매한 齒科界종사자의 존재사유는 이미 제도적인 면에서도 退色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관한 總督府의 조처는 애매하였다⁹²⁾. 그러므로 入齒師가 존속될 수 있었으니 어이없게도 서슬퍼런 總督府도 入齒師앞에서는 無力한 존재에 불과한 듯 보였다. 總督府의 이같은 입장은 재론의 여지없이 당시 한반도 齒科界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시키는 處事が 아닐 수 없었다. 바로 總督府가 승인한 齒醫學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의의를 삭감시키는 處事に 해당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이르면 한편으로 總督府가 한반도 齒科界의 육성을 저해하고 있었던 셈이된다. 이러한 당시 總督府의 處事は 밝혀지고 이에대한 해명은 게으른 탓인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 總督府處事に 대한 해명에 接할 수 없는한 總督府가 한반도 齒科界에 모순되는 시책을 동시에 펴고 있었음은 아무래도 움직일 수 없게된다. 여기에 덧붙여 당시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활동한계를 비록 一片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植民

註 88.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上)」 민족문화문고 간행 P.174 參照. (※ 1915년 12월)

註 89. 註 79. 參照.

註 90. 「大韓齒科醫學研究會誌」No.1, 1960. P.16. 參照.

註 91. 上揭書. P. 79. 參照.

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처한 실정에 관하여 보다 바른 이해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周知하는바 당시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日本人 齒科醫師會에 가입은 환영받고 있었다. 따라서 雙方齒科醫師들 間에는 민족차별이 없는듯 보일 수 있었다. 때문에 한국인 齒科醫師들의 사회활동은 자유로웠다고 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시 한국인 齒科醫師들로 구성되어 존속하던 漢城齒科醫師會가 마침내 해산되었음은⁹³⁾看過할 수 없다. 齒科醫師들이라도 한국인들만의 모임은 아무래도 주목받고 있음이 엿보이는 까닭이다. 이또한 相反된 현상이다. 때문에 이에 관하여 조금만더 음미하여보면 한국인 齒科醫師들은 역시 日本人 齒科醫師會의 一員이었을 경우에⁹⁴⁾ 국한하여 활동의 자유가 부여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간직된의미가 당시 한반도 齒科界의 실정을 똑바로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것이다. 그러니까 당시 한반도 齒科界는 철저하게 日本의 의도대로 임의로 통제될 수 있는가운데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 무리없을 것이다.

끝으로 植民支配下의 我側齒科界는 한마디로 入齒師가 끼어들어 당당히 開業할 수 있는 수준임은 움직일 수 없었던만큼 발전하였다한들 그 수준이 대단하지 못하였을것이 분명한 此際에 그 수준에 대하여 그렇게 만족하여도 좋은지 의심스러울 뿐이라 하겠다. 때문에 구태어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음성적 영향을 결들이지 않고 이렇게 노출된채 방치되었던 몇가지 평범한 사실에만 주목하더라도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으로 인하여 당시 동남아에서 日本의 다음가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見

解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퇴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표현상의 과장임이 드러날 뿐이다. 다만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는 자신들의 의사와 별도로 무비판적으로 日本을 흉내내는 가운데 西洋式 변모를 거듭하고 있던것으로 보면 無理없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음성적 영향을⁹⁵⁾ 받아 때로는 기묘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며 변모를 계속 하였다. 그러다가 京城齒醫學校가 京城齒科專門學校로 승격되어 제모습을 찾게됨에 비로서 학문적으로 개안하게 되고 미국의 齒醫學과 直接하므로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植民支配下라는 두꺼운 政治의 장벽은 아무래도 我側 齒科界가 뛰어넘기에 力不足인 존재였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5) 結 論

이상에서 1933년경까지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의 변천과정을 한반도 「開化」 과정과 연결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그 이유는 한반도 「開化」 과정이 곧 당시 학계의 변천과정에 해당하고 그 가운데 한분야로서 齒醫學이 포함된 까닭이다. 그리고, 본연구의 대상시기가 1933년경으로 국한된 植民支配下였던 때문인지, 한반도 齒科界가 植民支配下에서 간단없이 발전하였다는 종래 見解와 軌를 달리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조금은 당황하였다.

그러므로 1933년경까지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음성적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그 결과 당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음성적 영향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을때 我側齒科界의 발전가능성이 多少 희박하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註 92. 前掲書 P.P. 79 ~ 80. 參照.

註 93. 上掲書 P. 23. 參照.

註 94. 이들은 결국 학생시절부터 사회인이 되었어도 日本人과 행동을 같이하도록 日本의 통제하에 있었던 셈이다.

註 95. 本項의 앞부분에서 學論된 음성적 영향.

周知하는바 학계에서 固有性이 지나치게 강조될때 자칫 정체성과 폐쇄성마저 띠우는 폐단이 따른다. 반면 간단하게 固有性을 저버리는 경우 자칫 그분야 발전의 결정적인 저해요인이될 수 있다. 여기에 비추어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의 하나인 固有齒醫學의 소멸을 떠올리면 일말의 아쉬움을 갖게 된다. 아 아쉬움은 단순히 복고주의적 감상에 해당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인체를 補하려하였던 傳統醫學에 포함되어 있던 이상 固有齒醫學에는 바로 西洋式 齒醫學에서 중요성이 인식되는 豫防齒醫學의 側面과 상통하는 일면이 간직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그 결과 固有齒醫學의 소멸은 齒科界 전체의 손실임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1933년경까지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가 받은바 영향과 1945년까지 과급여부, 植民支配에 我側齒科界가 발전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시술능력과 수준, 당시 日本을 제외하고 西洋式 齒醫學에 다가갈 기연의 유무등에 대한 연구等이 따르지 않고, 植民支配下일 망정 한반도 齒科界가 西洋式 齒醫學을 接할 기연을 잡아 동남아에서 日本다음가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는 종래의 見解는 아무래도 성급하고 막연한 先入見에 치우쳐 있음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때문에

植民支配下에서 我側齒科界의 변천과정은 아무래도 발전이기보다 변모라고 보아야 적당함도 알게되었다. 여기서 한번더 양보하더라도 日本의 의도대로 학문적대체를 서두른것 이상으로 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본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문적 활동의 자유와 활동자의 주체성이 상실된 경우 우선 아무리 순수과학분야라 하여도 발전의 단계에 이르기 어렵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잠깐이나마 잊어서 아니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경우 한분야 학문의 변모과정 조차 똑바로 이해할 수 없게되는 歷史의교훈까지 깨닫게 된다면 그 성과는 새삼 거론의 여지가 없겠다.

그러나 재론하지만 본연구에 시기상 1933년경 이후 1945년까지가 빠져있다. 그리고 하나의 의학분야를 다루면서 그 시술능력이나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빠졌다. 그러므로 본연구에 국한성이 內在됨을 솔직히 시인한다. 이처럼 본연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따르게 되기를 고대한다. 그 결과 본연구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것임을 부언한다. 아울러 諸賢으로부터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고대하며 일단 그치기로 한다.

ABSTRACT

STUDY ON THE TRANSFORMING STAGE OF ITS OWN DENTISTRY UND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IM, Kyung Bin
Shilla Dental Clinic
Dentist

This study was initially initiated placing focus on illuminating the development of dentistry on the Korean peninsular under the Japanese annexation. To further pursue the subject matter, assessments were made by reviewing various memoirs of the Japanese dentists practicing their profession at that tim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oundation of the Kyongsong dental school,⁽¹⁾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olitics and learnings. Though Korea being under the Japanese annexation, the dental treatment was in transit from the symptomatic treatment to westernized surgical treatment. It has been considered that the dental treatment level was ranked next to Japanese in the Southeast Asia, which was very persuasive and generally accepted so by the majority of dentists.

This study was on a fair way until the appearance of significant "IPCHISA",⁽²⁾ who were permitted to practice dentist profession by the government-general even though they had never received any regular training at the author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above mentioned two factors caused this study to shift its course, and what forced the situation becoming worse was that there were several different classes of graduates from the Kyongsong dental school, which made this study to hang in the air for a while.

It was determined through further assessments that the government-general was full of inconsistencies on its own dental education by having affected unfairness, which made to raise questions on the existing opinion among the dentist that its own odontology level was ranked next to Japanese. All of these caused to change the course of study. During the course of further assessments, it was decided that the circumstances prior to and posterior the year of 1933 should not be viewed at the same time. That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Kyongsong dental school had been changed several times in its school system. It was also noted that some of the dentists had been trained from the dental department of Severance Hospital where they had been able to learn westernized dental treatment, even though its scope was very limited. In view of the above, this study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e. prior to the year of 1933 and its posterior so as not to be out of the sequence of the events.

Although it would distract attention, this study include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in order to help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ose days. The comparison was necessitated because of the limited available materials pertaining to the dental field of those days. In other words the assessment of the development of those days make you understand more in detail of the transforming of odontology during that time frame. As you can see, the development was in parallel with the odontology transforming.

Based upon the above mentioned various factors, the initial stage of this study has to be changed to cope with new requirements. This study was set limits to prior to the year of 1933 accordingly so that it would not only enumerate the steps of its odontology development but also apprehend the actual circumstances of its transforming step by step in depth.

ref. (1) : 京城齒醫學校 ref. (2) : 入齒師

I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use you to review the accepted opinion of its own odontology transforming during the above mentioned period of time frame, it would be worthwhile study.

As noted above, the course of this study has to be changed due to various factors and it may contain logical jumps or inconsistencies. Your kind and frank reproof is more than welcomed.

단군조선(檀君朝鮮)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한 문헌고찰

李 丙 台 *

목 차

서 론

문헌의 개요

단기고사(檀奇古史)

제1편 전단군조선(前檀君朝鮮)

제2편 후단군조선(後檀君朝鮮)

규원사화(揆園史話)

3. 단군기(檀君記)

삼성기전 상편(三聖記全 上篇)

단군세기(檀君世紀)

태백일사(太白逸史)

1.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

2. 신시본기(神市本紀)

3.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요 약

단군조선의 치과의학

결 론

참고문헌

서 론

단군(檀君)과 단군조선(檀君朝鮮)에 관한 기재(記載)*는 속제로 남길 지언정 신화(神話)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¹⁾.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아버지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환웅(居弗檀 桓雄)과 어머니 곰족(熊族)의 왕녀 사이에서 신묘년(辛卯年, BC 2370)년 5월 2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성장하여 무진년(戊辰年, BC 2333년) 10월 3일 총회를 열어 임금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개창(開創)된 단군조선은 단군47대 2096년간(BC 2333~BC 238) 존속하였다.

저자는 단기고사(檀奇古史)²⁾³⁾, 환단고기(桓壇古記)⁴⁾⁵⁾, 규원사화(揆園史話)⁶⁾⁷⁾, 신단민사(神檀民史)⁸⁾, 단군조선 47대⁹⁾와 같은 우리나라 상고사(上古史) 연구에 관한 문헌을 토대로 상고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한 고찰을 한 바 있다¹⁰⁾¹¹⁾.

또한 저자가 시도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논문 및 저술은 김관흥(金官興)¹²⁾과 김지호(金知浩)¹³⁾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저자의 上告時代 齒科醫學 研究 시리즈^{(10), (11)} 및 본 논문포함)를 계속 발표하는 도중 李漢水¹⁴⁾, 奇昌德¹⁵⁾의 주옥 같은 문헌에 접하여 光明을 보는 듯했다. 특히 이제까지 접할 수 없었던 문헌에 접하여, 언뜻 이제까지의 사관(史觀)과는 달라서, 분명히 교과서 외적(教科書外的)인 인상을 배제할 수 없음도 사실이며, 자칫 허구적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없지도 않으나 그러나 단군(檀君)이 신화가 아니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문헌에 의한 고찰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다각적이고 다방면으로 접근하면서 시대적인 고찰을 하여야 하며 객관성 있게 추

* 국사왜곡의 시정(是正)에 따라 국사교과서에 “단군은 신화가 아니며 實事이다.”라고 고쳐쓰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생각됨.

※ 本會副會長・大韓齒科補綴學會會員・月刊 齒科研究 編輯人・李丙台齒科醫院長

리하여야 함을 지표로 삼고 연구에 임하였다.

문헌의 개요¹⁰⁾¹¹⁾

단군(檀君)과 단군조선(檀君朝鮮)에 관한 문헌을 수집하였다. 입수된 문헌의 책명·저자·연대·내용 및 기타에 대하여 조사·검토하였다. 그 문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단기고사(檀奇古史)

- 대야발(大野勃) 著
- 천통(天統) 31년 3월 (AD729)
- 발해국(渤海國)의 시조인 대조영은 지금부터 1300년전, 고구려가 나당군(羅唐軍)에게 패망하고 국서고(國書庫)가 타버리자 함께 타버린 이 단기고사(檀奇古史)를 왕의 아우이면서 문호(文豪)인 대야발(大野勃)에게 편찬토록 하였다. 이에 13년을 거쳐 저술하였으나 진본(眞本)은 내려오지 않으나 上古史 연구에 더없는 자료이다.
- 내용
제1편 전단군조선(前檀君朝鮮)
제2편 후단군조선(後檀君朝鮮)
제3편 기자조선(奇子朝鮮)

2. 규원사화(揆園史話)

- 북애(北崖)
- 숙종2년 을묘 3월 상순 (AD 1675년)
- 내용
1. 조판기(肇判記)
2. 태시기(太始記)
3. 단군기(檀君記)
4. 만설(漫說)

3. 환단고기(桓檀古記)

- 계연수(桂延秀) 편저
- 신시개천(神市開天) 5808년 光武15년 신해(辛亥) 5월 (AD 1911년)

· 내용

이 환단고기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문헌을 한데 묶어서 펴낸 것이다.

(1) 삼성기전상편(三聖紀全 上篇)

- 안함로(安含老) 撰
- 정확한 저작 연월일은 알 수 없으나 안함로는 新羅 진평왕 22년(서기 600년)에 王命을 받아 중국에 학문을 닦았던 도승(道僧)이다. 속성(俗姓)은 金氏이며 시부 이창(詩賦 伊滄)의 자손이다. 선덕왕 9년 62세로 만선도장(萬善道場)에서 세상을 떠났다.

(2) 삼성기전 하편(三聖紀全 下篇)

- 원동중(元童中) 撰

(3) 단군세기(檀君世紀)

- 이암(李崐)
- 서기 1297~1364년
- 호는 행촌(杏村). 17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왕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부인(符人)을 맡게 되었으며 비성(秘省)이란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후 좌정승을 거쳐 공민왕 8년에는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고 13년에 68세로 세상을 떠났다. 단군세기(檀君世紀)·농상집요(農桑集要)·태백진훈(太白眞訓)의 행촌삼서(杏村三書)란 저서를 남겼다.

(4) 북부여기(北夫餘紀)

- 범장(范障) 編
- 고려말
- 호는 북애거사(伏崖居士), 자는 여명보(汝明甫) 일명 범세동(范世東)이라고도 한다. 고려 공민왕 때에 간의대부(諫義大夫)란 벼슬을 지내다가 고려가 망하자 만수산(萬壽山)에 들어가 숨어 살았다. 북부여기(北夫餘紀)외에 동방연원록(東方淵源錄)이란 저서가 있다.

(5) 태백일사(太白逸史)

- 이맥(李陌)

- 조선조 중종(朝鮮朝 中宗)
- 호는 일십당(一十堂) 연산군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甲子年(연산10年) 괴산으로 귀양갔다가 16년만인 중종 15년에 찬수관(撰修官)이 되어 귀양때 노인으로 부터 들은 비장사전(秘藏史傳)을 보고 쓴 것이다. 그러나 감히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비밀히 감추어 두어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다.

· 내용

1. 삼신 5제본기(三神五帝本紀)
2. 환국본기(桓國本紀)
3. 신시본기(神市本紀)
4.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 마한세가 상(馬韓世家 上)
 - 마한세가 하(馬韓世家 下)
 - 변한세가 상(番韓世家 上)
 - 변한세가 하(番韓世家 下)
5.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
6. 고구려국본기(高句麗國本紀)
7. 대진국본기(大震國本紀)
8. 고려국본기(高麗國本紀)
9. 태백일사 발(太白逸史 跋)

단기고사(檀奇古史)

제 1 편 전단군조선(前檀君朝鮮)

제1세 단군왕검(第一世 檀君王儉)

“단군왕검은 제1세 단제(檀帝)이니, 환웅의 아들이며, 환인의 손자이다. 신성(神聖)하시고 문명(文明)하시며, 인애(仁愛)하시고 자비하셨다.

또한 도(道)는 천지에 통하시고, 덕이 사해(四海)에 미쳤으며, 구이족(九夷族)*¹⁾과 친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 가르치셨다. 또한 종교를 창립하여 삼일신고(三一神誥)*²⁾를 천하에 널리 알리고, 366사(事)의 신정(神政)으로 정성스럽게 교훈하시니, 그덕은 천지에 건줄 수 있고 그 밝음은 해와 달과 같았다. 그 교화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10월 3일 총회를 열어 환검을 임금으로 추대하니, 제1세대 단제(檀帝)시다”.

“임금께서 신우(神祐)에게 명하시기를 ‘백성들에게 오륜(五倫)을 가르치며 관후(寬厚)와 박애(博愛)를 명심하라.’ 하시고, 또 고시(高矢)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사농관(司農官)이 되어, 농민에게 농사를 가르쳐 온갖 곡식을 심어 추수하게 하되 때를 놓치지 말라.’ 하시고, 또 신지(神誌)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사악(司樂)이 되어, 백성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마음과 정신을 화창(和暢)하게 하라.’ 하시고, 또 해월(海月)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사공관(司工官)이 되어, 모든 공인(工人 = 匠人)들에게 각기 기능에 따라 기구를 제조하게 하여 날마다 생활에 쓰이는 물건을 공급하게 하라.’하였다. 또 운목(雲牧)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감시관(監時官)이 되어 춘·하·추·동 네 계절을 정하되, 72후(候) 24절(節)을 정하여 농업에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시고, 또 마옥(磨玉)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미술관(美術官)이 되어 미술발명품(美術發明品)에 전력을 다하라.’ 하셨다. 또 팽오(彭吳)에게 명하시기를 ‘자네는 개척관(開拓官)이 되어, 치산치수(治山治水)에 전력을 다하여 침수와 도로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백성이 살아가는데 안전하도록 하라.’ 하시고, 또 원보팽우(元輔彭虞)에

*¹⁾ 우리의 옛 환국(桓國)의 아홉 족속, 곧 검이(畎夷) · 우이(隅夷) · 방이(方夷) · 황이(黃夷) · 백이(白夷) · 적이(赤夷) · 현이(玄夷) · 풍이(風夷) · 양이(陽夷)

*²⁾ 단군 이전부터 내려오는 우리 민족의 경전. 천훈(天訓) · 신훈(神訓) · 천궁훈(天宮訓) · 세계훈(世界訓) · 진리훈(眞理訓)의 다섯 부문으로 되어 있다. 신지(神誌)씨가 옛 우리글로 쓴 것을 왕수궁(王受兢)이 번역한 은문(殷文)은 모두 없어지고, 고구려 때 번역하고 발해 때에 해석해 놓은 한문 본만 남아 있다.

다.

20년에 평양성(平壤城)을 쌓았다.”

제 5 세 구을(丘乙)

“첫해에 만아들 달문(達門)을 태자로 삼고, 아우 삼인(三人)을 번왕(藩王)에 봉하였다.”

“4년 봄에 하(夏) 나라 사절이 왔다. 유응(有應)씨가 무도(無道)하여 소나벌(蘇奈伐)을 보내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8년 여름에 신독(身毒)^{*1)} 나라 사람이 표류하여 동해빈(東海濱)에 닿았다.

9년 가을에 접빈관(接賓館)을 동문 밖에 지었다.”

“13년에 감성관(監星官)에게 혼천기(渾天機)를 만들게 하여 천도(天度)와 합하게 하였다.

15년에 감성관 황포덕(皇甫德)이 임금께 아뢰기를 ‘제가 천문(天文)을 관측한 지 50년이 되므로 천체의 대강을 추측하였읍니다. 천체 중에 제일 큰 것은 북극성 같은 항성(恒星)입니다. 그 다음은 태양의 종류이며, 다음은 수성·금성·지구성(地球星)·화성·목성·토성·천명성(天明星)·해명은성(海明隱星)·명성(明星) 같은 행성이 있어 태양을 중추(中樞)로 삼아 회전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역시 태양계의 하나인 행성입니다. 해는 땅의 온도를 조화(調和)하여 만물의 생장(生長)을 돕는 것이며, 지구의 외각에는 붉은 막이 포위하고 있어 지면의 각종기체를 보전함으로써 기체가 발산하지 못하고, 그 범위 안에 있어 태양의 뜨거운 빛을 받아 바람과 구름도 되고, 우박도 되고, 서리나 눈도 되어, 사계절이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면에 사는 사람은 만물과 더불어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으니,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면 음양(陰陽)을 따라 사시(四時)를 좇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음양을 따라 사시를 좇지 못하면, 백성이 농사철기를 맞추지 못하여 수확이 없어 농민이 굶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역법(曆法)을 정하시어 우리나라 기후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그렇다 하시고 국역(國曆)을 새로 만드니, 이것이 조선역서(朝鮮曆書)의 시작이다.

16년에 임금께서 고역산(古歷山)에 행차하시어 제천단(祭天壇)을 쌓으시며 주변에 근수(槿樹)^{*2)}를 많이 심고, 7월에 임금께서 비류강(沸流江)을 지나 강동(江東)에서 승하하시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6세 단제시다.”

제 6 세 달문(達文)

“마서자(麻西子)는 음탕한 사람이다. 하루는 맛이 좋은 술을 구하여 진상하니, 임금께서 마시고 달다 하시며 ‘이것은 성품을 상하게 하여 미치게 만드는 약이니, 후세에는 반드시 술로써 나라를 망치며 패가(敗家)하는 자 많으리라.’ 하시고 드디어 마서자(麻西子)를 끊으셨다.”

“35년에 임금께서 열국의 왕후(王侯)를 상춘(常春)^{*3)}에 모이게 하니, 큰 나라가 둘, 작은 나라가 스물, 주장(宙長)이 360이나 되었다.”

제 7 세 한숙(翰粟)

“25년에 주부(主父) 온백(溫伯)이 임금을 달래며 말하기를 ‘지금 하(夏) 나라 정법(政法)이 어두워 국세는 위축되고 백성은 가난하며, 군사는 약하여 외적의 침입이 쉬지 않는 이 때에, 천제(天帝)의 나라는 부하고 군사가 강하니, 한번 군사를 움직여 공격하면 하나라를 손아귀에 넣기란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 쉬운 일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잃지 마시옵소서.’ 하니 임금께서 ‘공연히 남의 나라를 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며, 또

*1) 인도

*2) 무궁화나무

*3) 장춘(長春)을 말함.

영토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노라.’ 하셨다. 하 나라 왕이 이 일을 전해듣고 사자를 보내와 사례하였다.

26년에 큰 흉년이 들어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였다.

48년에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반을 감해 주었다.”

제 8 세 우서한(于西翰)

“4년에 임금께서 일부러 보통사람과 같은 옷(微服)을 입으시고, 하(夏)나라에 들어가 지리와 정치와 인정(人情)과 풍속을 살피시고 반년만에 귀국하여 관청의 제도를 크게 고쳤다.”

제 9 세 아술(阿述)

“5년에 고소(高蘇)에게 명을 내려 국법전서(國法全書)를 다시 편찬하였다.

6년 봄에 을성문덕(乙成文德)이 아뢰기를 ‘국가는 모든 백성의 국가이며, 임금 한 분의 사유가 아니므로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국사(國事)를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부(府)와 군(君)의 대표가 의사원(議事院)에 모여 국사를 의논하여 결정한 후에, 천제(天帝)의 허락을 얻어 정부의 책임자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면 임금과 백성이 합의하는 정치가 되는 것이니, 바라옵기는, 회기(會期)를 정하시어 백성에게 참정권(參政權)을 허락하옵소서’하였다.

임금께서 허락하시고 매년 8월1일을 정기회의날짜로 삼으니, 민권(民權)이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다.”

제10세 노을(魯乙)

“첫 해에 맏아들 도해(道奚)를 태자로 삼고, 혁보(赫普)를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삼고, 풍오(風五)는 수상(首相)으로 삼고 을성문덕(乙成文德)은 상장으로 삼고, 용가래량(龍加來良)은 호군(護軍)으로 삼았다. 이아한(伊阿漢)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부리지 않는 신하가 있어야하니, 의

논하고자 하시면 친히 찾아 물으시어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사(政事)의 최고자문처(最高諮問處)입니다. 바라옵기는, 전하께서 마땅히 설치하시옵소서.’ 임금께서 그 말을 따라 자문기관을 만들었다.

2년에 이하한(伊阿漢)을 숙정처장(肅政處長)으로 삼아 고시(考試)로 인재를 뽑았다.

5년에 각도의 고을(首府)에 신원함(伸冤函)을 설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함에 신원서를 넣어 억울함을 풀게 하였다.”

“16년에 동문(東門)밖의 육지에서 연(連)이 나고, 장백산(長白山)에서는 누운 돌이 일어나고, 발해(渤海)에 용귀(龍龜)가 나타나고, 흑수(黑水) 강가에 금괴(金塊)가 노출되니 그 수량이 열한섬(石)이나 되었다.

58년에 천문대(天文臺)를 쌓고 감성관(監星官)을 두었다. 이 해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제11세 단제시다.”

제11세 도해(道奚)

“첫 해에 맏아들 아한(阿漢)을 태자로 삼고, 유위자(有爲子)를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삼았다.

유위자(有爲子)가 임금께 아뢰기를 ‘우리 천제국(天帝國)은 신조(神祖)께서 종교를 창립하여 국교(國教)로 삼으시고 백성들이 다 숭배하며 우러러 믿었으나, 세월이 가고 사람도 가니, 경(經)이 쇠잔해지고 교(教)가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신교(信教)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형식에 홀려 음탕한 짓을 마음대로 하며 미신(迷信)에 빠져, 그 해로운 영향이 국정(國政)에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엿드려 비옵기는, 전하께서는 종교를 혁신하시어 다시 본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종교를 진실하게 믿고 음란하고 걸치레를 일삼는 재앙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하였다.

임금께서 이 말을 따라 종교를 크게 혁신하고 신앙을 바로 잡아 다시 성실하고 순박한 마음으

로 돌아오게 하시니, 이때가 종교의 중흥시대가 되었다(渤海때에는 三一神話를 많이 발생하였다).

8년 여름에 하(夏) 나라 사절이 입조(入朝)하였다.

10년에 금강율령(金剛律令)을 선포하였다.

36년에 신우(神祐)를 하(夏) 나라에 보내어 두 나라의 수호조약(修好條約)을 체결하였다.

38년에 만국박람회(萬國博覽會)를 평양에서 크게 개최하니 여러 나라(列國)의 진귀한 물품이 몰려들어 산해(山海)같이 진열되었다.

48년에 조서를 내려, 백성된 자는 다 병역(兵役)에 종사하게 하고, 백성이 다 군사되는 법을 세우시고, 유학생 25명을 하(夏) 나라에 보내어 하서(夏書)를 공부하라 하였다.

56년에 기계공창(機械工廠)을 송화강(松花江) 기슭에 설치하고 각종 기계를 제조하였는데, 나라 안에 현상을 걸어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는 자는 각각 상을 받게 하였다. 상을 받게된 새로운 발명품은 다음과 같다.

황룡선(黃龍船) · 양수기(揚水機)

자행륜차(自行輪車) · 경기구(輕氣球)

자발뇌차(自發雷車) · 천문경(天文鏡)

조담경(照膽鏡) · 구석편(驅石鞭)

자명종(自鳴鍾) · 경중누기(輕重漏器)

연적(涓滴) · 발뇌동춘기(發雷動春機)

소금(素琴) · 천리상응기(千里相應器)

목류마(木流馬) · 진천뢰(震天雷)

어풍승천기(御風昇天機) · 흡기잠수선(吸氣潛水船)

측천기(測天機) · 양해기(量海機)

양청계(量晴機) · 측우기(測雨機)

측한계(測寒計) · 측서계(測暑計)

양우계(量雨計) · 측풍계(測風計)

이런 것들이 발명되어 이 시대에 크게 번창하였다(居漆夫小史에도 기록되어 있다)”

제12세 아한(阿漢)

“2년 여름에 발이 하나인 짐승(一足獸)이 송화강(松花江)가에 와서 놀며 슬피울었는데, 임금께서 유위자(有爲子)에게 묻기를 ‘이것은 알지 못하는 짐승인데 발 하나로 뛰다니며 슬피우는구나.’하시니, 유위자가 대답하기를 ‘나라가 장차 흥하려면 반드시 좋은 징조가 있고, 망하려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일이 생겨서 신물(神物)에 나타나며 사체(事體)가 움직이고, 화와 복이 장차 이르게 되면 착한 것도 알게 되며 착하지 못한 것도 알게 될 것이니, 이것은 천지조화의 징조입니다. 이 짐승은 하 나라 남쪽의 양수(陽獸)인데 신명(神明)한 물건입니다. 하 나라가 장차 어지러울 것을 미리 알고, 그 난을 피하여 이 곳에 와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짐승만 보아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천도(天道)의 운행을 살펴보면 만세(萬世)의 일도 능히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하니 임금께서 ‘하(夏) 나라를 대신하여 천자(天子)될 사람이 누구냐.’하시니 유위자가 대답하기를 ‘신(臣)이 하 나라의 인물을 살펴니 하 나라에는 그런 인물이 없고, 다음가는 사람으로는 천을(天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진 보좌관(賢佐)인 이윤(伊尹)을 얻어 덕행(德行)을 길러 그 이름이 세상에 높아졌으니 하 나라를 쳐서 천자가 된다면 그 자손이 600여년은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임금께서 ‘그 다음은 누구냐.’하시니, 유위자 아뢰기를 “서이(西夷)에 성인(聖人)이 나서 덕을 닦고 은혜를 베풀면 민심이 다시 돌아와 그 어진 분의 보필이 생기게 될 것이니, 그 자손이 왕위를 계승한다면 800년은 이어갈 것입니다.”

임금께서 ‘내 후손의 성쇠(盛衰) 시기는 과연 어느 때인지 그 대략을 묻노라.’하시니, 유위자 대답하기를 ‘국가성쇠(國家成衰)의 운수는 하늘이 정하게 되어있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이를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선하게 다스리시어 덕이 만방에 넘치니, 나라의 문명(文明)정도가 중화(中華)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러나 중화가 은조(殷朝)에 이르러서는 예악법도(禮

藥法度)가 찬연히 구비될 것이며, 성현(聖賢)이 배출되어 경전(經傳)^{*1)}을 저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여러 학자들이 각각 그 이상(理想)을 말하리니, 문화의 향상이 전무후무하여 천하를 휩쓸 것이므로, 만국이 그 문화를 앙모하여, 다투어 그 나라에 와서 배우고 익혀 한학(漢學)전성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전하의 성자신손(聖子神孫)이 흑 북방에서 터를 보전하며, 흑 동방으로 도읍을 옮기며 흑 남방에서 전국하는 자가 있겠으니, 큰 자는 땅이 수천리 될 것이며 작은 자는 수 백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상대를 침략하는 전쟁만 일삼고, 문화는 점점 퇴보하여 조국문자(祖國文字)^{*2)}는 돌보지 않고, 모화사상(慕華思想)^{*3)}이 날로 높아져 수천년 후에는 모화(慕華)하여 유학(儒學)에 미친 사람이 나라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자(文字)는 다 없애고 한문자(漢文字)만 전용(專用)할 것이며, 한문으로써 우리나라 국명(國名)과 왕호(王號)와 관명(官名)과 지명(地名)과 모든 물건의 이름을 번역할 것이며, 이름까지 중화 사람의 이름과 같아 우리를 중화 사람으로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손들이 그 선조(先祖)를 잃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장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한심하고 심히 원통한 일입니다. 앞드려 비움기는, 오직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염려하시어 뒷 일을 미리준비하시옵소서.’ 하였다.

임금께서 ‘선생은 참으로 천고의 신인(神人)이로다. 능히 반만년 후의 일을 추측하도다.”하시고 천하에 조서를 내려, 비석을 나라의 사방 경계에 세우고, 그 비면(碑面)에 우리나라 문자로 제왕(帝王)의 이름을 새겨, 영원히 국문(國文)을 보전하라 하였다.

*1) 성경현전(聖經賢傳).

*2) 옛 우리 글이 있었음. 한글의 전신. 제3세 단군 가락(嘉勒) 임금이 을보록(乙普勒) 박사에게 명하여 정음(正音) 38자를 만들었다. 이 문자는 동북아시아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어 왔다. 천부경·삼일신고 등도 원래는 이글로 쓰여졌으며 지금은 이를 다시 한문으로 번역되어 전해지고 있다. 단군세기(檀君世紀) 3세단군(三世檀君) 가락(嘉勒) 참조.

*3) 중국의 문물과 사상을 숭모하는 사상.

구월산(九月山) 마한촌(馬韓村)에 옛 글자로 된 비석이 하나 있어 범문(梵文)과 비슷한데, 후인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마을 이름은 ‘마한’이라 하는데

특별히 구별되는 이상한 돌이 있네.

대(臺)는 거칠고 철죽은 붉게 났는데

글자는 파문히고 이끼만 푸르구나.

천지가 처음 열릴 때 생겨서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 세우기를 다 하였네.

문헌으로 다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기(奇)씨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村明稱馬韓하니 別有殊常石이라

臺荒蹢躅紅이오 字沒莓苔碧이라

生於剖判初하여 立了興亡夕이라

文獻俱無徵하니 倘非奇氏跡이라

— 장백산(長白山) 안흥령(安興嶺)에도 옛 비석이 있다.

5년 봄에 조서를 내려, 어질고 착하며, 곧고 바르며, 위사람에게 끝가지 바른 말을 서슴치 않는 선비를 등용하였다.”

22년 용가래량(龍加來良)을 보내어 하결(夏桀)을 도와 은탕(殷湯)을 치다가 탕(湯)이 사죄하니, 용가래량이 회군(回軍)할 때에 염이(厭夷 = 九夷의 한 족속)때문에 관중향서기주(關中鄉西岐周 = 岐山)에 살았다.

29년에 처음으로 청야대부(菁莪大夫) 한불배(韓不倍)와 옥저대부(沃沮大夫) 고사심(高士深)과 맥대부(貊大夫) 신돌개(申突盖)에게 명하여 제후(諸侯)로 삼아 토지를 주니, 이것이 마한(馬韓 = 莫)과 진한(辰韓 = 眞)과 변한(弁韓 = 番)이 되었다.

30년에 유위자(有爲子)를 국태사(國太師)로

삼고, 태학관(太學館)을 세워 어진 선비를 양성하였다.

36년에 사람이 중화로 부터 들어와, 하(夏)나라 임금인 무도(無道)하여 스스로 망할 것을 전하니, 임금께서 ‘하 나라가 망할 것을 나도 알았노라’하셨는데, 몇 해 못가서 과연 상탕(商湯)에게 망하였다.”

“52년에 상(商)나라 사절이 처음으로 입조(入朝)하였다.”

제13세 흘달(屹達)

“3년에 상(商)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수호통상(修好通商)을 맺었다.”

“16년에 조서를 내려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를 실시하였는데, 관리를 나누어 입법·사법·행정을 맡아 각각 그 직책을 지키게 하고 겸직하는 고달픈 직책도 없고, 월권하는 등 함부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게 하라 하셨다.

20년에 법정학교(法政學校)를 세워 법정(法政)으로써 백성을 가르쳤다.

26년에 임금께서 유위자(有爲子)에게 물기를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은 나를 위하여 설명하기를 원하노라.’하시니, 유위자가 대답하기를 ‘도(道)는 상대(對)가 없으므로 억지로 이름을 붙여 도(道)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道)를 도(道)라 하면 정상적인 도(道)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정상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천지가 큰 것에서부터 하나의 작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다 그 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천지의 도가 있고, 인생은 인륜(人倫)의 도가 있고, 만물은 만물의 도가 있고, 각종 업무에도 다 그 도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형(無形)하고 유실(有實)하게 도를 이룬 자는 신(神)이니, 보아도 볼 수 없으며, 귀를 기울여도 들리지 않고, 사물의 형태로 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바록 크나 그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짐승의 털이 비록 작으나 능히 대도(大道)를 담을

수 있으며, 밝은 것은 어두운데서 형태가 생겨나고, 형태가 있는 것은 형태가 없는데서 생겨납니다. 정신은 도(道)에서 생기고, 형체의 근본은 정(精)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이 형상(形狀)으로 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홉 구멍(九穴)이 있는 것은 태로 낳는(胎生) 것이며, 여덟 구멍(八穴)은 알로 낳는(卵生) 것이고, 일곱 구멍(七穴)은 부화하여 나오는(卵生) 것이며, 세포공(細胞孔)이 많은 것은 심어서 나는(植生)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기는 하나, 온자국(趾象)은 없고 그것이 갈때에는 없어져 가는 형질(잔질 = 殘質)이라도 남아 있으나, 정한 곳(定涯)이 없어 출입하는데 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 안에 충만한 것은 일진기(一眞氣)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광대한 공간과 영원무궁(無始無終)한 시간을 이르는 것이니, 진기(眞氣)가 공간에 충만하여 항상 보편운동(普遍運動)이 있어 영구히 윤회상(輪回狀)을 지어냅니다.

그러나 혹은 일정한 진화(進化)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데, 그 진화의 상태는 늘 그 밀도(密度) 변화로 말미암아 생기고, 그 밀도는 계량(計量)할 것도 있고 계량 못할 것도 있어, 이 두 가지는 엄연히 구별되어 각각 무한한 소소체(小素體)를 만들어 내는데, 이 소소체는 수 없는 응집중심(凝集中心)을 거쳐서 실체(實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감성(感性)과 경향(傾向)이 또한 하나의 원인이 되어, 이렇게 미소(微小)한 실체(實體)가 점점 모여서 큰 것을 이룹니다. 그리하여 그 응집의 경로를 거쳐 마침내 한쪽의 형태를 이루니, 다른 쪽이 그 반동력(反動力)으로 중간에 반드시 계량을 할 실질적인 긴장세력(緊張勢力)을 일으킵니다. 이 때에 우주의 모든 물체가 서로 충돌(衝動)함으로 파괴하여, 능히 고도의 회전력이 생겨 대기(大氣)를 운동하게 하고, 기계적 충돌원인에 의하여 고도의 열(熱)을 내기 때문에, 반드시 신진운동(新振運動)의 세력(勢力)이 생겨나 성운(星雲)의 운동이 일

어납니다. 성운은 곧 태양과 만물의 본체이므로, 스스로 원심(遠心)과 근심(近心)의 서로 끄는 작용으로써, 혹은 집중하며 혹은 분산하여 나선형(螺旋形)·타원형(橢圓形)·환형(環形)을 이루고, 다시 집중작용으로써 끝내는 구형(球形) 혹은 성군(星群)을 이루니, 그 집단의 성원(成員)은 몇 개 혹은 몇 백 몇 천입니다. 이것이 천체계의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의 물체는 집중작용에 의하여 분형상태(分形狀態)로 되어, 널리 두루 구형(球形)으로 된 기체(氣體)중에 포함된 분자(分子)가 운동력 분산으로써 내부와 외부 사이에 점점 차고 더운 온도의 차이가 생기며, 때때로 환형(環形)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한 물체를 이룹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분화작용(分化作用)을 하여 점점 같은 온도와 같은 종류를 합하여 커져서 꼴을 이루니, 이것이 항성(恒星)과 태양과 혹성(惑星)과 중성(衆星)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지구도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이니 본래는 태양에서 분리된 천체이니, 한편으로는 공기와 수소의 높은 열로 각종 기체를 만들고 또 다른 요소를 합하여 환상기체(環狀氣體)를 조직하여 자체의 주위를 싸서 반사작용에 의하여 점점 냉각(冷却)됩니다. 이것이 장구한 시일을 경과하여 제일 뜨거운 부분을 분리하여 끝내는 냉각되어 고체(固體)를 이루기 때문에, 환기(環氣)중에 포함된 무거운 요소는 가라앉아 고체와 액체를 이루고, 가벼운 요소는 위로 올라가 기체가 되어 늘 온도의 변화로써 구름과 비도 되고, 혹은서리와 눈도 되고, 운동으로 전광(電光)이 일어나고 뇌성(雷聲)이 일어납니다.

태양의 빛은 기(氣)의 맑고 탁함과 두껍고 얇음 때문에 변색(變色)하는데, 붉은 색(赤)·노랑색(黃)·등색(橙)·녹색(綠)·파랑색(靑)·남색(藍)·자색(紫)이 흡수되면 검은색(黑)이 되고, 발산되면 흰색(白)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태양광선이 늘 알맞은 정도와 때를 맞추어 비치므로 형형색색의 동식물(動植物)이

빛어지기 때문에 동식물의 무수한 종자(種子)의 원인을 연구하니, 다 같은 원자(原子)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치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물이 만들어지니, 스스로 위와 아래, 영원과 순간, 고통과 즐거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 같은 상대성(相對性)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靈長)인 것은 우주생명(宇宙生命)의 돌발점(突發點)이며,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하나의 사상(思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지 자연 생물의 원리이며 현상(現狀)입니다.’하였다.

임금께서 이르시기를 ‘옳은 말이라, 선생은 참 천고의 성인(聖人)이라.’하시고 궤장(几杖)을 내리셨다. (萬里元論에 기록되어 있다.)”

제14세 고불(古弗)

“25년에 은(殷)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42년에 자모전(子母錢)을 부어 만들었다.”

“52년 국립대학(國立大學)을 설립하고, 사방에 있는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였다.”

“56년에 전국에 있는 백성의 수를 조사하니, 총 인구가 1억8천만이었다.”

제15세 벌음(伐音)

“10년에 임금께서 북쪽으로 행차하시어 약수(弱水 = 黑龍江)에 이르러, 우숙(禹蓐)에게 금광(金鑛)을 채굴하게 하였다.”

“29년에 임금께서 심양태수(瀋陽太守)를 불러 이르시기를 ‘경(卿)이 심양을 지키면서부터 오늘까지 혈뜯고 말이 끊이지 않으나 내가 사람을 시켜 심양을 살피니, 밭과 들이 크게 개발되었으며, 백성은 잘 살고 소와 말이 많이 번식되었으니, 이것은 경이 내 좌우(左右) 신하에게 아첨하지 않은 까닭이라.’하시고 벼슬을 높이고 상을 주셨다.”

제16세 위나(尉那)

“첫 해에 만아들 여을(余乙)을 태자로 삼고, 유위자(有爲子)의 아들 유덕자(有德子)를 태자태부(太子太傅)로 삼았다. 이해 여름에 임금께서는 국정을 쇄신하고 군기(軍紀)를 바로 잡으며, 외척(外戚)이 휘두르는 권한을 없애고 인재를 등용하여 민폐를 없애며, 사치를 금지하고 농사와 누에 기르기를 장려하니, 나라는 비록 오래 되었으나 그 기상은 매우 새로웠다.”

제17세 여을(余乙)

“18년에 고수노(高叟老)가 정법원론(政法原論) 38편을 바치니 18만언(言)인데, 임금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국민으로 하여금 학습하게 하였다. 20년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제18세 동엄(冬嚴)

“5년에 고수노(高叟老)에게 국사(國史) 18권을 편찬하게 하였다.”

“20년에 임금께서 서변(西邊)을 돌아 보실때에, 사람을 서장(西藏)에 보내시어 함문경(咸文經)을 구하여 왔다.”

제19세 종년(縱年)

“첫 해에 만아들 고홀(固忽)을 태자로 삼고, 아우 종선(縱鮮)을 청아왕(菁莪王)으로 삼으니, 청아왕의 증손(曾孫)은 서여(西餘)인데, 이 분이 조선기자(朝鮮奇子)의 태조(太祖)가 되었다.

3년에 국문서당(國文書堂)을 세워 백성들에게 학습하게 하였다.

10년에 패엽전(貝葉錢)*1)을 만들었다.

16년에 공창(工廠)을 세우고, 닥나무껍질로 종이를 만들고 칩껍질로 베를 짜 옷감을 만들었다.

24년에 남상인(南裳人 = 趙裳)이 조정에 들어왔다.

*1) 조개로 만든 옛날 돈

*2) 터키계 사람들이 세운 나라

*3) 지금 만주 목단강(牧丹江) 아래의 영안(寧安). 제 23대 아홀(阿忽)은 이곳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토의함.

*4) 고대사회에 있었던 전제도(田制度).

26년에 조선공창(造船工廠)을 송화강(松花江) 남쪽 기슭(南岸)에 세웠다.

45년에 황운갑(黃雲甲)이指南車(指南車)와 목행마(木行馬)를 발명하니, 임금께서 후하게 상을 내리셨다.

51년에 목아득(牧雅得)이 우주원리론(宇宙原理論)을 저술하였다.

54년에 지이숙(支離叔)이 태양력(太陽曆)과 팔괘상중론(八卦相重論)을 저술하였다.”

제20세 고홀(固忽)

“첫 해에 만아들 소태(蘇台)를 태자로 삼았다. 은 나라 사절이 들어오니 사신을 보내어 사려했다.

4년에 북흉노(北匈奴)가 변방에서 어른노릇을 하니, 군사를 보내어 물리쳤다.”

제21세 소태(蘇台)

“44년에 은 나라 사절이 왔다.”

제22세 아홀(阿忽)

“12년에 돌궐(突厥)*2) 사절이 왔는데 후하게 대접하였다.

“25년에 송화강(松花江) 연안에 각 공장을 수리하였다.”

“32년에 군관학교(軍官學校)를 설립하고 병학(兵學)을 가르쳤다. 55년에 임금께서 영고탑(寧古塔)*3)을 친히 시찰하시고 정전법(井田法)*4)을 가르치셨다.”

“70년에 크게 가물어 창고에 쌓아 두었던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제하였다.”

제24세 연나(延那)

“8년에 월남만(越南蠻)이 와서 조정을 방문하

였다.”

“10년에 조대원(趙大元)이 정치원론(政治原論) 10권을 바쳤다.”

제25세 솔나(率那)

“39년에 임금께서 영고탑(寧古塔)으로 도읍을 옮겼다.

전단조(前檀朝) 제1세 단제(檀帝)부터 25세 솔나(率那)의 39년간 25대에 역년(曆年)이 1214년^{*)} 원문에는 전단군 조선의 역년을 1214년이라 했으나 역대 임금의 재위기간을 더해보면 1222년 간이다.

제 2 편 후단군조선(後檀君朝鮮)

제 1 세 솔나(率那)

“후단조(後檀朝) 제1세 단제(第一世檀帝) 솔라(率那)는 전단조 제23세 단제 아홀(阿忽)의 둘째 아들이며, 24년 연나(延那)의 아우이다. 단군 기원 1214년 7월 15일 영고탑(寧古塔)에 도읍을 옮겼다.

“15년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왔다.”

제 2 세 추로(鄒魯)

“39년에 의학원(醫學院)을 세워 국민에게 의학을 가르쳤다.”

“58년에 위문국(魏文國)이 정치론(政治論) 28권을 지어 바쳤다.”

제 4 세 해모(奚牟)

“8년에 탁암(卓岩)이 돌로 북(鼓)을 만들어 바쳤다.”

제 5 세 마휴(摩休)

“9년 가을에 남해(南海)의 조수가 석자(三尺)나 물러났다.”

제 6 세 나휴(奈休)

“2년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람 40명이 임경(入京)하여 관광하였다.”

“5년에 북흉노(北匈奴)가 사신을 보내어 우호하기를 원하여 허락하였다.”

“10년에 동돌궐(東突厥)이 사신을 보내어 수호조약을 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

20년에 박달마(朴達摩)가 아뢰기를 ‘백성의 문화 향상과 발전은 오직 정치와 학문이 일치되어야 가능합니다. 대개 정치는 개념이며 학문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정치의 위신은 백성으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려면 준수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려면 친밀하게 해야 하나, 정치는 승진(昇進)할 경로가 있고 학문은 향상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서로 형상화(形象化)하면, 이것이 정치와 학문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 백성의 윤리가 그 실행하는 정치의 사정에 따라 실생활에 통하는 것이 마치 육체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개념적 정치 이념이 구체적인 생활에 용해되면, 생활이 곧 이념이 되고 이념은 곧 생활이 됩니다. 오권대 이념이 개인의 실사정(實事情)에 용해되어 문화로써 생활을 삼고 문화로써 행동을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구체적인 작품화(作品化)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문은 정치의 선구자가 되고 정치는 학문을 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치와 학문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정치의 권위에 황홀하여 정치에 흡수되어 학문의 사명을 잊고, 주체(主體)를 잃은 학문과 합하고자 하였다. 이에 은(殷) 나라 학문이 이 기회를 타고 들어와 오히려 백성의 생활에 해가 되었습니다.

앞드려 비오니, 전하께서는 쓸데없는 학문을

^{*)} 원문에는 전단군조선의 역년을 1214년이라 했으나 역대 임금의 재위 기간을 더해 보면 1222년 간이다.

멀리 하시고, 필요한 학문은 바로 세우시어 백성의 실생활을 도우소서.’하니, 임금께서 ‘옳다’하시고 쓸데없는 학문을 멀리 배척하셨다.

28년에 주태보(周太甫)가 신주역서(新周易書) 13권을 임금께 바쳤다. 그 편집 내용은 태양 태음설(太陽太陰說)과 현공설(縣空說)과 복서(卜書)와 천문설(天文說)과 지수설(地水說)이다. 임금께서 훑어보시고 불쾌하여 이르기기를 ‘후세에 이 글로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으리라.’하셨다.

30년에 부분석(扶芬錫)이 정법원리론(政法原理論)을 임금께 바쳤다.”

제 7 세 등을(登乙)

“2년에 조자문(曹子文)이 아뢰기를 ‘정치와 법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행정관(行政官)과 사법관(司法官)은 각각 그 직책이 달라야 서로 권한을 빼앗지 않고, 그렇게 해야 정치와 법률이 명백하여 공정하게 시행될 것입니다.’하니, 임금께서 옳다 하시며, 입법(立法)과 사법(司法)과 행정(行政)기관을 각각 세워 다스리니, 정치와 법률이 공평하였다.”

제 8 세 추밀(鄒密)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입조하였다.

3년에 선비족(鮮卑族)의 하나인 문고추장(們古酋長)이 입조하였다.

4년에 북적(北狄)이 쳐들어오자 곧 물리쳤다.

6년에 주(周) 나라 망명객 호선(胡先)이 입국하였다.

9년에 진(秦) 나라 사람 원희(原檣)가 입경하였다.

12년에 초대부(楚大夫) 이문기(李文起)가 입경하였다.

13년 3월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15년에 농작물이 크게 부족하여 굶주렸다.”

제 9 세 감물(甘勿)

“2년에 주(周) 나라 상인 한직(韓直)이 호랑이 가죽과 코끼리 가죽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임금께 바쳤다.

3년에 송(宋) 나라 사람 우문술(宇文述)이 와서 주(周) 나라 제후(諸侯)의 전란사(戰亂事)를 말하였다.

4년에 황선문(黃先文)이 유황발사총(硫黃發射銃)을 만들었다.

7년에 시조 단군묘(檀君廟)를 영고탑(寧古塔) 서쪽에 건립하였다.

8년에 순길(舜吉)이 약을 만들었는데, 장생불노단(長生不老丹)이라 불렀다.

9년에 임금께서 고삼도(高三道)에게 문기를 ‘나라 재상(宰相)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라야 하는가.’하시니, 대답하기를 ‘사는(居)데 화목한가를 보며, 통달해도 그 처신을 보며, 부(富)해도 남에게 주는 것을 보며, 가난해도 그 취하는 것을 보고, 궁(窮)해도 그 하지 않는 바를 보고, 평안해도 음행하지 않음을 보며, 난(難)이 있어도 그 구(救)하는 바를 보며, 급(急)해도 그 들어가지 않음을 보며, 귀(貴)해도 그 자랑하는 바를 볼 것이니, 이 아홉 가지(九條)로써 택하시면 됩니다.’했다.”

“18년에 조(趙) 나라 사람 염선관(廉先官)이 보옥(寶玉)을 가지고 조정에 왔다.

19년에 위(魏) 나라 사람 범문(范文)이 망명하여 입국하였다.

20년에 환관(宦官) 조석(趙錫)이 형벌을 받아 죽었다.”

제10세 오루문(奧婁門)

“4년에 오곡이 풍년이 들어 백성이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해가 떠서 밝은 빛을 비추고, 나라에는 임금이 계셔서 덕이 빛나니, 우리 쌀알 같은 백성들은 그 은혜의 창파에 목욕하노라.’하였다.

8년에 채(蔡) 사람 을보천(乙普天)이 복술서(卜術書)를 가지고 입경하였다.

9년에 노(魯) 나라 문인(文人) 공명지(孔明之)

가 중화서적(中華書籍)을 가지고 입조하였다.”

“21년에 백건적(白巾賊)의 난이 있어, 임금께서 건적(遣迪)으로 피난가셨다가 이듬해 8월에 다시 환궁하셨다.”

제11세 사벌(沙伐)

“제(齊) 나라 사람 누경(屢景)이 하은고서(夏殷古書)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3년에 한(韓) 사람 주태후(周太侯)가 신농(神農)의 약방(藥方)을 가지고 입조하였다.

4년에 위대부(魏大夫) 백측(伯則)이 입조하였다.

6년에 황충(黃虫)과 홍수가 있었다.

8년 4월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11년에 오(吳) 나라 태사(太史) 서춘문(徐春文)이 입국하였다.

14년에 큰 호랑이가 궁궐 담장을 넘어왔다.”

“28년에 위(衛) 나라 사람 적인문(狄人間)이 신천문학(新天文學)을 가지고 입경하였다.

36년에 송(宋) 나라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입경하였다.

40년에 주(周)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45년에 홍수가 있어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변이 생겼다.

48년에 진(晉) 사람 명문병(明文柄)이 와서, 주공(周公)의 전장법도(典章法度)가 빛나게 구비되었다고 하니, 임금께서 좋다고 하셨다.

50년에 초(楚) 나라 문인(文人) 문술(文術)이 입경하였다.

60년에 견웅(犬戎)^{*1)}이 변경을 침범하여, 군사를 보내어 물리쳤다.

61년에 임금께서 기자조(奇子朝)에 행차하시어 한달이 지나서 환궁하셨다.”

제12세 매륵(買勒)

“3년 봄에 연(燕)왕이 사절을 보내어 국정을

관찰하고 돌아갔다.

4년에 서세모(徐世謀)가 아뢰기를 ‘지금 제후(諸侯) 중에는 전하의 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많고 또 이웃 주(周) 나라가 미약하여, 그 봉한 자제(子弟)가 서로 원수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신이 지난 봄에 국명(國命)을 띠고 주 나라에 들어가 그 대세를 보았는데, 서로 전쟁할 기미가 있으므로, 제자 주태재(周太宰)에게 중앙정부를 충실히 하고 강하게 하여야 할 것을 말하였더니, 주태재가 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귀국하여 우리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니 주 나라와 나라 사정이 매우 흡사합니다. 앞드려 바라오니, 전하께서는 밝히 살피시옵소서.’하였다.

임금께서 그 말을 받아들여, 다시 주 나라에 사절을 보내어 협약을 맺었다.

6년에 초(楚) 사람 오자도(吳子度)가 목면(木棉)종자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10년에 화(華) 사람 설삼덕(薛三德)이 말하기를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전하였다.

18년에 채저명(蔡著明)이 정치형법서(政治刑法書)를 전하였다.

20년에 당장경(唐莊京) 학사(學士) 두 사람이 입경하였다.

25년 오경박사(五經博士) 우문충(宇文忠)이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며 유성설(遊星說)을 저술하여 바쳤다.

26년에 몽고대부(蒙古大夫) 환선(桓善)을 명하여 제후로 삼았다.

28년에 지진과 해일이 있었다.

30년에 우세숙(虞世叔)이 성리학(性理學)과 심리학(心理學)을 지어 임금께 바쳤다.”

“40년에 북적(北狄)^{*2)}이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보내 토벌하여 평정하였다.

55년에 손숙문(孫叔文)이 의학(醫學)과 화학(化學)을 저술하여 바쳤다.”

*1) 중국 은 나라 주 나라시대 섬서성 부근에 살던 족속

*2) 중국 사람들이 중국 북쪽에 있는 종족을 이렇게 불렀다.

제13세 마물(麻勿)

“첫해에 진(秦)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4년에 토목(土木)을 크게 일으켜 궁궐을 중건(重建)하였다.

5년에 방공전(方孔錢)을 부어(鑄) 만들었다.

8년에 모문후(毛文侯) 유례(有禮)가 반란을 일으켜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였다.

10년에 주(周) 나라 공주를 왕비로 삼았다.

13년에 진(秦) 사람 석무득(昔無得)이 천리마(千里馬)를 가지고 와서 임금께 바쳤다.

15년에 열성제(列聖帝)의 송덕비를 동문(東門)밖에 세웠다.”

“25년에 궁궐 동산(苑)에 큰 뱀이 들어와 죽었다.

궁액기(宮掖記) :

궁궐 뜰안에 큰 거미가 있었는데 큰 뱀이 와서 거미를 잡아먹으려 하자, 거미줄 아래 엎드려 위를 향해 입을 열고 독기를 토하였다. 몇날 못되어 뱀이 죽고 거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 뱀의 배를 가르고 검사해 보니, 배 안에 큰 석웅황(石雄黃) 한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거미가 복수하고자, 뱀을 죽이는 유일한 독약인 석웅황을 구하여 묘한 계책으로 먹여 죽인 것을 알게 되었다.’

50년에 장백산(長白山)에 양선자(養仙子)라는 숨어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 160살이 이르렀어도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제14세 다물(多勿)

“3년에 기자조선 사절이 입조하였다.

8년에 위(魏) 나라 박사 진덕기(陳德基)가 임경하였다.

10년에 정(鄭) 나라 사람 신도회(申屠懷)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와서 살았다.”

“20년에 조(趙) 나라 사람 염관(廉冠)이 가족을 거느리고 입국하였다.”

“30년에 문해광(文海廣)의 필법(筆法)이 매우

뛰어나서 대부열(大夫烈)에 올랐다.

35년에 진(晉) 나라 사람 김일선(金日善)이 천문지리학(天文地理學)을 가지고 조정에 참여하였다.

40년에 제(齊) 나라 상인(商人) 노일명(老一明)이 고급 비단을 신고와 임금께 바쳤다.

42년 초(楚) 나라에서 망명한 번석문(樊釋文)이 황금(黃金) 40근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제15세 두홀(豆忽)

“2년에 초(楚)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4년에 슬후(膝侯)의 아들 섭이(攝珥)가 입조하였다.

10년에 송(宋) 사람 정상충(鄭尙忠)이 자기 나라 사람 50명을 거느리고 입국하였다.

11년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

13년에 위(魏) 나라와 제(齊) 나라 사절이 왔다.

15년에 진(晉) 나라와 조(趙) 나라 사절이 왔다.

21년 8월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30년에 진충노(秦忠老)가 아뢰기를 “천하를 다스리는 도(道)는 풍속을 바르게 하며, 어진 인재를 얻는 것에 있는 것이니, 가장 시급한 일은 각종 학교를 설립하여 영재들을 공부하게 하여, 각 부문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그중에서 뽑아 쓰면, 나라를 다스려 천하가 태평하게 될 날을 기다리시옵소서.”하니, 임금께서 그렇다 하시고 각종 학교를 많이 세워 백성을 교육하였다. 외국 사람도 와서 유학하는 자가 많았다.”

제16세 달음(達音)

“첫 해에 진(晉) 나라 사절이 왔다.

3년에 윤복지(尹卜地)가 도덕경(道德經)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5년에 초(楚)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6년에 견웅(犬戎)이 와서 복종하였다.

10년에 진개(秦開)가 치국요람(治國要覽)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제17세 음차(音次)

“2년에 연(燕)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4년에 공상의(孔尙義)가 종교론(宗教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5년에 한(韓) 나라 사절이 왔다.”

제18세 을우지(乙于支)

“첫 해에 정(鄭) 나라 사절이 왔다.

3년에 철인(哲人)이일선(李一善)이 천리경(天理經)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5년에 백호돈(白好敦)이 지리학(地理學)과 광물학(鑛物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치고, 아뢰기를 ‘우리나라 안에 가는 곳마다 지하에 황금이 있습니다.’하였다.”

제19세 물리(物理)

“첫 해에 제 대부(齊大夫) 전평(田宏)이 망명하여 입국하였다.

2년에 조(趙) 나라 사람 형필(荊泌)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살았다.

4년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입조하였다.

8년에 장자학(張子學)이 논리학(論理學) = 原本說明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5년에 북적(北狄)이 사자를 보내어 입조하였다.

18년에 오곡이 풍년이 들어 정치가 밝아지고 인심이 화목하여짐으로 내외학문이 몰려들어와, 새로운 사상이 많이 일어나 다사(多事)한 시대가 되었다.”

제20세 구물(丘勿)

“2년이 정(鄭)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3년 2월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5년에 최화덕(崔和德)이 동물학(動物學)과 식물학(植物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7년에 위(魏) 나라 박사(博士) 소문경(蘇文卿)이 입조하였다.

10년에 서백원(徐伯元)이 태양·태음·소양·소음(太陽 太陰 小陽 小陰)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6년에 국학박사(國學博士) 황운원(黃雲元)이 백과서(百科書)를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8년에 유종득(柳宗得)이 이재학(理財學)을 만들어 바쳤다.

21년에 적우순(狄于順)이 심리학(心理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5년에 홍수가 일어나 발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었다.

38년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입조하였다.”

제21세 여루(余婁)

“첫 해에 제(齊)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4년에 법령을 개정하여 천하에 공포하였는데, 이것을 대동율령(大同律令)이라 한다.

6년에 큰 흉년이 들어 창고의 쌀을 다 풀어 빈민을 구제하였다.”

“12년에 곽태원(郭太原)이 양생론(養生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15년에 마자은(馬子隱)이 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0년에 정(鄭) 나라 사람 누경(屢景)이 누시계(漏時計)를 가지고 입조하였다.

21년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입조하였다.”

25년에 크게 가물어 초목이 말랐다.

28년에 장소부(莊召夫)가 의학대방(醫學大方)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30년에 홍문선(洪文善)이 태학조문(太學條文)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35년에 송(宋) 나라 학사(學士) 오문은(吳文僊)이 임경하였다.

40년에 조문휴(趙文休)가 자본론(資本論)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42년에 노(魯) 나라 학자 소문술(蘇文述)이 예기(禮記)를 가지고 입조하였다.

45년에 노(魯) 나라 사람 안사득(顔思得)이 주역(周易)을 가지고 입경하였다.”

“50년에 북견웅(北犬戎)이 쳐들어와 군사를 보내어 물리쳤다.

52년에 임금께서 중화(中華)에 행차하시어 열국(列國)의 형세(形勢)를 관찰하시고 환궁하였다.”

제22세 보을(普乙)

“첫 해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입조하였다.

“6년에 혼서경(混西經)이 쳐들어 왔으나 물리쳤다.

10년에 오성계(吳成桂)가 반역하다가 죽었다.”

“15년에 황충(黃虫)이 밭곡식을 다 먹어 버렸다.

20년에 정(鄭) 나라 사람 정발(鄭拔)이 음악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28년 4월 적토우(赤土雨)^{*1)}가 쏟아졌다.

30년에 국정이 문란하여 정권이 외척(外戚) 환운(桓允)에게 돌아갔다.

34년에 궁전이 저절로 무너져 깔려죽는 자가 많았다.

38년에 도성에 큰 불이 일어나 집 5천여 호가 타버렸다.

46년 5월에 반역하는 신하 한개(韓介)가 임금을 죽이고 자립했다. 태자 고열가(古列加 = 시호는 寧稟離王)가 군사를 이끌고 한개를 쳐 죽이고, 8월 15일에 왕위에 오르니 제23세 단제시다.”

제23세 고열가(古列加)

“2년에 임금께서 국정을 친히 집행하시니, 외척의 권위를 물리치고 어진 이를 기용하며, 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 백성을 다스리셨다.

5년에 견웅(犬戎)이 불복(不服)하므로 군사를 보내어 물리쳐 평정하였다.

10년에 기자조선(奇子朝鮮) 사절이 입조하였다.

16년에 위(衛) 나라 사절이 입조하였다.

20년에 풍년이 들고 동해에서 많은 고기가 잡혔다.

22년에 소정국(蘇定國)이 건축학(建築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25년에 구노선(歐老先)이 종수학(種樹學)을 저술하여 임금께 바쳤다.

31년에 각처에 신원함(申冤函)을 설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자들이 투서하도록 하였다.

40년에 어사(御使)를 시켜 백성들의 사회를 몰래다니며, 부정한 사건을 비밀리에 탐지하여 바로 잡았다.

45년에 연(燕) 나라 대부(大夫) 형운(荊雲)이 망명하여 입국하였다.

48년에 선단제묘(先壇帝廟)를 성의 남쪽에 세웠다.

58년에 임금께서 승하하시고,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므로, 종친(宗親) 해모수(解募漱)^{*2)}가 옛 도읍지 부여(扶餘)에서 반기를 들어 나라를 세우니, 북부여(北扶餘)라 하였다.

후단제(後壇帝)는 이것으로 대가 끊기니, 1세 슬나(率那)로부터 고열가(古列加)에 이르기까지 23대 875년간이다.

전단조(前檀朝) 1214 ^{*3)} 후단조 875년 모두 2809년간이다.”

^{*1)} 붉은 흙이 섞인 비.

^{*2)} 북부여의 첫 임금.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와의 사이에서 고구려시조 주몽을 낳았다.

^{*3)} 위 본문의 전단조 1214년은 1222년이다. 이를 후단조 875년과 합치면 2809년이 아니라 2096년이다. 이는 환단고기의 단군조선 역년과 일치한다.

규원사화(揆園史話)⁴⁾⁵⁾

3. 단군기(檀君記)

“신시씨(神市氏)는 동방 인류의 조상으로 아주 오랜 옛날 나라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단군 이전의 성인이다.

전에 청평산인(淸平山人) 이 명(李茗)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고려 때의 사람으로 그에게 진역유기(震域遺記)^{*1)} 3권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대기(朝代記)를 인용하여 우리 나라의 옛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일연(一然)^{*2)}이 지은 삼국유사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중에는 선가(仙家)의 말이 많이 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나라는 신(神)으로 가르침(敎)을 베풀고 옛 것을 좇으니 그것이 풍속이 되어 인심이 가라앉은지 오래되었다. 그렇다고 역사를 말할 때에 반고(班固)^{*3)}나 사마천(司馬遷)^{*4)}이 쓴 글만 비교하면서 언제까지 꼼짝도 못하고 그것에 놀려 있겠는가. 대개 한(漢)나라는 한 나라이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인데 당당...”

“단군이란 박달임금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단군(檀君)이라 한다. 대개 신시씨가 단목(檀木) 아래에 내려오고 환검 신인이 다시 단목 아래에서 임금의 자리를 이어 받았기 때문에 단(檀)으로써 나라 이름을 삼은 것이며 단군이란 단국의

임금이라는 뜻이다. 우리 날에 「단」이란 박달이라고도 하며 혹은 백달(白達-배달)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임금을 임검이라 하는데 당시에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달 임검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 역사를 저술하는 사라이 단군으로 번역하고 다시 후세에 이르러서 다만 단군이란 글자만 기록하고 단군이 백달 임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한자가 지니는 공(功)과 죄(罪)는 반반이라 할 수 있다.”

“단군이 이미 도읍을 임검성에 세우고 성곽을 쌓고 궁궐을 세웠으며 목숨·곡식·군사·형벌·질병·선과 악 그리고 누에치는 것을 주관하는 등의 관리를 두었다. 아들 부루(夫婁)^{*5)}를 호가(虎加)로 삼아 여러 가(加)를 총괄하게 하고, 신지씨를 마가(馬加)로 삼아 목숨을 주관하게 하며, 고시씨를 우가(牛加)로 삼아 곡식을 주관하게 하고, 치우씨는 웅(熊)가로 삼아 군사를 주관하게 하며, 둘째 아들 부소(夫蘇)를 응가(鷹加)로 삼아 형벌을 주관하게, 하며 세째 아들 부우(夫虞)를 노가(鷲加)로 삼아 질병을 주관하게 하며, 주인씨를 학가(鶴加)로 삼아 선·악을 주관하게 하며, 여수기(餘守己)를 구가(狗加)로 삼아 모든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 것인데 이들을 단군 팔가(八加)라 한다.”

“신시씨의 일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가 많은 의심을 하며 지금까지도 단군만을 높일 줄알고 그 이전에 신시씨가 개천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근본 유래를 알지 못하

^{*1)} 이명(李茗)이 쓴 역사서이다. 이명은 고려 공민왕때 사람이며 호는 청평(淸平)이다. 이명은 이암(李嶽)·범장(范樟)과함께 천보산(天寶山)의 태소암(太素庵)에 숨겨져 있던 진기한 고서(古書)를 보고 이명은 진역유기(震域遺記), 이암은 단군세기(檀君世紀)·태백진훈(太白眞訓), 범장은 북부여기(北夫餘記)를 각각 쓰게 되었다. 북애(北崖)는 진역유기(震域遺記)를 인용하여 이 규원사화(揆園史話)를 썼으며 이명은 조대기(朝代記)를 인용하여 진역유기(震域遺記)를 썼다고 한다. 그러므로 조대기는 태소암에 있던 발해의 비장서(秘藏書)임에 틀림없다.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 우리 역사의 자료를 많이 정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2)} 삼국유사를 지은이. 고려 때의 중이다.

^{*3)} 중국 후한 초기의 역사가

^{*4)}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 130권으로 된 사기(史記)는 유명하다.

^{*5)} 제 2세 단군.

고 단지 중국책에 의지하여 선교(仙敎)는 황로(黃老)*1)의 줄기에서 뻗어나왔다고 하나, 신령으로써 가르침을 베푸는 신교(神敎)가 신시시대 때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단군이 이미 하늘에 제사지내고 교를 세워 백성을 다스리고 도를 이뤄 행하게 한 지 몇 해 동안에 백성들이 모두 감화되어 악은 없어지고 천하는 잘 다스려지게 되었다. 이는 단군의 신령스러운 덕 때문이며 나라를 세운 근본이기도 하다. 뒤에 계속 해서 말하고자 한다.

우수하(牛首河)가에 산지 10년이 되어 도읍을 백두산의 남쪽과 패수의 북쪽 지점으로 옮기니 이곳이 평양이며 제2의 임검성이다. 지금의 속말땅은 기후가 춥고 토질이 나빠서 들이 넓기는 하나 농사짓기가 남쪽땅보다 좋지 않으며, 속말의 물은 북으로 흘러 혼동강(混同江)으로 들어가니 남쪽과의 교통이 몹시 불편하여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청평(淸平)이 “단군 때에 네번이나 도읍을 옮겨 나라를 새롭게 했는데 두번째 천도는 패수(溍水)의 북쪽, 곧 발해의 서경 압록부의 땅인 신주(神州)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했다. 고구려 국내에 있는 환도고성(桓都古城)터가 신주의 지경 안에 있으니 패수가 지금의 대동강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신당서(新唐書)도읍을 정하니 발해·신주·신화 등의 땅이 외적에 대한 근심이 없어졌으며 발해 때에는 오히려 그 역사적 자취를 전했다.

이에 다시 하늘에 제사지내고 새로 자리잡은 곳에 성을 쌓고 궁궐을 세웠다. 발과 도랑을 파고 발두둑을 만들어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고

고기잡이와 사냥을 하였다. 여러 씨족들에게 쓰고 남은 물건을 바치게 하여 나라의 살림에 보태니 백성이 모두 화합하고 즐거워했다.

이때에 흰 사슴은 성밖에서 놀고 청룡은 조천지(朝天池)에 나타났다. 단군은 궁궐을 떠나 돌아다니다가 남해에 이르러 갑비고차(甲比古次)*2)의 산에 올라가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지냈다. 또 해상에 돌아오니 붉은 용이 상서로움을 보이고 신녀(神女)가 술잔을 바칠 때에 붉은 옷을 입은 한 동자가 술잔 속에서 나왔다. 이에 단군이 사랑스럽게 여겨 성(姓)을 비(緋)라 하고 이름을 천생(天生)이라 지어주며 남해상장(南海上長)으로 삼았다.

그리고 돌아와 평양에 이르니 세 사람의 이인(異人)이 동방으로부터 패수를 건너와 있었다. 그 첫째를 선라(仙羅)라 하고 다음을 도라(道羅)라 했으며 그 다음을 동무(東武)라 했다. 두 용의 길한 징조가 있어 호가(虎加)를 용가(龍加)로 고치고 선라에게 거느리게 하고 도라는 학가(鶴加)로 삼고 동무는 구가(狗加)로 삼았다. 또 흰 사슴의 상서로운 징조가 있어 노가(鷲加)를 녹가(鹿加)로 고쳐 전례에 따라 부우(夫虞)에게 거느리게 하니 다스리는 제도가 전보다 더 완전하였다.”

“갑비고차(甲比古次)는 벌써 남이인(南夷人)의 땅이었기 때문에 부여(扶餘)를 보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평정하게 했다. 후에 부소(夫蘇)와 부우(夫虞)를 더 보내어 갑비고차에 성을 쌓게 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키게 했다. 이곳이 지금 강화도의 삼랑성(三郎城)*3)이다. 마리산(摩利山)에는 참성단(塹城壇)*4)이 있다. 이것이 곧 단군

*1) 황제(黃帝)와 노자(老子).

*2) 강화도의 옛 이름.

*3) 강화도에 있는 옛 성·마니산에서 동쪽으로 7km쯤 가면 정족산이 있는데 단군성조의 명으로 참성단과 함께 쌓은 성.

*4) 강화도 마니산(摩尼山)에 있는 제천단(祭天壇)·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운지 51년 되던 해(B. C 2283)에 하느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마니산(頭嶽)에 제천단을 쌓고 정족산에는 삼랑성을 쌓게 하였다. 이 때에 강남의 장정 8천명이 이 일에 동원되었으며 3년 후인 신유년(B. C 2280) 3월에 임금께서 친히 이곳에 오시어 하늘에 제사지냈다. 조선조 인조 17년(1639년)과 숙종 26년(1700년)에 수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는 이곳에서 채화되어 경기장까지 옮겨진다.

이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지내던 두악(頭嶽)이다.

대개 물위를 가려면 배에 의존하고 육지를 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고 진흙을 가자면 썰매(橇)를 타며 산에 올라가려면 나무 썰매(梟)에 의지하였는데 이것이 상고시대에 쓰던 교통수단의 기구들이었다. 육지로 가는 것보다는 물위로 가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움을 반드시 물을 끼고 있는 땅에 정하였다. 대개 사람이 살고 좋은 아름다운 곳이란 반드시 산이 막히고 물을 지녀야 한다고 하며 혹은 산에 의지하고 물결에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낀 곳이어야 한다고 해온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그래서 단군 시대에는 반드시 산으로 둘러 쌓이고 물이 가깝게 있는 곳에서 살았다. 이는 농사짓고 고기잡고 사냥하는데 편리한 곳이기 때문이다. 산해경(山海經)*¹⁾에서는 ‘북해(北海)에 나라 이름이 있는데 조선이라고 한다.’하였다.”

“부루가 이미 물과 땅을 정리하고 옛 땅으로 옮기니 모든 백성이 다 큰 덕을 가슴 깊이 새겼다. 축축한 곳에 집을 지으니 더러운 기운이 전염성 열병이 되어 죽는 사람이 대단히 많았다. 이에 부루가 의약으로 다스렸으나 그 사이에 맹수와 독충이 번식하므로 부소(夫蘇)가 고시의 옛법을 다시 익혀서 마른 쭉을 재료로 하여 쇠와 돌을 쳐서 불을 만들었다.

그 불로 산과 늪을 불태우니 짐승과 벌레가 멀리 도망가서 그 해(害)가 점점 없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불을 붙이는 물건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쇠·돌·쭉의 세 가지다. 그런데 반드시 부소라는 이름을 먼저 내세우는데 부소철(夫蘇鐵 = 부쇠쇠)·부소석(夫蘇石 = 부쇠돌)·부소우(夫蘇羽 = 부쇠깃) 등 모두 부소씨의 공을 가리는데서 유래된 것이다.

또 부루가 백성들에게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다니게 하고 험하고 좁은 고갯길에 반드시 돌을 쌓아서 무더기를 만들어 두었다가 맹수를 만나면

이 돌을 사용하여 막게 하였다. 후세에 소위 석자군(石子軍)이라는 것은 동국의 무(武)를 쓰던 한 종족으로 실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때에 끼쳐진 풍속은 시골 노인이나 서민들에게 남아있을 뿐인데 지금도 석성황(石城隍)이라 하여 제법 정성스럽게 받들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풍속이 이처럼 몹시 쇠약해지고 있는가.

처음 신씨씨의 말기에 치우씨의 형제들이 비록 탁록(淶鹿)에서 물러났지만 동방겨레로서 회대(淮岱)의 땅에 살았던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 사람과 어울려서 살았기 때문에 농사짓고 누에치고 길삼하고 가축을 기르는 일이 생업의 바탕이 되었다.

또 남쪽 섬 지방 백성들이 모두 조개와 생선으로 중국과 서로 교역하며 점점 바닷가에 나가서 살더니 이때에 해대(海岱)와 강회(江淮)의 땅이 드디어 그 주·리(州·里)가 되어 중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상서(尙書)에서 말하는 우이(隅夷)·채이(萊夷)·회이(淮夷)·도이(島夷)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군이 제가(諸加)와 국내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일월(日月)·음양(陰陽)·사시(四時)의 신(神)과 산악(山岳)·하천(河川)·이사(里社)를 주관하는 신에게 제사를 끝낸 후에 무리들을 깨우쳐 가르쳤다.

‘하느님은 오직 한신(一神)으로 가장 높은 으뜸 자리에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고 전세계를 주관하고 수없이 많은 사물을 만드시기 넓고 넓게 둘러싸므로 들어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아주 밝고 밝아 작은 티끌 하나 새지 않도록 하시었다.

하느님은 오직 한 신으로 가장 높은 으뜸 자리에 계시어 천궁(天宮)을 거느려 세상에 선함을 열고, 온 세상 만가지 덕(德)의 근원이 되므로 모든 신령들이 보호하고 받들어 모시니 크게 상서롭고 크게 밝고 빛난 곳을 신향(神鄉)이라 한다.

오로지 하늘의 천제가 천궁으로부터 3천 단부(團部)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우리의

*¹⁾ 중국의 옛 지리서. 작자는 알 수 없다.

황조(皇祖)가 되어 공을 세우고 조천(朝天)하여 신향(神鄉)으로 돌아가시었다. 여러 무리들은 오로지 하늘이 내려 주신 법을 지켜 착한 것을 두고 만가지 악한 것을 없애므로 성(性)이 통하고 공이 세워지면 이에 조천(朝天)할 것이다.

하늘의 법도(天範)는 오직 하나로, 그 문이 둘이 아니므로 네가 오로지 마음이 깨끗하고 정성스러워야 조천할 것이다. 하늘의 법도는 오직 하나이고 인심 또는 같으니 자신의 마음을 잡아 인심에 미치고 감화하면 또한 하늘의 법도와 한데 합하여 만방을 거느릴 것이다.

네가 사는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며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므로 오로지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나라 안에 이르면 이것이 바로 충효이다. 네가 이 도를 체득하기에 이르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길에 있을 것이다.

나는 새도 짝이 있고 떨어진 신발도 짝이 있으니 남녀가 화합하여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음탕하지 말라.

네가 열 손가락을 깨물어 보아라, 더 아프고 덜 아픈 것 없이 매 한가지니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여 원망하지 말고 서로 돕고 서로 죽이지 말아야 가정과 나라가 번성할 것이다.

소와 말도 그 먹이를 나누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양하여 빼앗지 말고 서로 흠치지 말아야 나라가 융성할 것이다.

네가 법을 보고 사납고 신령스럽지 못하다 하여 잡으려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하늘의 도대로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몸과 집이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다.

네가 만약 꽃밭에 불을 질러 그 꽃의 씨가 떨어지면 신인(神人)이 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넘어지는 것을 도와 일으키며 악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구제하며 낮은 자를 깔보지 말 것이다.

네가 비록 겉으로 두껍게 감싼다 해도 그 향기는 새어나가게 되어 있으므로 네가 타고난 떼뻗

한 성품을 가져서 부끄러움과 모진 생각과 화를 품지 말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가까이 하면 영원토록 복과 녹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무리들은 이말을 우러러 공경하여 지켜야 할 것이다.’

단군이 이미 백성들에게 이를 크게 가르치니 그의 신령스러운 덕이 크게 드러났다. 이렇게 하기를 수십년 지난 후에 천하는 다시 밝아지고 재앙을 잊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듯 단군의 가르침은 여덟가지(八個條目)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서 ‘삼신산이란 발해의 가운데에 있는데 일찌기 가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신선과 죽지 않는 약이 있으며 그 물건과 짐승들이 모두 희고 황금과 은으로 궁궐을 지었다.’고 하였다. 또 선가(仙家)의 책들에서는 ‘삼신산에 뉘이 되살아나는 불로초가 있는데 이름을 진단(震檀)이라 하였다.’고 한다. 백두산에는 예로부터 흰 사슴·흰 꿩·흰 매가 있으니 팔지지(括地誌)의 말대로 남쪽에 백산(白山)이 있는데 새나 짐승과 풀과 나무가 다 희다는 것은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이 말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겠다.

또 백두산(白頭山) 일대에 가끔 산삼(山參)이 나서 세상 사람들이 불로초(不老草)라 하였다. 산에 사는 백성들이 이를 캐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산에 제사를 지낸 후에야 비로소 캐다고 하는데 뉘이 돌아오고 늙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옛날 오사제(烏斯帝)가 북쪽을 순행하다가 신령한 풀을 얻었는데 이것이 더욱 실재의 증거가 되었다. 또 예로부터 백두산에 자단수(紫檀樹)가 많았다. 이를 따라 단목(檀木)이라고 한 것이다.

고기(古記)에 전하는 구변진단(九變震檀)이라는 말을 생각하며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이며 불로(不老)와 진단(震檀)이라 하는 것도 들은 사람의 착오인 것 같다. 그러니 연나라와 제나라 방사(方士)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바다 속의 삼신산

을 말하는 것은 꿈 속을 헤매면서 그 주인을 속이고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 나라에 ‘삼신산의 불로초를 얻어서 고당에 제시는 백발의 어버이에게 바치고 싶다. (願得三神山不老草科獻高堂白髮親)’는 글귀가 있어서 자못 노인을 모시는 사람이 젊음을 되찾기를 비는 글이 되기는 하지만 그 그원을 따져보면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 어찌서 백두산에 가서 단제령(檀帝靈)에 참배하고 오래 살 것을 받지 않는가.’

제28세 해모(奚牟)

“임금에게 병환이 생기니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고 하늘에 빌도록 하였는데 마침내 완쾌되었다. 졸본후(卒本候)가 영초(靈草)를 바쳤는데 사람들의 모든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었다.”

제30세 나휴(奈休)

“은(殷)나라 사람과 화해 하였다.”

제40세 달음(達音)

“청구후의 딸 아씨씨(阿施氏)를 맞이하여 왕후로 삼았는데 어질고 덕이 있어 백성들이 그를 사모하였다. 개마후가 영초(靈草)를 바쳤다. 옛날에 부여 사람이 알유 땅에 가서 산일이 있었다. 마침내 그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풍속을 익히고 항상 해야 할 일이 없어 수렵으로 생활을 하며 짐승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맥(貊)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차츰 옮겨서 엄려(奄慮)의 북서쪽 땅에서 살게됨에 따라 결국은 남씨(藍氏)의 백성이 되었다.”

제47세 고열가(古列加)

계묘년은 임검 고열가 원년이다. 임금이 처음 왕위에 오른 때에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지 못하여 봉가(鳳加)가 나라 안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간신히 충당하였으며 백성들이 보내는 곡식으로 충당해 나갔다. 임금이 여러 가(加)들과 의논하여 말하기를 “우리 황조께서 나라를 세워 만세 후손들의 모범이 되어 왔는데 이제 왕실이 점차 쇠약해지고 제후가 점점 강해져서 외방의 제후(諸侯) 중에 명을 받드는 자가 없다. 비록 분열된 백성이라도 열성으로 가르침을 배우며 충성을 하는데, 오로지 내가 덕이 부족하여 그 가르침과 위풍을 세우지 못하므로 덕이 있는 사람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며 성손(聖孫)을 고루 보아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당장경(唐莊京)으로 옮겨 아사달에 들어가 선성(先聖)의 신령을 평안하게 받들겠다.”고 하였다. 모든 가(加)들이 슬퍼하며 따랐는데 임금이 이에 제기(祭器)를 받들고 당장경에서 피해 살다가 마침내 아사달에 살 곳을 정하니 근처의 많은 백성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모두들 집을 당장경에 정하므로 나라는 없어지고 말았다. 이 때가 재위한 지 30년이니 단검신인이 나라를 처음 세운 후 47세를 이었으며 역년은 1205년^{*1)}이다.

단군고열가 임금이 아사달에서 살게 되니 오히려 백성들은 그를 추앙하여 존경하며 제후 또한 감히 괴롭히는 자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박(朴)씨 백(白)씨가 모두 그의 먼 후손이며 혁거세(赫居世) 또한 단군의 먼 후손이라고 한다. 지금 문헌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그것이 확실한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후로는 제후가 무력으로 다투었는데 홀로 남후만이 다른 제후들보다 뛰어나서 언제나 군후를 거느리고 국정을 다스리므로 열국이 되었다.

삼성기전 상편(三聖紀全 上篇)

“신시(神市)^{*2)} 말년에 치우천왕(治尤天王)이 있어 청구(靑邱)^{*3)} 땅을 넓히고 18세(世)를 이어

^{*1)} 원문에는 단군조선의 역년을 1,195년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옮기면서 1,205년간으로 고쳤다.

역대 임금의 재위 기간을 계산하면 1,205년이 되기 때문이다.

^{*2)} 神을 중심으로 한 사회라는 말로써, 우리나라 상고 시대의 신정사회(神政社會)에 이룩된 맨처음의 도시.

^{*3)} 조선(朝鮮) 또는 동방의 나라를 말함.

내려와 역년(歷年)이 1565년이나 되었다.

뒤에 신인(神人) 왕검(王儉)이 불함산(不咸山) 단목(檀木) 언덕에 내려왔는데 신(神)의 덕(德)이 지극하고 거룩하고 인자함을 겸하였다. 이에 능히 명을 받아 하늘을 계승하여 나라 법도를 세워 높고 넓게 펼쳤다. 구환(九桓)*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지성으로 복종하더니 천제(天帝)의 화신(化身)이라 하여 임금(帝)으로 삼았다. 이분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다. 신시(神市)의 옛 법을 다시 회복하여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세우고 나라를 열어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하였다.

단군이 단정히 손을 마주잡고 하염없이 세계에 좌정(坐定)함으로 현묘(玄妙)한 도(道)를 얻어 모든 사람을 만나 교화하였다. 팽우(彭虞)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게 하고 궁실(宮室)을 만들어 일으키게 하였으며, 고시(高矢)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짓는 일을 주관하게 하고, 신지(臣智)에게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게 하고, 기성(奇省)에게 의약(醫藥)을 베풀도록 하고, 나을(那乙)에게 판적(版籍) 회전(義典) 패서(卦筮)를 맡게 하고, 우작(尤作)에게 병마(兵馬)의 일을 맡게 하였다. 비서암(菲書岬) 하백(河伯)의 딸을 맞아 황후로 삼아 누에를 치게 하니 인정이 후한 다스림이 천하에 흠족히 퍼졌다.

병진(丙辰)년에 주(周)나라 고왕외(考王嵬) 때 나라 이름을 고쳐 대부여(大扶餘)라 하고 백악(白岳)으로 부터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 이어 여덟가지 조목(八條)을 설치하여 책 읽는 것과 활 쏘기를 익히는 것을 과정(過程)으로 하고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을 가르치고 농사 짓고 누에 치는 일을 힘쓰게 하였다. 산과 못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일이 없었고 죄는 처자(妻子)에게 미치지 않았으며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힘을 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남자는 정상적인 직업이 있었고 여자에게는 좋은 배필이 있

고 집집마다 모두 물자가 많이 쌓였다. 산에는 도둑이 없고 들에는 굶주리는 사람을 볼 수 없었으며 풍악과 노래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넘쳐 흘렀다.

단군왕검(檀君王儉)이 무진(戊辰)년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7세(世)를 이어왔으며 그 역년(歷年)이 2096년이 되었다. 임술(壬戌)년에 진(秦)이 시작될 때 신인(神人) 대해모수(大解慕漱)가 웅심산(熊心山)에서 일어났다.

정미(丁未)년 한(漢)나라 혜왕(惠王)때 연(燕)의 추장(酋長) 위만(衛滿)이 물레 서쪽 변방한 모퉁이에 살았는데, 변한(番韓)의 준(準)이 그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가 망하였다. 이로부터 삼한(三韓)이 거느리고 있던 백성들은 거의 한수(漢水)의 남쪽으로 옮기니 한 때 많은 군웅(群雄)들이 요해(遼海) 동쪽에서 싸웠다.

계유(癸酉)년에 이르러 한(漢)의 무제(武帝) 때 한(漢)나라 군사가 들어와 우거(右渠)를 멸망시켰다. 서암록(西鴨錄) 사람 고두막한(高豆莫汗)이 의(義)를 부르짖고 군사를 일으켜 단군(檀君)이라 하였다.

을미(乙未)년에 한(漢)나라 소왕(昭王) 때 부여(扶餘)의 고도(故都)를 진격하여 점령하고 나라 이름을 동명(東明)이라 하니 이것이 신라(新羅)의 옛 땅이다.

계해(癸亥)년 봄 정월에 고추모(高鄒牟)도 천제(天帝)의 아들이라 하고 북부여(北夫餘)를 계승하여 일어나 단군(檀君)의 옛 법을 회복하였는데 해모수(解慕漱)를 제사지내고 태조(太祖)가 되었다. 처음으로 연호(年號)를 정하여 다물(多勿)이라 하였다. 이 이가 고구려(高句麗)의 시조(始祖)이다.”

단군세기(檀君世紀)

“고기(古記)에 말하기를,

* 구이(九夷)라고도 한다. 황이(黃夷)·백이(白夷)·현이(玄夷)·적이(赤夷)·남이(藍夷)인데, 黃夷가 넷으로 나뉘어 양이(陽夷)·우이(于夷)·방이(方夷)·견이(畎夷)가 되었다. 이밖에 다른 기록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왕검(王儉)의 아버지는 단웅(檀雄)이오 어머니는 웅씨(熊氏)의 왕녀(王女)이다. 신묘(辛卯) 5월 2일 인시(寅時)에 단수(檀樹) 밑에서 태어났다. 신인(神人)의 덕이 있어 멀고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복종하였다. 나이 14살인 갑진(甲辰)년에 웅씨(熊氏) 왕이 그 신성(神聖)함을 듣고 뽑아 올려 비왕(裨王)을 삼고 대읍(大邑)의 국사(國事)를 대행하게 하였다. 무진(戊辰) 당요(唐堯)때에 단국(檀國)으로부터 와서 아사달(阿斯達)의 단목(檀木) 있는 곳에 이르니 나라 사람들이 천제(天帝)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환(九桓)을 하나로 만들고 신화(神化)가 멀리 미치니 이를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고 하였다. 비왕(裨王)의 자리에 있는지 24년, 임금(帝)의 자리에 있는지 93년이니 수(壽)는 130세이다.

첫 해(戊辰)에 대시신시(大始神市)때에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들이 산골짜기에 두루퍼져 살면서 풀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발을 벗고 살았다.

‘개천(開天) 1565년 상달(10월) 3일에 이르러 신인왕검(神人王儉)이라는 분이 있어 오가(五加)의 우두머리로서 무리 800명을 거느리고 단목(檀木) 있는 곳에 왔다. 무리들과 함께 삼신(三神)에게 제사드리니 지극한 신(神)의 덕(德)에 성인의 어짐을 겸하였다. 명을 받들어 능히 하늘을 계승하여 높고 넓고 매우 굳세었다. 이에 구환(九桓)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지성으로 복종하고 추대하여 천제(天帝)의 화신(化身)으로 제(帝)라 하니 이 분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다. 신시(神市)의 옛 법을 다시 회복하며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세우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하였다.”

“여기에서 팽우(彭虞)에게 명하여 토지를 개척하며 궁실(宮室)을 지어 일으키고, 신지(臣智)에게 문자(文字)를 만들게 하고, 기성(奇省)에게 의약(醫藥)을 베풀게 하고, 나을(那乙)에게 판적(版籍)·회전(義典)·괘저(卦筮)를 관리하게 하

고, 우(尤)에게 병마(兵馬)를 맡게 하였다. 비서(斐西岬)의 하백(河伯)의 딸을 맞아드려 황후(皇后)로 삼고 누예를 치게 하니 지극히 순박한 다스림이 천하에 흠족히 퍼졌다.

50년(丁巳)에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들이 쉴 수가 없으므로 임금(帝)은 풍백(風伯) 팽우(彭虞)에게 치수(治水)를 명하며 큰 산과 물을 안정시키니 백성들을 편히 살게 하였다. 우수주(牛首州)에 그 비석이 있다.

51년(戊午)에 임금(帝)이 운사(雲師) 배달신(倍達臣)에게 명하여 혈구(穴口 = 강화도)에 삼랑성(三郎城)을 쌓고 제천단(祭天壇)을 마리산(摩離山)에 쌓게 하니 지금의 참성단(塹城壇)이 이것이다.

67년(甲戌)에 임금(帝)은 태자 부루(扶婁)를 보내어 우사공(虞司空)과 도산(塗山)**에서 만나게 하였다. 태자로 하여금 오행치수(五行治水)의 법을 전하게 하였으며 나라의 경계를 정하게 하였는데 유주(幽州)·영주(營州)두 고을을 우리에게 속하게 하였다. 회대(淮岱)의 제후(諸侯)를 정하여 분조(分朝)를 두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우순(虞舜)에게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천하의 땅을 구획(區劃)하여 삼한(三韓)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삼한은 모두 5가(家) 64족(族)이 있다.

2세단군(二世檀君) 부루(扶婁)

“첫 해(辛丑)에 임금이 어질고 복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모아 크게 부하였고 백성과 함께 산업을 일으켜 한 사람도 굶주리고 추운 사람이 없었다. 봄과 가을이 되면 항상 나라 안을 돌며 살피고 예절을 갖추어 하늘에 제사하였다. 여러 고을 사람들의 착하고 악한 것을 가려 상과 벌을 신중히 하며 개천과 도랑을 파며 농사 짓고 누에 치는 일을 권하며 학교를 세워 학문을 일으키고 문화가 크게 진보되니 그 명성은 날로 빛났다.”

“소련·대련 두 사람의 효행(孝行)을 듣고 또

* 절강성(浙江省) 소흥현(紹興縣) 서북쪽에 있다.

3년(癸卯) 9월에 조서(詔書)를 내려 백성들은 머리를 땋고 머리를 덮으며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말(斗)과 저울 등 모든 그릇은 관청의 표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베(布)와 모시(苧)의 가격이 둘이 있는 곳이 없게 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하니 멀고 가까운 곳이 모두 편하였다.

12년(壬子)에 신지(神誌)의 귀기(貴己)가 칠회력(七回曆)과 구정도(邱井圖)를 만들어 바쳤다.

“2년(庚子), 이때에 풍속이 아직도 한결 같지 않아 방언(方言)이 서로 달라 상형(象形)으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진서(眞書)는 있었으나 열집만 있는 고을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일이 많고 백리(百里)되는 나라에서는 글자를 서로 해득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삼랑을보록(三郎乙普勒)에게 명을 내려 정음(正音) 38자(字)를 만들게 하니 이것이 가림토(加臨土)^{*1)}이다. 그 글은 이렇다.

8년(丙午)에 강거(康居)가 반란을 일으키니 임금이 이를 지백특(支伯特)에서 토벌하였다. 여름 4월에 임금이 불함산(不咸山)에 올라가 민가(民家)의 밥 짓는 연기가 조금 올라오는 것을 보고 명을 내려 세금을 감하여 차들을 두었다.

훈민정음(訓民正音) 서문에 한글의 형상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였다고 정인지(鄭麟趾)는 말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전자(篆字)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 때에 신전(神篆)이 있었는데 이 글이 백산(白山)·흑수(黑水)·청구(靑丘)·구려(九黎) 등지에서 널리 쓰여졌다. 그런데 부여 사람 왕문(王文)이 처음으로 전서(篆書)를 번거롭다 하여 그 획을 줄여 새로 부예(符隸)를 만들어 썼다. 진(秦)나라 때에 정막(程邈)이 숙신(肅愼)에 사신으로 갔다가 한수(漢水)에서 왕문(王文)의 예법(隸法)을 얻어갔고 그 글자의 획을 조금 변화시킨 모양이 지금의 팔분(八分)이다. 또 진(晉)나라 때에 왕차중(王次中)이 해서(楷書)를 만들었는데, 왕차중은 왕문의 후손이다. 지금의 한자(漢字) 또한 신시(神市)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글자의 한 종류이다.

*3) 곧 흉노(匈奴)이며 지금 몽고 지방에서 살았다.

10년(戊甲)에 두지주(豆尸州)의 예읍(濊邑)이 반란을 일으키니 여수기(餘守己)에게 명을 내려 그 우두머리 소시모리(素尸毛里)의 목을 베었다. 이로부터 그 땅을 소시모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음이 변해서 우수국(牛首國)이 되었다. 그 후손에 협야노(陝野奴)라는 자가 있었는데 해상(海上)으로 도망하여 3도(三島) *1)를 점령하고 참람하게도 천왕(天王)이라고 하였다.”

4세대단군(四世檀君) 오사구(烏斯丘)

“첫 해(甲申)에 임금의 아우 오사달(烏斯達)을 몽고리한(蒙古里汗)으로 봉(封)하였다. 혹 말하기를 지금의 몽고족이 그 후손이라고 한다. 겨울 10월에 북쪽으로 행차하였다가 태백산(太白山)으로 돌아와서 삼신(三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령스러운 풀(草)을 얻었다. 이것은 인삼(人蔘)이라 하고 또는 선약(仙藥)이라고도 한다. 이 뒤로 신선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인삼을 캐어 정기(精氣)를 보양한다는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때로는 인삼을 캐어 얻는 집에서 전하기를, ‘신령스러운 신의 이적(異蹟)이 나타나고 자못 기이한 체험이 많다.’고 하였다.

5년(戊午)에 둥글고 구멍 뚫린 패전(貝錢) *2)을 만들었다. 가을 8월에 하(夏)나라 사람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치고 신서(神書)를 구해 가지고 갔다. 10월에 조야(朝野)의 별기(別記)를 돌에 써서 백성들에게 공포하였다.

7년(庚寅)에 조선소(造船所)를 살수(薩水) 상류에 세웠다.”

5세대단군(五世檀君) 구울(丘乙)

“첫 해(壬戌)에 명을 내려 태백산(太白山)에 단(壇)을 쌓게 하고 사자를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2년(癸亥) 5월에 황충(蝗虫)이 크게 번져 밭과 들을 덮었다. 임금이 친히 밭과 들을 돌아 보고 황충을 삼키고 삼신(三神)에게 황충을 없애달라고 하니 몇일 만에 모두 죽었다.

4년(乙丑)에 처음으로 갑자(甲子)를 써서 역서를 만들었다.

8년(己巳)에 신독인(身毒人) *3)이 표류하여 동해(東海)의 해변에 이르렀다.

16년(丁丑)에 친히 장당경(藏唐京)에 행차하여 삼신단(三神壇)을 쌓고 환화(桓花) *4)를 많이 심었다.

7월에 임금이 남쪽으로 순수(巡狩)하여 풍류강(風流江)을 거쳐 송양(松壤)에 이르러 병을 얻으니 얼마 안되어 세상을 떴다. 대박산(大博山)에 장사 지내고 우가(牛加) *5)의 달문(達門)이 뽑혀서 대통(大統)을 이어 들어왔다.”

6세대단군(六世檀君) 달문(達門)

“첫 해는 무인(戊寅)년이다.

35년(壬子)에 여러 제후(汗)들을 상춘(常春)에 모이게 하여 구월산(九月山)에서 삼신(三神)에게 제사 지냈는데 신지(神誌)의 발리(發里)에게 서효사(誓效詞)를 짓게 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제후들과 약속하기를, ‘대개 우리 함께 약속하는 사람들은 환국(桓國)의 다섯가지 교훈(敎訓)과 다섯가지 일(五事)을 영구히 지켜야 할 안(案)으로 삼는다. 하늘에 제사하는 의식(儀式)은 사람으로 근본을 삼고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먹는(食) 것으로 우선을 삼는다. 농사는 만사의 근본이며 제사는 다섯가지 가르침(五敎)의 근원이니 마땅히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다스려 산업으로 삼는다. 먼저 종족을 소중히 여길 것을 강론(講論)하고 다음으로 포로나

*1) 왜국(倭國). 일본을 말한다.

*2) 조개껍질로 만든 돈

*3) 인도(印度) 사람

*4) 무궁화

*5) 오가(五加) 중의 하나.

죄수를 용서하여 모두 사형(死刑)과 화를 막아 주고 경계(境界)를 보존하며 화백(和白)^{*1)}으로 써 공론(公論)을 삼는다. 오로지 하나로 공화(共和)의 마음을 베풀고 겸손하고 내 몸을 낮추기를 스스로 길러 이것을 어진 정사(仁政)의 시작으로 삼는다.’

이 때에 맹세를 맺고 폐백을 바친 자는 큰 나라가 둘이며 작은 나라가 20, 부락이 3,624였다.

36년(癸丑)에 임금이 세상을 뜨니 양가(羊加)^{*2)} 한울(翰栗)이 왕위에 올랐다.”

8세단군(八世檀君) 우서한(于西翰)

“첫 해(戊申)에 20에 1을 받는 세법(稅法)을 정하고 널리 있고 없음을 가려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4년(辛亥)에 임금이 남이 알아 볼 수 없게 옷을 갈아 입고 몰래 국경을 넘어 하(夏)나라의 실정을 살펴 보고 돌아와 크게 관제(官制)를 고쳤다.”

10세단군(十世檀君) 노을(魯乙)

“첫 해(辛卯)에 처음으로 큰 동산을 만들어 가축 이외의 짐승을 길렀다.

5년(乙未)에 궁문(宮門) 밖에 신원목(申冤木)^{*3)}을 설치하여 백성들의 사정을 들으니 안팎이 크게 기뻐하였다.

16년(丙午)에 발해(渤海)의 연안에 금덩어리(金塊)가 노출되었는데 그 수량이 13섬(石)이나 되었다.

35년(乙丑)에 처음으로 감성(監星)^{*4)}을 설치하였다.”

11세단군(十一世檀君) 도해(道奚)

“첫 해(庚寅)에 임금이 오가(五加)에게 명을 내려 열두명산(十二名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곳을 골라서 국선(國仙)의 소도(蘇塗)를 설치하게

하였다. 박달나무(檀樹)를 많이 돌리심고 제일 큰 나무를 골라서 환웅(桓雄)의 상(像)을 삼아 제사지내며 웅상(雄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28년(丁巳)에 장소를 만들어 각 고장의 산물(產物)을 모아 진기(珍奇)한 것들을 보게 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다투어 물건을 가져왔는데 벌여 놓은 것이 산과 같았다.

38년(丁卯)에 백성들 중에 장정들을 뽑아서 모두 병사로 삼고 그 가운데서 20명을 추려 하(夏)나라 서울에 보내어 처음으로 국훈(國訓)을 전하니 위성(威聲)을 보였다.

46년(乙亥)에 송화강(松花江)가에 작청(作廳)을 설치하니 배(舟楫)와 기물(器物)이 널리 쓰여 졌다.

3월에 산 남쪽에서 술을 바치고 반찬을 마련하여 사(詞)를 지어 삼신(三神)에게 제사지냈다. 이날 밤에 특별히 술을 내려 나라 사람들과 둘러 앉아 마시며 여러가지 놀이를 보고 난 후에 끝났다. 그리고 곧 누전(樓殿)에 올라 경전(經典)을 의논하고 신고(神誥)를 널리 폈다. 오가(五加)를 돌아다 보고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죽이는 것을 금하고 살아있는 것은 놓아주며 옥에서 죄수를 풀어주고 거지에게 밥을 주며 아울러 사형(死刑)을 면해 주라.’하니, 안팎이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12세단군(十二世檀君) 아한(阿漢)

“2년(戊子) 여름 4월에 별 하나가 달린 짐승이 송화강(松花江) 북쪽 변방에 나타났다. 가을 8월에 임금이 나라 안을 순수(巡狩)하다가 요하(遼河) 왼쪽에 이르러 순수관경비(巡狩管境碑)를 세우고 역대 임금의 이름과 호(號)를 새겨 전하게 하였다. 이것이 금석문자(金石文字)로는 최초이다. 뒤에 창해(滄海)의 역사(力士) 여홍성(黎洪星)이 이곳을 지나다가 시(詩) 한편을 지었다.

*1) 국가의 큰 일을 의논하는 회의인데, 만장일치(滿場一致)로 결정한다.

*2) 오가(五加) 중의 하나.

*3)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도록 설치한 나무.

*4) 지금의 천문대.

마을과 들은 변한(弁韓)이라 하였는데
 특별히 구별되는 수상한 돌이 있네
 대(臺)는 거칠고 철죽은 붉게렸는데
 글자는 파묻히고 이끼만 푸르구나
 천지가 처음 열릴때 생겨서
 나라가 흥하고 망할 때 세우기를 다 하였네
 문헌으로 다 고증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단씨(檀氏)의 자취가 아니겠는가”

14세단군(十四世檀君) 고불(古弗)

56년(乙亥)에 관원을 사방에 보내어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계산하니 모두 1억 8천만명이었다.

15세단군(十五世檀君) 대음(代音 또는 後吃達)

“첫 해(庚辰)에 은주(殷主) 소갑(小甲)이 사자를 보내와 화친을 구하였다. 이 해에 80에서 1의 세금을 받는 제도를 개정하였다.

2년(辛巳)에 홍수가 크게 넘쳐 민가(民家)가 해를 입었다. 임금이 몹시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여 곡식을 창해(蒼海) 사수(蛇水)의 땅으로 옮겨 팔고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겨울 10월에 양운(養雲)·수밀이(須密爾) 두나라 사람이 와서 방물(方物)을 바쳤다.

10년(己丑)에 임금이 서쪽 약수(弱水)에 행차하여 신지(臣智) 우숙(禹粟)에게 명을 내려 금(金)과 철(鐵) 그리고 기름을 채취하게 하였다. 가을 7월에 우루(虞婁) 사람 20가구가 와서 투항(投降)하니 명을 내려 염수(鹽水)*1)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하였다.

28년(丁未)에 임금이 태백산(太白山)에 올라 비석을 세우고 열성(列聖)과 군한(群汗)의 공적을 새겼다.”

21세단군(二十一世檀君) 소태(蘇台)

“첫 해(甲辰)에 은주(殷主) 소을(小乙)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貢物)을 바쳤다.

47년(庚寅)에 은주(殷主) 무정(武丁)이 이미 귀방(鬼方)을 이기고 또 대군을 이끌고 색도(索度)·영지(令支)*2)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우리에게 크게 패하여 화친을 청하고 공물(貢物)을 보내왔다.

49년(壬辰)에 개사원(蓋斯原)의 옥살 고등(高登)이 은밀히 군사를 일으켜 귀방(鬼方)을 습격하여 이를 멸하니 일군(一群)·양운(養雲) 두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조공(朝貢)하였다. 여기에서 고등(高登)이 많은 군사들과 손을 잡고 서북쪽 땅을 침략하여 그 세력이 강성 하더니 사람을 보내 우현왕(右賢王)이 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이를 꺼려 허락하지 않았는데 거듭 청하므로 비로소 허락하여 이름을 두막루(豆莫婁)라고 하였다.

52년(乙未)에 우현왕(右賢王) 고등(高登)이 죽고 이어 그 손자 색불루(索弗婁)가 우현왕(右賢王)이 되었다.

임금이 나라 안을 순수(巡狩)하다가 남쪽 해성(海城)에 이르러 부로(父老)를 모아놓고 하늘에 제사지내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어 곧 오가(五加)를 불러 이들과 함께 왕위를 물려주는 일을 의논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늙어서 부지런히 일할 수 없다.’하고, 정사(政事)를 서우여(徐于餘)에게 맡기려하였다. 이에 살수(薩水) 백리(百里)를 묶어 봉하여 섭주(攝主)로 삼고 호를 내려 기수(奇首)라고 하였다. 우현왕(右賢王)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임금에게 권하여 중지하게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듣지 않았다. 이에 우현왕(右賢王)이 좌우(左右) 신하와 엽호(獵戶) 수천을 거느리고 드디어 부여(扶餘)의 신궁(新宮)에서 즉위하고 말았다. 임금이 할 수 없는 옥책국보(玉冊國寶)를 전하고 서우여(徐于餘)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임금이 아사달(阿斯達)에 숨어 살다가 세상을 떴다. 이 해에 백이(伯夷)·숙제(叔齊)도 또한 고죽군(孤竹君)의

*1) 내 이름. 근원은 산서성 하음현(山西省 下邑縣)

*2) 나라 이름. 은(殷)이 망한 뒤에 고이(高夷)·고죽(孤竹)·영지(令支)가 남아 있었다.

아들로서 나라를 양보하고 도망하여 동해(東海)가에 살면히 힘써 농사지어 스스로 살아갔다.”

22세단군(二十二世檀君) 색불루(索弗婁)

“첫 해(丙申)에 임금의 명을 내려 녹산(鹿山)을 수축(修築)하게 하고 관제(官制)를 고쳤다. 가을 9월에 친히 장당경(藏唐京)에 행차하여 사당을 세워 고등왕(高登王)을 제사하였다. 11월에 친히 구환(九桓)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번 싸워 은(殷)나라 도읍을 쳐부수고 이어 화친했다가 또 다시 크게 싸워 파멸시켰다. 이듬해 2월에 추격하여 하상(河上)에 이르러 이겼다는 하례를 받고 변(弁)의 백성들을 회대(淮岱)의 땅으로 옮겨, 이들에게 가축(家畜)을 기르고 농사짓게 하니 나라의 위엄이 크게 떨쳤다.”

20년(乙卯), 이 때에 이르러 남국(藍國)이 자못 강해져서 고죽군(孤竹君)과 함께 여러 적들을 쫓아내고 남쪽으로 옮겨 엄독홀(奄讀忽)에 이르러 살았다. 이곳은 은(殷)의 국경과 가까워 여파달(黎巴達)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고 나아가 빈(邠)·기(岐)를 점거하고 그 유민(遺民)과 서로 결합하여 나라를 세우니 여(黎)라고 하였다. 서융(西戎)과 함께 은(殷)의 제후(諸侯)들 사이에 섞여 사니 남씨(藍氏)의 위세가 매우 강성하여 임금의 교화가 멀리 항산(恒山)*1)남쪽 지방까지 미쳤다.

36년(辛未)에 변방의 장수 신독(申督)이 군사를 의지하여 난(亂)을 일으켰다. 임금이 잠시 영고탑(寧古塔)에 피하니 백성들이 많이 따라왔다.”

23세단군(二十三世檀君) 아홀(阿忽)

“첫 해(甲申)에 임금의 숙부(叔父) 고불가(固弗加)에게 명을 내려 낙랑홀(樂浪忽)을 다스리게 하고 웅갈손(熊弼孫)을 보내어 남국(藍國)의 임금과 함께 남쪽을 치는(南征) 병사들을 돌보게 하였다. 6읍(邑)을 은(殷)의 땅에 두게 하니 은

인(殷人)들이 서로 다투어 결정을 내리지 않아, 이에 군사를 진격시켜 쳐부셨다.

가을 7월에 신독(申督)을 베어 버리고 도읍으로 돌아와 명을 내려 죄인과 포로를 석방하였다.

2년(乙酉), 남국(藍國) 임금 금달(今達)이 청구(靑邱)의 임금과 구려(句麗)의 임금과 함께 주개(周楷)에서 만나 몽고리(蒙古里)의 병력과 합세하여 이르는 곳마다 은(殷)의 성책(城柵)을 부수고 오지에까지 깊숙히 들어가 회대(淮岱)의 땅을 평정하였다. 포고씨(蒲古氏)를 엄(淹)에, 영고씨(盈古氏)를 서(徐)에 방고씨(邦古氏)를 회(淮)에 나누어 봉(封)하니 은인(殷人)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놀라 겁먹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5년(戊子)에 이한(二韓)와 오가(五加)를 불러 모으고 영고탑(寧古塔)에 도읍을 옮길 것을 정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24세단군(二十四世檀君) 연나(延那)

“첫 해(庚子)에 임금의 숙부(叔父) 고불가(固弗加)에게 명을 내려 섭정(攝政)하게 하였다.”

25세단군(二十五世檀君) 솔나(率那)

“37년(丁亥)에 기자(箕子)가 서화(西華)로 옮겨서 살면서 인사(人事)를 사절(謝絕)하였다.”

27세단군(二十七世檀君) 두밀(豆密)

“첫 해(甲申)에 천해(天海)의 물이 넘치고 사아란산(斯阿蘭山)이 무너졌다. 이 해에 수밀이국(須密爾國)과 양운국(養雲國)·구다천국(句茶川國)이 모두 사신을 보내어 방물(方物)을 바쳤다.

8년(辛卯)에 큰 가뭄(大旱)끝에 큰 비가 쏟아져 백성들이 수확이 없으므로 임금이 명을 내려 창고를 열고 두루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28세단군(二十八世檀君) 해모(奚牟)

*1) 상산(常山)이라고도 한다. 산서성(山西省) 경계의 구주산(句注山)에서 시작된다.

“첫 해(庚戌)에 임금이 병이 있어 백의동자(白衣童子)에게 하늘에 기도하게 하니 이윽고 병이 나았다.

18년(丁卯)에 빙해(氷海)의 제한(諸汗)이 사신을 보내어 공물(貢物)을 바쳤다.”

29세단군(二十九世檀君) 마휴(摩休)

“첫 해(戊寅)에 주(周)나라 사람이 들어와 공물(貢物)을 바쳤다.

8년(乙酉) 여름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9년(丙戌)에 남해에 조수가 석자(三尺)나 물러갔다.”

30세단군(三十世檀君) 내휴(奈休)

“첫해(壬子)에 주(周)나라 사람과 수호(修好)하였다.

5년(丙辰)에 흉노(匈奴)가 조공을 바쳤다.”

32세단군(三十二世檀君) 추밀(鄒密)

“3년(甲寅)에 선비산(鮮卑山)^{*1)}의 추장(酋長) 문고(們古)가 조공을 바쳤다.

12년(癸亥)에 초(楚)의 대부(大夫) 이문기(李文起)가 입조(入朝)하였다.

13년(甲子) 3월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35세단군(三十五世檀君) 사벌(沙伐)

“6년(甲戌), 이 해에 황충(蝗蟲)과 큰 물이 있었다.

14년(壬午)에 범이 궁전에 들어왔다.

24년(壬辰)에 큰 물이 있어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졌다.

50년(戊午)에 임금이 언파불합(彦波弗哈) 장군을 보내어 해상(海上)의 웅습(熊襲)을 평정하였다.

66년(甲戌)에 임금이 조을(祖乙)을 보내어 똑바로 연도(燕都)를 뚫게 하였더니 제병(齊兵)과

함께 임치(臨淄)^{*2)}의 남쪽 들에서 싸워 이김을 알려왔다.”

36세단군(三十六世檀君) 매륵(買勒)

“28년(甲辰)에 지진과 해일이 있었다.”

43세단군(四十三世檀君) 물리(勿理)

“36년(乙卯)에 융안(隆安)의 사냥꾼 우화충(于和沖)이 스스로 장군이라 하고 무리 수만명을 모아 서북쪽 36군(郡)을 함락시켰다. 임금이 군사를 보내어 치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겨울에 적이 도성(都城)을 포위하고 급하게 공격하였다. 이에 임금이 좌우(左右) 궁인(宮人)과 함께 묘사(廟社)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배를 타고 내려가 해두(海頭)에 가서 세상을 뒀다.

이 해에 백민성(白民城)의 옥살(褥薩) 구물(丘勿)이 명에 의하여 군사를 일으켜 먼저 장당경(藏唐京)을 점령하니 구지(九地)의 군사가 여기에 따르고 동서 압록(鴨綠) 18성(城)이 모두 군사를 보내와서 도왔다.”

44세단군(四十四世檀君) 구물(丘勿)

“첫 해(丙辰) 3월에 큰 물이 도성에 몰려 들어오니 역적이 크게 어지러웠다. 구물(丘勿)이 군사 1만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자 역적은 싸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므로 드디어 우화충(于和沖)을 베었다.

여기에서 구물(丘勿)이 여러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3월 16일 단(壇)을 쌓고 하늘에 제사지내고 드디어 장당경(藏唐京)에서 즉위(即位)하였다. 국호(國號)를 고쳐 대부여(大扶餘)라 하고 삼한(三韓)을 고쳐 삼조선(三朝鮮)이라 하였다.

이로부터 삼조선(三朝鮮)도 비록 단군을 받들어 일존임리(一尊臨理)의 제도를 만들었으나 오직 화합하고 싸우는 권리는 일존(一尊)에게 있지 않았다.

^{*1)} 내몽고 과이십(科爾沁) 서쪽에 있는 산.

^{*2)} 산둥성(山東省) 광요현(廣饒縣) 남쪽에 있다.

7월에 명을 내려 해성(海城)을 개축(改築)하여 평양(平壤)이라 하고 이궁(離宮)을 짓게 하였다.

2년(丁巳)에 예관(禮官)이 삼신(三神)의 영고제(迎鼓祭)를 청하여 행하니 3월 16일이었다. 임금이 친히 나아가서 공손히 절하였는데 첫 절에는 세번 머리를 숙이고 두번째 절에는 여섯번 숙이고 세번째 절에는 아홉번 머리를 숙이는 예(禮)이다. 따라간 무리들은 특별히 열번 머리를 숙였다. 이것이 삼육대례(三六大禮)이다.

17년(壬申)에 감찰관(監察官)을 주(州)·군(郡)에 보내어 관리와 백성을 살피고 효성이 있고 청렴한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23년(戊寅)에 연(燕)이 사신을 보내어 새 해 하례를 하였다.”

45세단군(四十五世檀君) 여루(余婁)

“첫 해(乙酉)에 장령(長嶺)*1) 낭산(狼山)*2)에 성을 쌓았다.”

46세단군(四十六世檀君) 보을(普乙)

“첫 해(庚辰) 12월에 번조선왕(番朝鮮王) 해인(解仁)이 연(諺)에서 보낸 자객(刺客)에게 죽고 오가(五加)가 다투어 왕위에 오르려 하였다.

19년(戊戌) 정월에 읍차(邑借) 기허(箕訶)가 군사를 이끌고 궁(宮)에 들어와서 스스로 번조선왕(番朝鮮王)이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윤희(允許)를 청하자 임금이 이를 허락하고 굳게 연(燕)을 대비하게 하였다.

38년(丁巳)에 도성(都城)에 큰 불이 나서 모두 타자 임금이 피하여 해성(海城)으로 이궁(離宮)하였다.

44년(癸亥)에 북막(北漠)의 추장(酋長) 니사(尼舍)가 음악을 바치자 이를 받고 후하게 상을 주었다.

46년(乙丑)에 한개(韓介)가 수유(須臾)의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침범하여 스스로 왕위에 올

랐다. 이에 상장(上將) 고열가(高列加)가 의병을 일으켜 이를 쳐부수니 임금이 환도(還都)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이로부터 나라 형세가 몹시 미약해지고 국가의 비용을 댈 수가 없더니 이윽고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고열가(高列加)가 단군물리(檀君勿理)의 현손(玄孫)이므로 무리의 사랑을 받아 추대받고 또 공이 있으므로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47세단군(四十七世檀君) 고열가(古列加 = 高列加)

“14년(己卯)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의 사당을 백악산(白岳山)에 세우고 유사(有司)에게 사시(四時)마다 제사지내게 하였다. 임금도 1년에 한번씩 친히 제사지냈다.

44년(乙酉)에 연(燕)이 사신을 보내어 신년(新年)을 하례하였다.

48년(癸丑) 10월 초하루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이 해 겨울에 북막(北漠)의 추장 아리당부(阿里當夫)가 군사를 내어 연(燕)을 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으니 이로부터 원망하여 조공(朝貢)을 하지 않았다.

57년(壬戌) 4월 8일에 해모수(解慕漱)가 웅심산(熊心山)에 내려와 군사를 일으키니 그 조상은 고리국(藁離國) 사람이다.

58년(癸亥), 임금이 어질고 유약(柔弱)하고 과단성(果斷性)이 없어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일이 많았고 여러 장수들은 용맹을 믿고 화란(禍亂)을 자주 일으키니 국가의 비용을 댈 수가 없어 백성들의 기운은 더욱 쇠하여졌다.

3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날 저녁에 오가(五加)와 더불어 의논하기를,

“옛날 우리 열성(列聖)께서 나라를 열고 대를 이어내려 오면서 덕을 심은 것이 크고 원대하여 영세(永世)의 법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은 왕

*1) 만주 길림성 영길현(永吉縣) 동북쪽에 있는 산.

*2) 하북성(河北省) 청원현(淸苑縣) 서북쪽에 있는 산.

도(王道)가 쇠하고 미약해 저서 제한(諸汗)들이 강함을 다투는데 오직 짐(朕)의 덕은 나약하여 능히 다스리지 못하니 불려서 편안히 할 방책이 없다. 이리하여 백성들이 떠나 흩어지고 있으니 너희 오가(五加)는 어진 이를 골라서 천거하라. '하고, 옥문을 활짝 열고 사형수 이하 모든 포로들을 석방하여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왕위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도(道)를 닦아 신선이 되었다. 이에 오가(五加)들이 6년 동안 함께 국사(國事)를 다스렸다.

이보다 먼저 종실(宗室) 대해모수(大解慕漱)가 은밀히 수유(須臾)와 짜고 옛 도읍 백악산(白岳山)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천왕랑(天王郎)이라 하니 사방 국경안이 모두 그 명령을 들었다. 이에 여러 장수들을 봉(封)하였는데 수유후(須臾侯)·기비(箕丕)를 승진시켜 번조선왕(番朝鮮王)으로 삼고, 가서 상·하 운장(雲障)을 지키게 하니 대개 북부여(北扶餘)가 일어난 것이 여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구려(高句麗)는 곧 해모수(海慕漱)의 고향이기 때문에 또한 고구려(高句麗)라고 하였다."

태백일사(太白逸史)

1.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

"웅족(熊族) 중에 단국(檀國)이 가장 성(盛)하였고 왕검(王儉)이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불함산(不咸山)에 있었는데 나라 사람이 함께 세워 단군(檀君)을 삼았다. 이분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다. 나면서부터 신(神)스럽고 성(聖)스러움을 겸하여 원만하니 구환(九桓)을 통합하여 삼한(三韓)을 관경(管境)하여 신시(神市)의 옛 제도를 회복하였다. 이에 천하가 크게 다스려지니 온 세상이 천신(天神) 같이 보아, 이로부터 숭보(崇報)의 예(禮)가 오래 세월 동안 바뀌지 않았다."

3. 신시본기(神市本記)

"조대기(朝代記)에 말하기를 이 때에 곰 하나

와 범 하나가 이웃에서 같이 살면서 항상 신단수(神檀樹)에 빌며 환웅에게 청하기를 '원하옵기는 변하여 천계(天戒)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하였다. 환웅이 신(神)에게 뼈를 바꾸어 신(神)으로 옮기게 할 것을 빌고 또 신(神)이 주는 영(靈)의 체험을 얻어 살게 하니 곧 쑥 한줌과 마늘 스므 쪽이었다.

이에 경계하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고 햇빛을 백 일 동안 보지 않아야 자유로이 참(眞)을 이루고 평등하게 제물(濟物)하여 변화하므로 사람으로 화하여 형상을 갖춘 대인(大人)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곰과 범 두 집은 모두 이것을 먹고 스무하루(三七日)동안 스스로 수련하기를 힘썼다. 그런데 곰은 주림과 추위와 고통을 잘 참아 천계(天戒)를 지키고 환웅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건장한 여자의 모습을 얻었다. 그러나 범은 속이고 거만하여 조심하지 않고 천계(天戒)를 어겼기 때문에 끝내 하늘의 업(業)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두 성(姓)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웅씨(熊氏)의 여러 여자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강하여 몸을 맡겨 기댈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檀樹) 밑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 아이를 배고 살 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 하였다. 이에 환웅이 거짓 화하여 환(桓)이 되어 관경(管境)을 얻어 혼인하여 아이를 배어 아들 딸을 낳았다. 이로부터 못계집과 못사내들이 점점 인륜(人倫)을 얻게 되었다. 그 뒤로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으며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세웠는데 지금의 송화강(松花江)이다. 나라 이름을 처음으로 조선(朝鮮)이라 하였으며 삼한고리(三韓高離)와 시라고례(尸羅高禮)와 남북옥저(南北沃沮)와 동북부여(東北夫餘)와 예(濊)와 맥(貊)이 모두 그 다스리는 지경(管境)이었다.

백두산 일대에 산삼(山蔘)이 많이 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불노초(不老草)라고 믿고 있었으며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캐고자 하면 반드시 깨끗이 목욕 재계 하고 산에 제사지낸 후에

야 감히 시작하였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늙지 않는다는 이름이 붙은 것도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기」(世紀)에 말하기를,

‘단군 오사구(檀君烏斯丘)*¹⁾ 원년에 북쪽으로 순수(巡狩)하다가 신령스러운 풀(靈草)을 얻었다.’하였는데 곧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은 드디어 천하만세(天下萬世)에 남긴 풍속이다. 이것은 곧 신주(神州) 특유의 성전(盛典)으로써 외국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태백산(太白山)이 홀로 곤륜(崑崙)이란 이름을 누르고도 남음이 있다. 옛날의 삼신산은 곧 태백산이며 또한 지금의 백두산이다.

대개 옛날(上世) 신시(神市)의 인문(人文)과 교화(敎化)가 근세에 이르러 건전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으나 천경(天經)과 신고(神誥)*²⁾는 오히려 후세에까지 전해져 온 나라 남녀들이 모두 말없이 조용한 속에서 숭상하고 믿었으니 곧 인간의 생사는 반드시 삼신(三神)의 주관이라 하였다. 또 열살안의 어린 아이의 몸과 목숨의 안위·지혜롭고 어리석음·준수하고 용렬함을 모두 삼신에게 의탁하였다. 삼신이란 곧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만든 유일한 신(神)인 것이다.

공(公)의 도움으로 된 풍속인 것이다. 일찌기 「음부경」(陰符經)*³⁾ 주(註)를 만들었는데 자부(紫府)의 삼황내문(三皇內文)의 뜻을 풀어 썼으니 연(燕)·제(齊)의 선비가 얻어보고 어찌 괴이하고 허탄한 학설을 좋아하지 않았겠는가. 또 오행으로 물을 다스리는 법(五行治水法)인 황제중

경(黃帝中經)이라는 글이 또한 태자부루(扶婁)에게서 나왔고 또 우사공(虞司空)에게 전하였다. 그후 다시 기자(箕子)가 주왕(紂王)*⁴⁾에게 크게 모범이 되는 법을 말한 것도 또한 황제중경(黃帝中經)의 오행치수설(五行治水說)이다. 그러니 이 학문의 근본은 신시(神市)의 구정(邱井)*⁵⁾ 균전(均田)의 유법(遺法)인 것이다.”

그 후 460년에 신인(神人) 왕검(王儉)이란 분이 있어 크게 백성들의 인망(人望)을 얻어 비왕(裨王)에 올랐다. 나라를 다스린지 24년에 웅씨(熊氏)왕이 전쟁에서 세상을 뜨니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구환(九桓)을 통일하여 하나로 만들었다. 이분이 단군왕검(檀君王儉)이다.

이에 나라 사람들을 불러 약속을 세우기를, ‘지금 이후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 공법(公法)을 세우리니 이것은 천부(天符)라고 한다. 천부(天符)라 하는 것은 만세의 경전(經典)이오 지극히 존귀하여 범할 수 없는 것이다.’하였다.

도움을 아사달(阿斯達)에 세우고 나라를 열어 이름을 조선(朝鮮)이라 하였는데 이분이 일세단군(一世檀君)이다. 아사달은 삼신(三神)을 제사하던 곳이다. 이를 뒷 사람들이 왕검성(王儉城)이라 하였으니 왕검의 옛 집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4. 삼한 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인문(人文)은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이 때에 자부선생(紫府先生)*⁶⁾의 일곱번 신에게 제사지내는 역법(曆法)을 만들고

*¹⁾ 제 4 세 단군.

*²⁾ 신의 경계와 가르침.

*³⁾ 병서(兵書), 천기(天機)가 시기(時機)와 암합(暗合)한다는 뜻, 비계(秘計)라고도 한다.

*⁴⁾ 은(殷)의 최후의 왕, 제을(帝乙)의 아들, 포학하고 무도하여 주(周)의 무왕(武王)에게 멸망됨.

*⁵⁾ 구정(丘井)이라고도 한다. 옛날 전리 밭의 구획, 1구(丘)는 16정(井), 1정(井)은 9백 묘(畝)인.

*⁶⁾ 자부선인(紫府先人)이라고도 한다. 신시(神市)시대의 발귀리(發貴理) 선인(仙人)의 후손이며 동방 청구(靑丘)의 대풍산(大風山) 삼청궁(三清宮)에 있었다. 황제(黃帝)에게 삼황내문(三皇內文)을 주어 마음을 씻고 의로워지라고 하였다. 도교(道敎)를 편 노자(老子)는 황제(黃帝)에게서 배웠으며 황제는 자부선생으로부터 그 도맥이 이어진다. 유위자(有爲子)의 학문도 자부선생에서 나왔다.

삼황내문(三皇內文)을 천왕이 있는 곳에 나아가 바쳤다. 천왕이 이를 가상히 여기고 삼청궁(三清宮)을 지어 살게 하였는데 공공(共工)·현원(軒轅)*1)·창힐(倉頡)·대요(大撓)의 무리들이 와서 배웠다. 이 때에 옷놀이를 만들어 환(桓)의 역법(易法)을 펴게 하니 이는 신지(神誌)의 빛나는 덕을 기록한 천부(天符)의 남긴 뜻이었다.

옛날에 환웅천왕(桓雄天王)은 천하가 큰 것을 생각하여 한 사람이 능히 다스리고 교화시키지 못할 것이라 하여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와 운사(雲師)를 시켜 곡식을 주관하고 목숨을 주관하고 형벌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게 하여 모든 인간의 360가지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또 역법(曆法)을 만들어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1년으로 삼았다. 이것이 곧 삼신일체(三神一體)의 상존(上尊)의 유법(遺法)인 것이다. 그러므로 삼신(三神)으로써 가르침을 세워 이에 뜻을 펴는 포본을 만들었다.”

요약(要約)

문헌의 개요에서 열거되고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발췌한 내용을 대략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1. 단군(檀君)과 단군조선(檀君朝鮮)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아버지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환웅(居弗檀桓雄)과 어머니 곰족(熊族)의 왕녀사이에서 신묘년(辛卯年 BC 2370) 5월 2일에 태어났다.

그후 성장하여 무진년(戊辰年 BC 2333) 10월 3일 총회에서 임금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네 아들을 두었는데 부루(扶婁)·부소(扶蘇)·부우(扶虞)·부여(扶餘)이다.

도읍을 아사달(阿斯達)에 세우고 나라이름을 단(檀)이라 하였다. 후에 사람들이 왕검성(王儉城)이라 하였다.

그리고 즉위 23년(庚寅年 BC 2311)에 도읍을 송화강(松花江)가로 옮겨 평양(平壤)이라 하고,

*1) 황제(黃帝)

나라이름도 조선(朝鮮)으로 고쳤다.

2. 단군조선(檀君朝鮮)의 역사

단군조선은 역대 47대를 거치는 동안 2096년(BC 2333~BC 238)이 존립하였다. 역대 임금은 다음 도표와 같다.

단군조선(檀君朝鮮) 47대

세(世)	왕명	즉위년 (BC)	재위기간(年)
제 1세	단군왕검(王儉)	무진년(戊辰) 2333	93
제 2세	단군부루(扶婁)	신축년(辛丑) 2240	58
제 3세	단군가륵(嘉勒)	기해년(己亥) 2182	45
제 4세	단군오사구(烏斯丘)	갑진년(甲辰) 2137	38
제 5세	단군구을(丘乙)	임술년(壬戌) 2099	16
제 6세	단군달문(達門)	무인년(戊寅) 2083	36
제 7세	단군한속(翰粟)	갑인년(甲寅) 2047	53
제 8세	단군우서한(于西翰)	무신년(戊申) 1993	8
제 9세	단군아술(阿述)	병진년(丙辰) 1985	35
제 10세	단군노을(魯乙)	신묘년(辛卯) 1950	59
제 11세	단군도해(道奚)	경인년(庚寅) 1891	57
제 12세	단군아한(阿漢)	정해년(丁亥) 1834	52
제 13세	단군홀달(屹達)	기묘년(己卯) 1782	61
제 14세	단군고불(古弗)	경진년(庚辰) 1721	60
제 15세	단군벌음(伐音)	경진년(庚辰) 1661	51
제 16세	단군위나(慰那)	신미년(辛未) 1610	58
제 17세	단군여을(余乙)	기사년(己巳) 1552	68
제 18세	단군동엄(冬奄)	정축년(丁丑) 1484	49
제 19세	단군종년(縱年)	병인년(丙寅) 1435	55
제 20세	단군고홀(古忽)	신유년(辛酉) 1380	43
제 21세	단군소태(蘇台)	갑진년(甲辰) 1337	52
제 22세	단군색불루(索弗婁)	병신년(丙申) 1285	48
제 23세	단군아홀(阿忽)	갑신년(甲申) 1237	76
제 24세	단군연나(延那)	경자년(庚子) 1161	11
제 25세	단군솔나(率那)	신해년(辛亥) 1150	88
제 26세	단군추로(鄒魯)	기묘년(己卯) 1062	65
제 27세	단군두밀(豆密)	갑신년(甲申) 997	26
제 28세	단군해모(奚牟)	경술년(庚戌) 971	28
제 29세	단군마휴(摩休)	무인년(戊寅) 943	34
제 30세	단군나휴(奈休)	임자년(壬子) 909	35
제 31세	단군등을(登屹)	정해년(正亥) 874	25
제 32세	단군추밀(鄒密)	임자년(壬子) 849	30
제 33세	단군감물(甘勿)	임오년(壬午) 819	24
제 34세	단군오루문(婁婁門)	병오년(丙午) 795	23
제 35세	단군사벌(沙伐)	기사년(己巳) 772	68
제 36세	단군매륵(買勒)	정축년(丁丑) 704	58
제 37세	단군마물(麻勿)	을해년(乙亥) 646	56
제 38세	단군다물(多勿)	신미년(辛未) 590	45
제 39세	단군두홀(豆忽)	병진년(丙辰) 545	36
제 40세	단군달음(達音)	임진년(壬辰) 509	18
제 41세	단군음차(音次)	경술년(庚戌) 491	20
제 42세	단군을우지(乙于支)	경오년(庚午) 471	10
제 43세	단군물리(勿理)	경진년(庚辰) 461	36
제 44세	단군구물(丘勿)	병진년(丙辰) 425	29
제 45세	단군여루(余婁)	을유년(乙酉) 396	55

제46세 단군보을(普乙)	경진년(庚辰)341	46
제47세 단군고열가(高列加)	병인년(丙寅)295	58

3. 단군조선의 사회상(社會相)

(1) 정치·정부·제도

단군조선의 정부·행정계통은 이미 꽤 발달되어 있었다. 단군왕검은 벌써 나라 일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기고사(檀吉古史), 제1편 전단군조선(前檀君朝鮮), 제1세 단군왕검”에 관한 설명과 “규원사화(揆園史話), 3. 단군기(檀君記)” 및 “환단고기(桓檀古記), 단군세기(檀君世紀)”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다음은 위의 3가지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기고사에 따른 행정대신과 그 업무

대신(大臣)이름	관직	업무
신우(神祐)		백성에게 오륜(五倫)을 가르치고 관후(寬厚)와 박애(博愛)정신을 고취시키는 일
고시(高矢)	사농관(司農官)	농민에게 농사를 가르쳐 농사일을 권장하는 일
신지(神誌)	사악(司樂)	백성에게 음악을 가르쳐 마음과 정신을 화창(和暢)하게 하는 일
해월(海月)	사공관(司工官)	공인(工人 = 匠人)에게 각각 기구·생활용품을 만들도록 하는 일
운목(雲牧)	감시관(監時官)	춘하추동을 정하고 72후(候) 24절(節)을 정하고 농업을 돕는 일
마옥(磨玉)	미술관(美術官)	미술발명품에 전력을 다하는 일
팽오(彭吳)	개척관(開拓官)	치산치수(治山治水)에 전력, 침수방지 도로교통을 도모하는 일
원보팽우(元輔彭虞)		신을 섬기는 일과 백성을 가르치는 일

단군8가(檀君八加) ; 규원사화에 따른 행정대신과 그 업무

대신이름	관직	업무	기타
부루(扶婁)	호가(虎加)	여러가(加)를 총괄하는 일	단군왕검의 맏아들. 뒤에 용가(龍加)로 고치고 선리(仙離)를 임명함

신지씨(神誌氏)	마가(馬加)	목숨을 주관하는 일	
고시씨(高矢氏)	우가(牛加)	곡식을 주관하는 일	
치우씨(崖尤氏)	웅가(熊加)	군사를 주관하는 일	
부소(夫蘇)	웅가(鷹加)	형벌을 주관하는 일	단군왕검의 두째아들
부우(夫虞)	노가(鷲加)	질병을 주관하는 일	단군왕검의 세째아들 뒤에 녹가(鹿加)로 고침
주인씨	학가(鶴加)	선악을 주관하는 일	뒤에 도라(道羅)를 임명함
여수기(餘守己)	구가(狗加)	모든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는 일	뒤에 동무를 임명함
아밀(阿密)	봉가(鳳加)	재무를 주관하는 일 (扶婁)때 신설됨	제2세 단군부루

오가(五加)

단군세기(檀君世紀)에 따른 대신과 그 업무

대신이름	업무
팽우(彭虞)	토지개발 및 궁실(宮室)의 건축
신지(臣智)	문자(文字)를 만듦
기성(奇省)	의약(醫藥)을 베풀
나을(那乙)	판적(版籍)·의전(義典)·괘저(掛箴)를 관리
우(尤)	병마(兵馬)를 맡음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만장일치제도인 화백(和白)제도(제6세 단군때 : 이하에는 (6)처럼 표기 함)가 있었으며, 민권을 인정하고 (9), 민원·민성을 들어서 (10), 나라의 위 아래가 평화롭도록 하였다.

한편, 금강율령(金剛律令)을 선포(11)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입법·사법·행정을 분리 실시 하였다(13).

역대 임금마다 선정을 베풀려 하였으나 한 때는 외척의 세도(16)로 사회기강이 흐려지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전법(井田法)을 실시(23)하여 고대시대에 토지정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령을 개정하여 대동율령(大同律令)을 공포(45)하면서 이어지더니 마지막 단군 고열가(古列加)(47)는 왕위를 버리고 입산하여 당분간 오가(五加)가 다

스렸으나 끝내 단군조선은 없어 졌다.

(2) 외교·국방

단군왕검은 태자 부루(扶婁)를 도산(塗山)에서 순(舜)나라 임금이 보낸 우(禹)와 만나 오행치수(五行治水)의 법을 전하게 하면서 나라의 국경을 정하는 회담 즉 도산회의(塗山會義)를 갖도록 하였다. 이때 유주(幽州)·영주(營州)두 고을을 우리에게 속하게 하였다.

또한 단군왕검은 지금 중국의 요령성(遼寧省)과 하북성(河北省) 일대에 12개의 성(城)을 쌓아 국토를 정하였으며, 강화도 정족산에 삼랑성(三郎城)을 쌓고 마니산에는 하늘에 제사드리는 참성단(塹城壇)을 쌓아 나라의 안과 밖의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래서 건국초의 국경은 북쪽은 시베리아, 남쪽은 남해, 서쪽은 요서(遼西)였고(2), 제4세 단군 오사구(烏斯丘)는 아우 오사달(烏斯達)을 몽고리(蒙古里)왕으로 삼았다.

인도사람이 표류하여 입국(5)하였고 한때 약세였던 하(夏)나라를 치지 않아 사례를 받아(7) 본래의 평화주의를 고수하였다.

단군왕검부터 능동적인 외교활동을 펴면서 얼마후에는 접빈관(接賓館)을 지어(5) 제47세까지 이어지는 동안 인접국인 요(堯) 순(舜)·우(禹)·하(夏)·은(殷) 또는 상(商)·주(周)·연(燕)·한(韓)·정(鄭)·조(趙)·위(衛)·송(宋)·노(魯)나라와 사신을 왕래시켜 수호조약을 맺어왔으나 이따금 전쟁도 있었다.

드디어는 군관학교(軍官學校)를 설립(23)하여 병학(兵學)을 가르키게 이른 것이다. 그 이전의 주민은 부락이 3624 (단기고사에는 추장이 360명이라 함이)였고(6)), 인구는 호구조사에 따르면 1억 8천만이었다(14).

(3) 농업·경제

단군왕검은 황후(皇后)에게 손수 누에를 치게

하여 근면함을 숭상수범하였다. 특히 단군8가(檀君八加)를 두어 이중 우가(牛加)인 고씨씨(高氏)로 하여금 농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식생활(食生活)에 불편과 걱정이 없도록 하였다.

곧 이어서, 베(布)와 모시(苧)의 가격이 일정하도록 하여 정찰제를 실시하는 한편 논(稻田)을 만들어 경작토록하고 또 토지를 정리하고 세금을 걷었다(2). 그런데 이 세금에 관하여 보면 세금을 반감(7), 20에 1 (또는 90에 1)로 결정(8)하고, 밭·토지·산야를 추정하고 조세율을 개정(14)하였다가, 세금을 80의 1(15)라는 조치를 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그런가 하면, 흉년이나 가뭄·홍수·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나라의 곡물창고를 열어 백성에게 배급하여 식량을 나누어 주어 백성을 다스렸다.

단군조선에는 일찌기 실물화폐(實物貨幣)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

동근 조개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 원공패전(圓孔貝錢)이 있었다(4). 그러다가 쇠를부어 만든 자모전(子母錢)이 나오고 (14, BC 1680) 조개로 만든 엽전인 패엽철(貝葉鐵)로 바뀌었다(19). 그리고 주조(鑄造)해서 만든 방공전(方孔錢)을 쓰기도 하였다.

(4) 과학·기술

이미 단군왕검때 도읍을 건설하고 12개의 성(城)을 건축하며 참성단(塹城壇)을 신축했고 역대 임금들이 수시로 중축·신축하느로서 토목·건축술은 대단히 발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문제도 환국(桓國)이나 배달(倍達)나라 시대 보다는 훨씬 향상되었으리라고 믿어진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말(斗)과 저울 그리고 그릇은 관청의 표준을 따르도록 하여 도량형(度量衡)이 실시되었다(2).

또한 칠회력(七回歷)*1)을 만들어 1주일 7일을

*1) 일곱 신에게 제사하는 날을 정하여 이를 한 주기로 묶어 역법(曆法). 첫날은 천신(天神), 2일은 월(月)신, 3일은 화(火)신, 4일은 수(水)신, 5일은 목(木)신, 6일은 금(金)신, 7일은 토(土)신에 제사했다. <마한세가 상>에는 이것을 자부선생(紫府先生)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7요일의 시작은 자부선생으로부터 전해진 유법이다. 태백일사(太白逸史) 4.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마한세가 상(馬韓世家上 참조)

정하였다^(*) 그리고 갑자(甲子)를 가지고 역서(曆書)를 만들었으며, 천체를 관측하는 감성관(監星官)으로 하여금 혼천기(渾天機)를 만들어 1주야에 걸친 하늘이 움직임을 관측케 하였고, 역시 감성관 황보덕(皇甫德)은 50년간 천문을 관측하고 북극성·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천명성(天明星)·해명은성(海明隱星)·명성(明星)이 돌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지구가 태양계의 하나이며 태양은 생물에 필요한 온도를 준다 하였고 기상변화를 발표하였다(5). 또 천문대를 쌓고 감성관을 두었다(10).

살수(薩水)상류에 조선공장(造船工場)을 세우고(4), 만국박람회를 평양에서 개최 하였으며 송화강 기슭에 기계공장(機械工廠)을 지어 각종기계를 만들었다. 그 발명품은 다음과 같다(11).

황룡선(黃龍船) · 양수기(揚水機)
자행륜차(自行輪車) · 경기구(輕氣救)
자발뇌차(自發雷車) · 천문경(天文鏡)
조담경(照膽鏡) · 구석편(驅石鞭)
자명종(自鳴鍾) · 경중누기(輕重漏器)
연적(涓滴) · 발뇌동용기(發雷動舂機)
소금(素琴) · 천리상응기(千里相應器)
목류마(木流馬) · 진천뢰(震天雷)
어풍승천기(御風昇天機) · 흙기잡수선

(吸氣潛水船) ·

측천기(測天機) · 양해기(量海機)
양청계(量晴計) · 측우기(測雨機)
측한계(測寒計) · 측서계(測暑計)
양우계(量雨計) · 측풍계(測風計)

이런 것들이 발명되어 이 시대에 크게 번창하였다(居漆夫小史에도 기록되어 있다). ”

후룡강에서는 금과 철 및 기름을 캐냈으며(15), 다나무 껍질로 종이를 만들고 칩껍질로 베를 짜서 옷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송화강에 조선공창(造船工廠)을 짓고指南차(指南車)와 목행마(木行馬)를 발명했다(19). 그후 공장을 보수하였다(23).

무기로는 유황발사총(硫黃發射銃)을 만들었다(33).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들었다(36). 그리고 화폐를 쇠를 부어 만들었으므로 주조술(鑄造術)도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문화 · 문교 · 출판 · 저술

단군조선 47대 동안에는 많은 문화업적을 쌓았다. 성전(聖殿) · 궁실(宮室) · 성(城) · 비(碑)를 건축하거나 축성하였다. 또한 정신문화의 창달은 더욱 눈부셨다. 연대별로 출판 · 저술 · 설립 · 도입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조조선 47대의 문화 · 문교 · 출판 저술표

저자 · 설립자	저서 · 저술 · 설립	역대	기타
신지(神誌)귀기(貴己)	구정도(邱井圖)	제2세단군 부루(扶婁) BC2229	기적도와 같음
을보록(乙普勒)	가림토(加臨土)	제3세단군 가록(嘉勒) BC2181	국문정음(國文正音)
태수관(太修官)고설(高契)	배달유기(倍達留記)	“ “	동양사학(東洋史學)의 원조 국사로서 임금의 가르침, 도덕, 정치, 법률 풍속이 속해있음
고소(高蘇)	국법전서(國法全書)	제9세단군 아술(阿述) BC1981	왕명에 따름
임금	태학관(太學館)설립	제12세단군 아한(阿漢) BC1805	선비를 뽑음
임금	법정학교(法政學校)설립	제13세단군 홀달(屹達) BC1763	
임금	국립대학(國立大學)설립	제14세단군 고불(古弗) BC1670	

고수노(高叟老)	정법원론(政法原論) 38권	제17세단군 여을(余乙)	BC1535	임금께바침
"	국사(國史) 18권	제18세단군 동엄(冬奄)		
임금	함문경(咸文經)	"	BC1465	임금이 사람을 보내 서장(西藏)에서 구해옴.
임금	국문서당(國文書堂) 설립	제9세단군 종년(縱年)	BC1433	백성을 가르침
목아득(目雅得)	우주원리론(宇宙原理論)	"	BC1385	
지이숙(支離叔)	주천역(周天曆)	"	BC1382	태양력(太陽曆)과 같음
	팔괘상중론(八卦相重論)	"	"	
임금	군관학교(軍官學校) 설립	제23세단군 아홀(阿忽)	BC1206	
조대원(趙代元)	정치원론(政治原論) 10권	제24세단군 연나(延那)	BC1152	
임금	의학원(醫學院) 설립	제26세단군 추로(鄒魯)	BC1024	
위문국(魏文國)	정치론(政治論) 28권	"	BC1005	
주태보(周太甫)	신주역서(新周易書) 13권	제30세단군 나휴(奈休)	BC882	내용은 태양태음설(太陽太陰說) · 현공설(顯空說) · 복서(卜書) · 천문설(天文說) · 지수설(地水說)임.
부분석(扶芬錫)	정법원리론(政法原理論)	"	BC880	
불명(不明)	복술서(卜術書)	제34세단군 오루문(奧婁門)	BC788	채(菜) 사람 을보천(乙普天)을 가지고 임경.
"	중화서적(中華書籍)	"	BC787	노(魯) 나라 문인(文人)인 공명지(孔明之)가 가지고 임조함.
"	하(夏) 은(殷) 나라 고서(古書)	제25세단군 사벌(沙伐)	BC772	제(齊) 나라 사람 누경(屨景)이 가지고 임경
"	신농의 약방(神農의藥方)	제35세단군 사벌(沙伐)	BC770	한(韓) 사람 주태후(周太侯)가 가지고 임조함.
"	천문학(天文學)	"	BC745	위(衛) 나라 사람 적인문(狄人文)이 가지고 임경
"	"	"	BC737	송(宋) 나라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임경함
채저명(菜著明)	정치형법서(政治刑法書)	제36조단군 매록(賣勒)	BC687	저술여부는 분명치 않음
오경박사(五經博士) 우문충(宇文忠)	유성설(遊星說)	"	BC680	토지를 측량하고 지도를 만듦
우세숙(虞世叔)	성리학(性理學)	"	BC675	
	심리학(心理學)	"	"	
손숙문(孫叔文)	의학(醫學)	"	BC650	
	화학(化學)	"	"	
불명(不明)	천문지리학(天文地理學)	제38세단군 다물(多勿)	BC556	진(晉) 나라 사람 김일선(金日善)이 가지고 조정에 옴
윤복지(尹卜地)	도덕경(道德經)	제40세단군 달음(達音)	BC507	
진개(秦開)	치국요람(治國要覽)	"	BC500	
공상의(孔尙義)	종교론(宗教論)	제41세단군 음차(音次)	BC488	
철인(哲人) 이일선(李一善)	천리경(天理經)	제42세단군 을우지(乙于支)	BC469	
백호돈	지리학(地理學)	"	BC467	지리학 광물학을 저술하고

"		광물학(鑛物學)	"	"	임금께 우리나라 안에는 가는 곳마다 지하에 황금이 있다고 하였다.
장자학(張子學)	설명학(說明學)	제43세단군 물리(勿理)	BC454		
최화덕(崔和德)	동물학(動物學)	제44세단군 구물(丘勿)	BC421		
	식물학(植物學)				
서백원(徐伯元)	사상의학(四象醫學)	"	BC416		
국학박사(國學博士)	백과서(百科書)	"	BC410		
황운원(黃雲元)					
유종득(柳宗得)	이재학(理財學)	"	BC408		
적우순(狄于順)	심리학(心理學)	"	BC405		
곽태원(郭太原)	양생론(養生論)	단군45세단군 여루(余婁)	BC385		
마자은(馬子隱)	이 기일 원론(理氣一元論)		BC382		
장소부(莊召夫)	의학대방(醫學大方)	"	BC369		
홍문선(洪文善)	태학조문(太學條文)	"	BC367		
조문휴(趙文休)	자본론(資本論)	"	BC357		
불명(不明)	예기(禮記)	"	BC355		노(魯)나라 학자 소문술(蘇文述)이 가지고 입조함.
불명(不明)	주역(周易)	"	BC352		노(魯)나라 사람 안사득(顔思得)이 가지고 입경
소정국(蘇定國)	건축학(建築學)	제47세단군 고열가(高列加)	BC274		
구노선(歐老先)	종수학(種樹學)	"	BC271		

(6) 의학·의료·약학·제약

신령(神靈)스러운 풀이라 하여 인삼(人蔘)을 선약(仙藥)으로 불렀으며 신선이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4).

반면에 술·음주는 성품을 상하게 하여 나쁘며(6), 궁액기(宮掖記)는 비록 우화(偶話)나 전설같은 이야기지만 독극물(毒極物)·독약·중독에 관한 지식을 표현하고 있다(37).

왕궁 동쪽에 좋은 샘(甘泉)이 솟았다(7)는 기록은 식수(食水) 및 생활용수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47대의 임금중 유일하게도 제5세 단군 구을(丘乙)만이 병사(病死)하였고, 다른 임금에 관한 것으로는 병이 나자 백의동자(白衣童子)에게 기도하게 하여 낳았다고 하였다(28). 흰 옷, 요즈음 흰까운과도 통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의학원(醫學院)을 설립(26)하였으며 순길(舜吉)이 장생불노단(長生不老丹)

이라는 약을 만들었던 것이다. 한(韓)나라 사람 주태후(周太侯)가 신농(神農)의 약방(藥方)을 가지고 왔는데(35), 서백원(徐伯元)이 태양·태음·소양·소음(太陽·太陰·小陽·小陰)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을 저술하였다(44). 그리고 단군 조선의 말엽에 장소부(莊召夫)가 의학대방(醫學大方)을 저술하였다.

(7) 의식주

이미 단군왕검은 황후에게 누에를 치고 베를 짜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권하여 무명·명주 옷을 입게 하였다. 또한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도록 하여 식생활에 영양을 고루 섭취토록 하였다.

그리고 산업을 일으켜 추위와 굶주림을 없앴고 베와 모시로 옷을 입게 하면서 머리를 깎고 푸른 옷을 입도록 하였다(2).

기후에 따라 여름에는 갈포 옷을 입고 겨울에는 털옷을 입었으며(5), 유위자(有爲子)가 임금에

게 “이미 환웅천왕은 신시 시대에 의관(衣冠)과 칼 차는 것을 아랫 사람들까지 즐겁게 본받았읍니다.”고 아뢴것을 보아(11) 이미 복장이 수립되어 의전(儀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8) 임금의 보통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하(夏)나라의 여러가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왔다(8)고 하여, 백성과 임금의 옷을 달랐던 것이 확실하다.

갈포 옷(5)과 칩겹질 옷(19)은 섬유직물의 원시·천연 상태임을 알수 있으나, 목면(木棉) 종자가 도입되었으므로(36) 이후의 의복·침구류의 변화가 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住居)에 대한 문제는 국방을 위한 성(城)의 축성(築城)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단(祭壇)·사당을 짓고 궁실(宮室)·공공건물의 신축·개축하였고 비·비문을 세웠기 때문에 토목·건축에 관한 공학적 기술의 발달해서 주택(住宅)도 꽤 발달된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단군조선(檀君朝鮮)의 치과의학

앞에서 요약한 바처럼 단군조선 2096년간(BC 2333~BC 238)의 치과의학을 추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다만 그 인접분야의 발달정도를 파악하고 당시의 정치·행정·외교·국방·농업·경제·과학·기술·문화·문교·출판·저술·의학·의료·약학·제약 분야를 참고하는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관련성·유사성·공통점·동일성·기타 따위를 끌어내는 도리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다¹⁰⁾¹¹⁾.

그래서 단군조선의 치과의학을 추리하는 방법을 택하여 다음처럼 기록하였다.

1. 단군8가(檀君八加)에서 병(病)을 주관하는 노가(鷲加)가 있었으므로 치과의학이나 치과치료에 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왜냐하면 인류의 병에는 구강병(口腔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료에도, 정부대신인 기성(奇省)으로 하여금 의약(醫藥)을 베풀었기 때문에 역시 치과의학이나 치과치료에 관하여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질병을 담당하는 행정. 또는 정부형태의 기구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상고시대의 의료제도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치아·구강계통의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업무도 있었을 것이다. 그 업무에는 보건행정과 시술·진료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뤄 졌을 것이다.

2. 도량형 실시·공학(토목·건축·금속·조선·기계·기구제작 포함)·천문학(측량·천체·관측·측우기 제작 포함)의 발달상태를 미루어 보고, 특히 조선술(造船術)이나 기계기구의 생산을 볼 때 공학적·기계적 수준은 제작은 물론 조작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더우기 화폐를 주조(鑄造)하였다는 사실은 배달(倍達)시대의 무기생산¹¹⁾과는 달라서 경제유통의 측면에서 볼 때 무척 발달된 경제·과학분야를 짐작하게도 한다.

주목되는 점은 주조물이 창이나 투구같은 병기(兵器)보다 훨씬 작은 엽전이라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작은 물체까지 주조하였다는 것은 요즘 치과보철학 분야의 보철물제작과도 그 유사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과재료학에서 금속 또는 금속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며, 일반 금속공학이나 수지공학(樹脂工學)의 발달은 곧 치과수복물 시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3. 임금이 병사(病死)하였고 또 후에는 임금의 병에 백의동자(白衣童子)가 기도하게 하여 병을 다스렸다 함에 있어서 흰 까운*¹⁾과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유사성이라 함은 동자(童

*¹⁾ gown.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여러 사람이 위생적으로 입는 겹옷. 이미 백의(白衣)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子)라거나 기도(祈禱)와 연관지을수도 있겠으나 흰 옷의 “흰”것과 “백색”에 관한 것이다. 그 색이 다양해지기 전에는 술자의 옷은 흰 색이었으며 예를 들어 간호원을 백의(白衣)의 천사(天使)라고 함도 우연은 아닌 것 같다.

4. 과학분야의 저술인 구정도(邱井圖)·우주원리론(宇宙原理論)·유성설(遊星說)·화학(化學)·지리학·광물학·동물학·식물학·양생론(養生論)·이기일원론(理氣一元論)·건축학·종수학(種樹學)은 치과의학내지는 치과관계 또는 치과의료와 근접한 저술의 가능성도 추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나라에 의학원(醫學院)을 설립하였고 신농(神農)의 약방(藥方)이 들어 오고 의학·사상의학(四象醫學)·의학대방(醫學大方)이란 책이 저술되었음은 치과의학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思考)를 더욱 높이고 있다.

6. 오늘날처럼, 그 약리작용과 성분의 약리적 효과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인삼은 즐겼으며, 술은 금했던 사실을 보아 이미 생약의 사용을 지나 제약기술도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생불로단(長生不老丹)을 만든 것은 그러한 심증을 더욱 굳히고 있다. 여기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식물(또는 동물·광물질)을 사용하여 치통이나 치아 질병에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리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환웅천왕의 배달(倍達)나라 시대에는 이미 삼(麻)을 사용하였고¹¹⁾, 단군조선시대에는 술(알콜)이 나돌고 있었으며 보신(補身)·보약(補藥)의 개념을 넘어 장수(長壽)하여야 하는 욕망에 인삼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삼(麻)도 그렇지만, 또 에텔(ether)은 아니지만 알콜도 마취진통의 효과를 얻는데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推理)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치과치료·치통제거에도 큰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결 론

저자는 단군조선(檀君朝鮮) 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하여 단기고사(檀奇古史)·규원사화(揆園史話)·환단고기(桓檀古記)·단군조선 47대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단군조선(檀君朝鮮)시대에 있어서 치과질환을 치료했다거나 받았다는 치과의학에 관한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다.

2. 인접학문 즉 과학은 물론 의학적저술이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치과의학에 관한 기재나 서술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었거나 또는 별개의 저술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3. 의학원(醫學院)은 진료소라기 보다는 의과대학이거나 의학강좌를 하는 기관으로 보아 치과질환에 관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추측되어진다.

4. 단군왕검(檀君王儉)때부터 8가(八加)를 두었고 그 중에 노가(驚加)가 병(病)을 담당하는 대신(大臣)이 있었으므로 전신질환과 함께 치과질환의 예방·처치·행정적관리를 포함한 통솔이 있었음이 확실할 것이다. 따라서 치과질환담당부처도 이 노가(驚加)의 지휘를 받거나 아니면 노가(驚加)의 업무중 한 부분이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5. 바라건대, 확립된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치과의학에 관한 검토가 되었으면 한다.

11. 이 논술은, 국내의 몇 인접국에 있을지도 모르는 확실한 문헌이 출현하던가 또는 유물이 발굴되면, 내용은 더욱 보강 되거나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¹⁰⁾¹¹⁾.

참고문헌

1. 李丙燾: 檀君은 神話아닌 우리 國祖, 朝鮮日報, 1986년 10월9일 5면.
2. 大野勳, 檀奇古史, 天統(天統) 31년3월(AD 729)

3. 대야발 저, 고동영 역; 단기고사, 훈뿌리, 1986.
4. 桂延壽; 桓檀古記, 神市周天 5808年 光武 15年 5日(사본).
5. 계연수 편저, 이민수 역; 환단고기, 훈뿌리, 1986.
6. 北厓; 揆園史話, 朝鮮肅宗 元年 乙卯, 1675, 3(영인본).
7. 북애 저, 고동영 역; 규원사화, 훈뿌리, 1986.
8. 金敎獻 著, 高東永 譯; 神檀民史, 훈뿌리, 1986.
9. 고동영; 단군조선 47대, 훈뿌리, 1986.
10. 李丙台; 桓國과 桓國時代의 齒科醫學에 관한 文獻考察, 齒醫新報 447(1987년 6월6일)448 · 449 · 450 · 451 · 452 · 453 · 454 · 456 · 457 · 458 호(1987년 8월22일).
11. 李丙台; 배달(倍達)나라, 환웅천왕(桓雄天王)시대의 치과의학에 관한 문헌고찰,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8券1號, 1987.
12. 金官興; 韓國 齒科醫學 發祥에 關한 考察,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4券 第1號, 1983.
13. 金知浩; 韓國의 神市 · 古朝鮮時代 齒科醫術에 關한 考察,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4券 第1號, 1983.
14. 李漢水; 韓國上世齒科醫學史, 大韓齒科醫史學會誌, 第8券 第1號, 1987.
15.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上),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7.

齒科界團體活動 (5) (1937, 1938年)

辛 在 義*

1937년에는 朝鮮齒科醫學會 및 京城齒科醫學會의總會 및 講演會가 准戰時의 非常時局에 직면하고 있는 관계로 兩學會의 役員會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1937년에 한해서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전회원에게 연락하였다. 이로써 京城府 長谷川町의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講堂에서 9월 23일, 24일 特別講演者와 演題까지 정하여서 개최하려던 朝鮮齒科醫學會와 京城齒科醫學會의總會 및 講演會는 취소되었다.

中國北部 및 上海方面에 戰爭으로 인하여 軍事後援聯盟이 組織됨에 따라 朝鮮聯合齒科醫師會는 朝鮮軍事後援聯盟에, 또한 京城齒科醫師會 및 漢城齒科醫師會는 京城府軍事後援聯盟에 加盟하게 되었다.

1937年 8월 28일에 朝鮮聯合齒科醫師會會長 大澤義誠이 각 지역 齒科醫師會會長 앞으로 보낸 公文에서 軍人家族의 診療에 대한 協調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 京城齒科醫師會의 決定事項은 다음과 같았다.

1. 出征軍人家族診療에 관한 件

出征軍人家族에 대해서는 藥價 및 治療費는 半額으로 한다(단, 곤궁한 자로써 헌병대, 경찰관서, 재향군인회, 京城府 및 町總代 등 증명서가 있는 것에 한해서 무료로 한다).

2. 會員 出征者에 對한 件

① 會員出征에는 전별을 위하여서 입영 또는 出發시각을 會員에게 통지하여 많은 사람이 전송하게 할 것.

② 會員 出征中에는 會費는 면제하는 일.

③ 會員 出征中에는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하여 회원 일동의 협력으로 후원하는 일.

3. 恤兵金의 件

以上과 같은 案件이 可決되었다.

1937年 2月22日 午後 6時 30分에는 京城齒科醫學會 京城支部 第一回 例會가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講堂에서 開催되었다.

그 演題는 다음과 같았다.

1. 散在性に 潰瘍狀シ呈セル症例 — 牧山正文

1. 灣州視察談 — 柳樂達見

1. 齒科醫學に關する改正セラタレル解剖學用語ニ就テ — 津崎孝道

1. 熱河及び北支旅行雜觀(映畫ト講演) — 杉山德行

1. 京城史談 — 朝鮮總督府 加藤灌覺

1937年 9月2日 京城齒科專門學校 會議室에서 京城齒科醫學會 京城支部 例會가 다음과 같은 演題로 開催되었다.

1. 重篤ナソツ下顎骨骨髓炎ノ一例に就テ — 牧山正夫

2. 下顎片側義齒ノ一例症 — 弘田精一

3. 新製品「アナトノム」倒齒に就テ — 松風陶齒製造會社長 松風憲二

4. 「ハラチエノームS」に就テ — 松風憲二

1937年 12月2日 京城齒科專門學校 會議室에서 개최된 京城齒科醫學會 京城支部 例會의 演題는 다음과 같았다.

1. 小兒に見マル外傷性 齒牙脫舊並びに陷入齒ノ 治驗例に就テ — 度邊降

2. 齒例不正ノ 治驗例に就テ — 森哲郎

* 辛在義齒科醫院長

3. 片側義齒治驗例に就テ — 弘田精一

4. 文獻ノ書キ方に就テノ一私案 — 津崎孝道

1937年 3月22日에는 朝鮮齒科醫師會의 役員會가 雅敘園에서 開催되어 生田信保會長과 多數 役員이 參席하여 總會 및 特別講演者에 對하여 協議하고 同會 京城支部長에 廣瀬清을 選任하였다.

1937年 3月25日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會議室에서 京城府齒科醫師會 總會가 開催되었는데 庶務 및 會計 報告後에 新年度 豫算案을 審議 議決하고 다음과 같이 新役員을 選出하였다.

會 長 大澤義誠

副會長 河內一宗

評議員 滿田操, 瓜田杏四郎, 齊藤鶴雄, 佐野捨吉, 外圭三, 堀之内哲夫, 笠原完 利根川清治郎, 廣瀬文質, 荒木靜夫. 渡邊勇次郎, 上野孝, 提喜代上.

1937年 11月16日 午後7時에는 京城府齒科醫師會 總會가 南大門 근처 福德無盡株式會社內에서 다음과 같은 議案으로 開催되었다.

1. 京城府齒科醫師會救護班(防護團)組織의 件

① 救護班規 制定의 件

② 役員割當의 件

2. 會旗制定의 件

1937年 3月21日 午後1時에는 釜山府齒科醫師會의 第16回 定期總會가 松島料亭에서 會員 30餘命이 參加해서 開催되었다.

1937年 1月21日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의 教職員의 新年宴會가 開催되었다. 柳樂達見 校長의 九州地方出張으로 延期되었었다. 午後 5時 雅敘園에서 教職員 및 關係者 40餘命이 婦人同伴으로 부드러운 모임이 되었다.

1937年 1月17日에는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를 背景으로 한 京城齒科醫學會는 금년 봄을 期하여 全國的인 機能을 發揮하기 爲하여 第一次로 釜山에 同會의 支部를 設立計劃으로 釜山 東萊에서 同會會長 柳樂達見과 釜山齒科界의 元老 高橋貞一 등의 노력으로 4月頃에 發會式을 開催할 豫定이라 한다.

1937年 4月18日 午前 11時에는 京城齒科醫學會 釜山 支部가 發會式을 釜山商工會議所 會議室에서 舉行하였다.

記念講演은 다음과 같았다.

1. 局部義齒(片側義齒)의 設計に就て — 釜山 · 井上 士

2. 舊齒部低位咬合時の義齒調製法 — 京城 · 弘田 精一

3. 金代用合金に關する二三の問題に於て — 京城 · 酒井 好一, 垣見 庸三

4. 齒科領域に於ける藥物の合理的 使用法に就て京城 · 矢尾 太郎

1937年 3月에는 當時 統營邑內에서 開業하고 있는 6名의 齒科醫師가 統營齒科醫師會를 設立하고 同時에 朝鮮聯合齒科醫師會에 入會를 申請하였다.

1937年 11月6日에는 群山齒科醫師會 總會가 開催되어서 議案을 協議하고 朝鮮聯合齒科醫師 入會者를 報告하였다.

1938年 9月25日 朝鮮齒科醫師會 第17回 學術講演은 總29演題中 韓國人은 孫洪兌, 李迥株, 韓宅東, 高義龍, 趙昊衍, 許洙, 李聖民, 趙毅錫, 裴珍極, 鄭用國, 10人이 11個의 演題를 發表하였으며, 그 目錄은 다음과 같았다.

1. 麻醉劑を 含有させる「アルセにツクハマタ」の一處方に就テ — 潘泰收

2. 「エフونس」の一例に就テ — 金村 汎

3. 齒齦腫の三例 — 孫洪兌

4. 癩患者齒牙の病理組織 — 平下 證

5. 先天齒の一例に就テ — 今村 汎

6. 長先根を有せる先天齒の一例 — 李迥柱

7. gerison의 臨床의 效果に就テ — 韓宅東 高義龍

8. 弗貨Na 過剰投與のラット及びモルモットの齒牙並に其支持組織に及ぼす影響に就テ — 趙昊衍

9. 顔面神經癱瘓の一例に就テ — 許 洙, 高義龍

10. 乳齒癒合齒に就テ — 今村 汎

11. 平安北道に發生せる齒牙形成障礙症の一例
— 李聖民
12. 齒牙臨床に遭遇せる內科的 處置に就て(特)
— 野板 助教
13. 戰傷による陣舊成 下顎骨 部分的缺損症の
齒科的補綴處置の一例 — 大久保光雄
14. 下顎過剩齒に就テ — 今村 汎
15. 下顎骨折入例の治驗に就テ — 北野幸雄
16. 急性化膿性齒牙炎に就テ — 趙毅錫
17. 蒙古人に就テ(特) — 鈴木 助教緩
18. 小兒糖尿病者に於女子齒牙の肉眼的所見 —
大脇 博人
19. 畸形齒の四例に就テ
20. 弗化Na過剩投與胎兒及び乳兒の齒牙に及ぼ
す影響に就テ — 趙昊衍
21. 下顎法齶腫の一例 — 松本一男
22. 排尿管結紮の拔齒創治癒機轉に及ぼす影響
— 北野幸雄, 大崎信夫
23. 尿素過剩投與の齒牙及び其支持組織に及ぼ
す影響に就テ — 大脇博人
24. 癲患者口腔の臨床的 觀察に就テ — 平下 證
25. 口腔粘膜に及ぼす光力學的 作用 と綱狀内
皮細胞系統との 關係(第四報告)肝臟機能障
碍に見る體內性光力學的 物質とR^E, S,との
關係 — 裴珍極
26. 過満掩酸化里毒の齒牙及ふ 其支技組織に及
ぼす影響に就テの 實驗的研究 — 黒木馨, 鄭
用國
27. 齒髓の生物學籍機能の研究(第一回), 器械
的刺戟を變へたる齒髓の態度 — 大脇博人
28. 上顎骨切除後の 治科補綴の處置例 — 李迥
柱
29. 補綴學上ちソ觀左る孤立齒に就テ(特) — 矢
崎 教授

1938年 9月24日 京城齒科醫師會 第6回 學術講
演會는 總37演題中 韓國人은 朴明鎮, 李有慶, 安
正治 3人이 5個의 演題를 發表하였는데, 그 題目
은 다음과 같았다.

1. 若年者に於號再發 珙瑯腫の二例に就て — 安
村 英郎
2. 直接拔髓時に於ける 齒根膜炎並發の觀察 —
堀茂羅鐘榮
3. 齒齦肥大の二例に就テ — 岸龍太郎
4. 齒牙位置の一置換例に就テ — 新屋 健兒
5. 根管充填の到達率に對する考察 — 川越昭夫,
守部降一
6. 各種合金の 芯接部に於ける組織的觀察 — 岡
田 正 中村正二
7. 六才の男兒に於ける金摘出 下顎骨及び其補
綴裝置の 供覽 — 恒見庸三, 出村正人, 竹
利一
8. 李邦產 無尾且の 齒に就テ — 西山幸男, 德
丸定樹
9. 興味ある齒牙の位置異常及びひの不正咬合を有
する頭蓋骨の數例に就テ — 森山邦松
10. 家兎齒髓に電氣的刺戟を賦與したる際の血
清酵素力價の變化に就テ — 廣江達雄
11. エフエトリンに關する 生化學的並に藥理學的
研究
第一「エフエトリン」の家兎齒髓 興奮に及ぼす
影響に就テ
第二家兎齒髓興奮に及ぼす二, 三局所麻酔藥
の影響並に是等藥物と「エフエトリン」, との 瓶
用作用 — 杉原卓
12. 二三局所麻酔藥の運動神經纖維刺戟閾價に
及ぼす「エフエトリン」の影響特にアトシナリとの
比較に就テ — 朴明鎮
13. 毀損齒牙の萌出に關する實驗的研究 — 森哲
朗
14. 齒科用合金の調査成績に就テ — 竹中正夫,
山上一香
15. 時局と齒科材料に就テ
16. 臨床上總義齒の 陶齒排列時主義ちハキ二,
三の事項に就テ — 弘田精一, 竹俣一
17. 稀有なる症候玄程たる下顎癌腫の一症例に
就テ — 牧山正文

18. 一患者に18加のJacket Crownを装着せる一症例に就テ — 李有慶
 19. 凝固蛋白透明反應ちソ 觀たる二, 三揮發遊類の比較に就テ — 住友武久, 矢尾太郎
 20. 凝固蛋白透明反應ちソ觀 Benzole及誘導體の比較に就テ — 住友武久, 矢尾太郎
 21. 凝固蛋白透明反應所謂象牙質素毒藥の比較に就テ — 住友武久 矢尾太郎
 22. 口腔に裝置する金屬間に惹起せうするGalvanismus に就テの實驗的研究 — 岡田正, 中村正二
 23. 所爲齒科用 合金を使用たる爲に發生せると思はる二, 三の全身疾患に就テ — 弘田清一, 安正造
 24. 癒合齒の四例に就テ — 今村汎, 新屋健兒
 25. 家兎牙珥髓の細胞性に就テ — 西山幸男, 牧山正夫
 26. 毒瓦斯の防護 — 局地直次
 27. 癩患者齒牙の病里 — 平下 證
 28. 骨樣質の稀有なる異所性に就テ — 西山幸男, 稻天英一
 29. Benzole及び其誘導體の運動神經纖維に及ぼす影響に就テ第二報 フェノールの類 — 朴明鎮
 30. カルヒトールの二, 三藥里學的實驗に就テ — 山上一香, 朴明鎮
 31. 乳齒晚期存在のナ例に就テ — 今村汎
 32. 感作ケフスワリチソ注射家兎齒髓興奮並に體温上昇に及ぼす 鎮靜藥の影響に就テ — 堀武
 33. 亞磷酸貼布一ヶ月後に於ける家兎齒牙並に肝臟中の砒素量に就テ
 34. 家兎齒牙の亞磷酸貼布時に於ける砒素の唾液中排池に就テ — 恒貝庸三
 35. 局部義齒に關する二三の考察(特) — 長尾愚
- 1938年 8月4日 午後8時부터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講堂에서 京城齒科醫學會 京城支會例會가 다음과 같은 演題로 例年과 같이 開催되었다.

1. 簡易ナル人工破ノ製造法 — 中村正二

2. 窩洞ノ乾濕カ 齒髓ノ知覺ニ及ホス影響ニ關スル實驗的研究 — 住友武久
3. 所謂珥瑯細ノ出現狀態ニ就テ — 德丸定樹
4. 高度ノ象牙質吸收ヲ伴ハル陣舊性側技性齒根肉牙腫ノ病理組織的所見 — 堀武
5. 戰時體制下ニ於ケル齒科醫ノ覺悟 — 柳樂達見

특히 戰時體制下에서의 齒科醫의 覺悟는 當時의 時代相을 反映하는 것이라 하겠다.

1938年度에 있어서의 朝鮮總督府 齒科醫師試驗施行(告示 第57號)는 다음과 같았다.

1. 試驗期日 — 10月3日부터 開始
 2. 願書締切 — 8月31日까지
 3. 試驗場所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
 4. 提出書類 — (醫師試驗提出書類와 同様)試驗願書, 履歷書, 警察置長 府尹面長 市區町村長 또는 以에 準하는 身分證明, 資格證明書, 第二, 三部를 받은 者는 前部試驗와 合格證書寫本, 合格科目證明書를 갖고 있는 者는 그 寫本과 最近 撮影한 寫眞
 5. 願書提出官廳 — 朝鮮總督府警務局 衛生課
- 1938年度에 滿鮮之齒界에서 主催한 朝鮮齒科醫師試驗講演會는 다음과 같이 施行되었는데, 그 內容에는 試驗科目과 그 準備狀態를 알 수 있었다.

1. 開催時間 — 自9月18日 至9月28日11日間 毎日 午前8時부터 午後5時까지
2. 場所 — 京城府 南大門通 二町目 千代田빌딩 앞(朝鮮總督府 圖書館大講堂)
3. 入會金 — 金參圓의 受講料 一科目에 金壹圓
4. 申込期日 — 9月18日까지
5. 申込場所 — 京城府 大和町二丁目(滿鮮之齒界社 講習所)

◎ 擔任講師

1. 解剖學

一般解剖學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教授 齒科醫師 桑山邦松先生

齒科解剖學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教授 醫

學博士 西山幸男先生

2. 生理學 — 京城帝國大學醫學部 生理學教室
講師 醫學博士 李甲洙先生

3. 病理學
一般病理學 — 京城帝國大學醫學部齒科 京城
齒科醫學士 楠國雄先生

齒科病理學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教授 醫
學博士 西山幸男先生

4. 藥物學 — 京城醫學專門學校助教授 醫學博士
廣瀨清先生

5. 口腔外科學 — 京城帝國大學醫學部齒科 齒
科醫師 增田二郎先生

6. 治術學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教授 日本
齒科醫學士 堀 式先生

7. 技工學

義齒學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教授 醫學博
士 岡田正先生

繼續加工學 —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教授 醫
學博士 弘田精一先生

◎ 特別講演

1. 受験에 대한主義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長 醫學博士 柳樂達見
先生

1938年 7月23日には 京城齒科學校의 全生徒가
學生勤勞報國隊로써 여름휴가 기간에 在城學生
全部가 校長 柳樂達見과 教授等の 引率로 龍山陸
軍病院에서 運動場 新設工事 및 庭園清掃에 動員
되었다.

東醫寶鑑 牙齒門 考察

裴 珖 植 *

I. 序 論

현재 우리나라 치과분야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시술하는 치과의학은 개화기에 전래되어 들어온 서양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서양의학이 전래되기 전에도 치과질환은 있었으며 치과질환의 치료법이 있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이 모든 문화는 흘러오고 흘러가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변화된다. 쇄국의 독을 뚫고 넘쳐들던 서구문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지니온 전통문화의 우수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잊혀져 가던 우리 문물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사상과 문화의 한계에 부딪친 서양이 오히려 동양의 문화에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치과분야에서도 한의학에서 치과질환을 어떻게 다루었나를 살펴보면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한의학의 집대성이며 귀감인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 치과질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外形篇 卷之二”의 “口舌門”과 “牙齒門”이 치과질환 및 치료법을 다룬 부분이다. “口舌門”은 주로 口腔內 軟組織 질환을 다루었고, “牙齒門”은 치아와 치주조직의 질환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口舌門”을 제외하고 “牙齒門”의 내용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漢醫學에서 본 齒牙

“齒者骨之餘腎主營養呼吸之門戶也(得效)”

“이는 뼈의 나머지이니 콩팥이 영양을 맡고 호흡하는 문호가 되는 것이다.”

“齒者骨之所終髓之所養腎實主之故經云腎衰則齒豁精盛則齒堅虛熱則齒動(直指)”

“이는 뼈의 끝인바 골수의 기르는 바이고, 콩팥이 주관하는고로 경에 이르기를 ‘콩팥이 쇠약하면 이가 듚성듬성하고 精이 왕성하면 이가 견고하고 虛熱하면 이가 흔들리는 법이다.’”

위의 인용에서 치아가 악골 속에 매식되어 있고, 치수(齒髓)가 골수(骨髓)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방에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腎은 정력의 근원이 되는 기관을 말하며 부신 및 내분비계통 전체를 말하는 듯하다.

“牙齒是手足陽明脈之所過上齧隸於坤土乃足陽明胃之所貫絡也止而不動下齧嚼物動而不休手陽明大腸之脈所貫絡也(東垣)”

“치아는 수족양명맥의 경과하는 곳이니 上齧(윗턱)은 坤土에 속하며 족양명위맥이 관통하여 지나가는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下齧(아랫턱)은 물건을 씹으면 쉬지 않고 움직이며 수양명대장맥이 지나가는 곳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齧은 문맥상 잇몸이 아니고 턱을 가리키는 듯하며, 고정된 상악에 하악이 운동을 해 저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표현하였다. 또 한방에서는 氣가 몸을 運行하여 生을 유지시키며 모든 병과 통증이 氣의 부조화에서 온다고 하는데, 모든 氣가 운행하는 길을 통틀어 一脈이라고 하고, 一脈을 12經으로 분류하는데, 手三陽, 手三陰, 足三陽, 足三陰이 그것이다. 이때 節이 교차하는 곳이 365會가 되니 節이란 氣가 遊

* 서울 裴珖植齒科醫院長

行出入하는 곳이다. 각 經마다 침과 뜸을 뜸 수 있는 곳을 穴이라 한다. 手三陽은 手陽明大腸經, 手太陰小腸經, 手少陽三焦經을 말하고, 手三陰은 手太陰肺經, 手少陰心經, 手厥陰心包經을 말하고, 足三陽은 足陽明胃經, 足太陰脾經, 足少陽膽經을 말하며, 足三陰은 足太陰脾經, 足少陰腎經, 足厥陰肝經을 말한다. 즉 手와 足에 陽明, 太陰, 少陽, 厥陰, 太陰, 少陰을 배합해 12經이 되며, 각 陰經은 陰에 속한 五臟(肝, 心, 脾, 肺, 腎) 및 心包中 하나씩을 지나가고 각 陽經은 陽에 속한 六腑(膽, 胃, 大腸, 小腸, 膀胱, 三焦) 중 하나씩을 지나가며, 그 외에 몸 앞부분의 正中央을 지나가는 任脈經과 몸 뒷부분의 正中央을 지나가는 督脈經이 있다. 이중 상악은 足陽明胃脈이 지나가는 곳이고, 하악은 手陽明大腸經이 지나가는 곳이다.

“內經曰女子七歲腎氣盛齒更髮長三七腎氣平均故眞牙生而長極丈夫八歲腎氣實髮長齒更三八腎氣平均故眞牙生而長極五八腎氣衰髮墮齒枯八八則齒髮去去謂落也。兒生八月板齒始生眞牙謂牙床窮處最後生者也(類聚)”

“내경에 가로되 ‘여자는 7세에 腎氣가 왕성하여 이를 갈고 머리털이 길어지고 21세에 腎氣가 고르게 되므로 眞牙가 나서 다 길어지고, 남자는 8세에 腎氣가 實하고 머리털이 길어지고 이를 갈며 24세에 腎氣가 고르게 되어 眞牙가 나서 다 길어지고 40세에 腎氣가 衰하며 털이 빠지고 이가 마르며 64세에 이와 머리털이 간다’고 하였으니 간다는 것은 빠진다는 의미이다. 아이가 난지 8개월만에 板齒가 비로소 나는 것이며 眞牙란 것은 牙床의 끝에 最後에 나는 것이다.”

“口前兩大齒謂之板齒其兩傍長者謂之牙通謂之齒其牙齒之根謂之齦亦曰牙床(類聚)”

“입앞의 兩大齒를 板齒라 하고 그 兩傍의 긴 것을 牙 또는 牙齒라 하고 그 치아들의 뿌리가 박힌 부분을 齦 또는 牙床이라 한다.”

위의 두 인용문에서 4前齒를 板齒라 하고, 견치를 牙라 하고, 사랑니를 眞牙라고 하며, 齒槽

骨 또는 齒槽隆線(alveolar ridge)을 齦 또는 牙床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7~8세부터 유치를 영구치로 교환하기 시작하여 21~24세에 사랑니 出齦이 완성된다는 것과, 出生 약 8개월 만에 門齒(板齒)가 출은한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

Ⅲ. 漢醫學에서 본 齒牙 및 齒周疾患

“熱牙痛怕冷水冷牙疼怕熱水不怕令熱乃風牙痛(入門)”

“열아통은 찬물을 두려워하고 냉아통은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며 풍아통은 찬물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의 인용에서 齒痛을 감별 진단한 것을 알 수 있으며 熱牙痛은 지금의 급성장액성치수염(Acute serous pulpitis), 冷牙痛은 지금의 급성화농성치수염(acute suppurative pulpitis)에 해당하며, 風牙痛은 만성질환으로서 치수괴사 및 치근단병소를 말한 듯하다.

“齒痛有風熱風冷熱痛寒痛毒痰瘀血蟲蝕”

“齒痛에는 風熱痛, 風冷痛, 熱痛, 寒痛, 毒痰痛, 瘀血痛, 蟲蝕痛의 7가지가 있다.”

“風熱者外風與內熱相搏齒齦腫痛膿汁臭穢”

“風熱이란 것은 外風이 內熱과 서로 부딪쳐 잇몸이 붓고 아프며 고름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이다.”

“風冷者齒齦不腫不蛀日漸動搖”

“風冷이란 것은 잇몸이 붓지도 않고 벌레먹은 것도 아닌데 날이 갈수록 이가 흔들리는 것이다.”

“熱痛者腸胃積熱齒齦腫爛口氣臭穢”

“熱痛이란 것은 腸胃가 積熱(입속 허물이 버거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변비증이 생기다가 몸에 부스럼이 나는 병)하고 잇몸이 붓고 벗어지며 입 냄새가 심하다.”

“寒痛：客寒犯腦頭連齒痛”

“寒痛：客寒(客症으로 인하여 나는 惡寒)이 뇌를 침범하면 머리와 이가連해서 아프다.”

“毒痰痛：熱則生痰毒氣上攻灌注經絡最能發痛

外症痰盛咳唾”

“毒痰痛：熱하면 痰이 나고 毒氣가 上攻 하여 經絡에 流注하면 가장 發痛이 甚하며 外症은 痰이 盛하고 咳唾한다.”

“蟲蝕痛：凡人飲食不能潔齒腐臭之氣淹漬日久 齒齦有孔虫蝕其間蝕一齒盡又度其餘至如疳^瘡皆其 種類 必殺虫而後痛止(直指)”

“무릇 사람이 마시고 먹은 후 이를 깨끗이 하지 않으면 썩은 氣가 오래 남아 날이 오래됨에 따라서 齒齦에 구멍이 생기고 그 사이를 먹어 한 개를 다 먹으면 그 나머지를 먹는데, 疳^瘡과 같은 症이 다 그 종류로서 반드시 벌레를 죽여야 아픔이 멎는다.”

“瘀血痛：風熱挾攻齦間冷血出瘀滯不消掣痛鑽刺”

“어혈통：風熱이 齦間을 협공하여 피가 멎으로 맺혀 사라지지 않고 침으로 찌르듯이 아프다.”

齒痛을 7종류로 분류하였는데 風熱痛은 齒槽膿瘍, 風冷痛은 齒周疾患, 熱痛은 acute 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 寒痛 및 毒痰痛은 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관련통으로서의 齒痛, 蟲蝕痛은 치아우식 등이 치수를 침범하여 일어나는 齒痛, 瘀血痛은 치조농양이 화농되기 전 단계를 각각 말하는 듯하다.

기타 치아가 솟는다(牙齒漸長)든가, 外傷으로 인한 치아탈구(鬨齒), gingival polyp(齒瘻), bruxism(齧齒)에 대한 언급이 있다.

IV. 齒牙 및 齒周疾患을 다스리는 漢藥

1. 찬 것을 즐기고 뜨거운 것을 싫어하는 上齒痛에 涼膈散을 쓴다.

※ 涼膈散 處方：連翹二錢, 大黃, 芒硝(질산칼륨), 甘草 各 一錢, 薄荷, 黃芩, 梔子 各 5分을 썰어 한 첩으로 만들어 靑竹葉 七片, 꿀 조금을 넣고 같이 다려 양이 반으로 줄면 硝(질산칼륨)를 넣고 去滓(찌꺼기를 제거)하여 먹는다.

2. 상악치아가 아프면 細辛湯을 쓰고 하악치아

가 아프면 白芷湯을 쓴다.

※ 細辛湯 處方：細辛一錢半, 蔓荊子, 鼠粘子 各 一錢, 升麻, 黃連, 防己 各 7分, 黃柏, 知母 並酒炒 各 5分, 薄荷 3分, 華撥 1分을 물에 다려 마신다.

※ 白芷湯 處方：防風, 荊介, 連翹, 白芷, 薄荷, 赤芍藥, 石膏 各 一錢을 물에 다려 마신다.

3. 치아가 아파 견디지 못하고 찬 것을 약간 싫어하고 뜨거운 것을 매우 싫어하는 症은 立效散을 쓴다.

※ 立效散 處方：草龍膽酒洗 3錢, 防風 1錢, 升麻 7分, 甘草炙 5分, 細辛 3分을 썰어 한 첩을 만들어 물에 다려 찌꺼기를 제거하고 숟가락 끝을 입 안에 넣어 아픈 곳을 집적거리고 머금으면 조금 지난 뒤에 곧 그친다. 만일 뜨거운 것을 많이 싫어하면 草龍膽 1錢을 더한다.

4. 風熱痛은 犀角升麻湯과 荊芥湯으로써 含漱(gargle)한다.

※ 犀角升麻湯 處方：犀角 1錢半, 升麻, 羌活, 防風, 各 1錢, 川芎, 白附子, 白芷, 黃芩, 甘草 各 5分을 물에 따라 食後 자기 전에 各 1服한다.

※ 荊芥湯 處方：荊芥, 薄荷, 升麻, 細辛 各 3錢을 가루로 만들어서 每二錢을 沸湯으로 含漱하고 吐한다.

5. 風冷痛에는 溫風散에 검해 開笑散으로 양치한다.

※ 溫風散 處方：當歸, 川芎, 細辛, 白芷, 華撥, 藁本, 露蜂房 各 1錢을 물에 다려 마시며, 또 含漱하고 鬻는다.

※ 開笑散 處方：白芷, 細辛, 良薑, 華撥, 川椒, 香附子, 露蜂房을 名 等分 가루로 만들어 每 3錢을 물에 다려 含漱하고 혹은 문지른다.

6. 熱痛에는 涼膈散에 知母, 石膏, 升麻를 가해 佐로 삼고 酒蒸大黃으로 君을 삼아 嚙嚙하면 곧 낫는다. 또 當歸龍膽散을 쓰고 調胃承氣湯에 黃連을 가해 쓴다.

清胃散, 瀉胃湯, 滋陰清胃丸을 쓴다.

또 鹹鬼散으로 아픈 치아를 문지르면 즉효한다.

※ 當歸龍膽散 處方：升麻，麻黃，草龍膽，黃連，草豆蔻 각 1錢，生地黃，白芷，當歸梢，羊脛骨灰 각 5분을 가루로 만들어 문지른다.

※ 調胃承氣湯 處方：大黃 4錢，芒硝 2錢，甘草 1錢을 썰어 한 첩으로 해 먼저 대황과 감초를 다려서 반쯤 되면 찌끼를 제거하고芒硝를 넣어 다시 한 번 끓여서 溫服한다. 大黃은 熱을 씻고芒硝는 燥를 潤하게 하고 堅을 軟하게 하며 甘草는 中和한다.

※ 清胃散 處方：(胃熱로 인해 상하치가 모두 아파 견디지 못하고 頭腦를 牽引하고 얼굴에 熱이 나서 冷을 즐겨하고 熱을 싫어하는 症을 다스린다) 升麻 2錢，牡丹皮 1錢半，當歸，生地黃，黃連 각 1錢을 물에 다려 약간 차게 해 마신다.

※ 瀉胃湯 處方：當歸，川芎，赤芍藥，生地黃，黃連，牡丹皮，梔子，防風，荊芥，薄荷，甘草 각 1錢을 물에 다려 마신다.

※ 滋陰清胃丸 處方：(상하의 牙床이 腫痛紅爛하고 잇몸이 萎縮하고 이뿌리가 드러나는데 쓴다) 石膏 煨醋淬한 兩，當歸，生地黃並酒洗，梔子鹽水炒，牡丹皮 각 한 兩，黃連酒炒，知母，葛根，防風，各 7錢，升麻，白芷 각 5錢，生甘草節 4錢을 가루로 만들어 찌꺼기에 섞어 녹두 크기만한 丸을 만들어 미음에 100丸 吞下한다.

鹹鬼散(픽귀산) 處方：黃連，胡桐淚，荊芥穗，薄荷，升麻，羊脛骨灰를 等分하고 麝香을 조금 넣어 가루로 만들어 문지르면 神妙하다.

7. 寒痛에는 羌活附子湯，蝎梢散，細辛散을 쓰고 冷症齒痛에는 香椒散을 쓰며 寒熱에 다 아픈 症은 寒熱痛이라 하는 症이니 當歸龍膽散을 쓴다.

※ 羌活附子湯 處方：麻黃，附子，防風，白芷，白 蠶炒 각 1錢，黃柏，羌活，蒼朮 각 7分，黃芪，升麻，甘草灸 각 5分을 썰어 한 첩으로 해 물에 다려 食後 服한다.

※ 蝎梢散 處方：羊脛骨灰 2錢半，麻黃 1錢半，草豆蔻皮 1錢，羌活 5分，桂皮，升麻，防風，藁

本，黃芪 각 3分，白芷，當歸身，柴胡 각 2分，全蝎梢조금을 作末하여 牙上에 문지른다.

※ 細辛散 處方：麻黃 3錢，桂枝，羊脛骨灰 각 2錢半，羌活，草豆蔻 각 1錢半，當歸 4分，藁本，蒼朮 각 3分，防風，柴胡，升麻，白芷 각 2分，細辛 1分을 作末하여 먼저 溫水로 양치하고 약을 바른다.

※ 香椒散 處方：香附子，川椒，破故紙 각 2錢，萆撥 1錢을 作末하고 炒鹽 2錢을 넣어 牙上에 문지른다.

8. 毒痰痛에는 二陳湯에 細辛，枳殼，生薑，大棗，烏梅를 加하여 다려 먹고 薑黃，萆撥을 等分煎湯하여 따뜻한 때에 혀를 湯 內에 담그면 침이 흐르고 즉효한다.

※ 二陳湯 處方：半夏製 2錢，橘皮，赤茯苓 각 1錢，甘草灸 5分，薑 3片에 入하여 물에 다려 마신다.

9. 蟲蝕痛에는 玉池散，一笑散，椒鹽散，蜂窠散，定痛散을 쓰고 겸하여 取牙蟲法을 쓴다.

※ 一笑散 處方：川椒를 가루도 만들어 巴豆一粒을 細研作膏하여 밤에 섞어 丸을 만들고 숨에 싸서 牙孔에 끼워 두면 즉시 낫는다.

※ 玉池散 處方(風，蟲牙痛으로 인해 潰爛하고 흔들리며 혹은 變하여 骨槽風을 이루어 膿血이 나오고 齒齦이 드러나는 症 등을 다스린다)：地骨皮，白芷，細辛，防風，升麻，川芎，當歸，槐花，藁本，甘草 각 一錢，薑 三片，黑豆 100粒을 넣어 물에 다려 더운 것을 물고 차가워지면 뱉는다.

※ 椒鹽散 處方：(蟲牙痛을 다스린다) 川椒，白鹽，露蜂房 각 1錢，葱白 3줄기를 넣어 물에 다려 더운 것을 물었다가 식으면 뱉는다.

※ 蜂窠散 處方：(風蟲牙痛을 다스린다) 露蜂房，白茯苓，川椒，艾葉，葱根，荊芥，細辛，白芷 각 1錢을 물에 醋와 같이 다려 더운 것을 물었다가 식으면 뱉는다.

※ 定痛散 處方：(蟲牙의 심한 痛을 다스린다) 當歸，生地黃，細辛，乾薑，白芷，連翹，苦參，黃

連, 川椒, 桔梗, 烏梅, 甘草 각 1錢을 물에 다려 머금었다가 삼킨다.

10. 瘀血痛에는 犀角地黃湯이나 혹은 加減甘露飲에 升麻를 加해 쓴다. 五靈脂를 醋에 달여 含嚥하면 곧 낫는다.

※ 犀角地黃湯 處方: 生地黃 三錢, 赤芍藥 2錢, 犀角鎊, 牡丹皮 각 1錢을 썰어 한접으로 해 물에 다려 먹는다.

※ 加減甘露飲 處方: (胃熱, 口臭, 口滄, 牙宣을 다스린다). 熟地黃, 生地黃, 天門冬, 黃芩, 枇杷葉, 茵陳, 枳殼, 石斛, 甘草 각 1兩 犀角 3錢을 가루로 만들어 每2錢을 물에 다려 마신다.

11. 齒齦(이뿌리)이 드러나고 흔들릴때 八味丸으로 滋陰補腎한다. 또 白牙散, 香鹽散으로 문지르고 양치한다. 齒齦이 흔들리는데 還少丹, 獨活散을 쓰고 齒牙를 堅固히 하는데는 羊脛骨灰 2錢, 當歸, 白芷, 猪牙鬚角, 青鹽 각 1錢을 가루내어 치아를 문지른다.

※ 八味丸 處方: 熟地黃 8兩, 山藥, 山茱萸 각 4兩, 牡丹皮, 白茯苓, 澤瀉 각 3兩, 肉桂, 附子炮 각 1兩을 가루내어 梧子大로 蜜丸하여 空心에 溫酒 혹은 鹽湯에 50~70丸씩 吞下한다. 五味子를 加하면 腎氣丸이 된다.

※ 還少丹 處方: 熟地黃, 枸杞子 각 1兩半, 山藥, 牛膝, 遠志, 山茱萸, 巴戟, 白茯苓, 五味子, 石菖蒲, 肉蓯蓉, 楮實子, 杜仲, 茴香을 가루내어 蜜和 棗肉에 作丸 梧子大하여 空心(음식이 들어 있지 않은 빈 배속) 溫酒 혹은 鹽湯에 30~50丸 吞下한다.

※ 獨活散 處方: 獨活, 羌活, 川芎, 防風 각 1錢6分, 生地黃, 荊芥, 薄荷 각 1錢, 細辛 7分을 물에 다려 마신다.

12. 牙床(치조용선)이 腫痛하고 動搖黑爛하여 脫落하는 症을 다스리는데 清胃湯, 神功丸, 羌活散에 固齒散, 玉池散을 겸용한다.

※ 清胃湯 處方: 石膏末 2匙, 梔子炒, 連翹, 牡丹皮, 條芩 각 1錢, 生地黃 酒洗, 黃連炒, 各 8分, 升麻, 白芍藥, 桔梗 각 7分, 藿香 5分 甘

草 3分을 作 一貼하여 水煎 食遠服(음식을 먹은지 한동안 지난 후에 약을 먹는 일)한다.

※ 神功丸 處方: (肉食을 많이 하는 사람의 口臭로 가까이 할 수 없고 牙齒가 疳蝕, 脫落하는 症을 다스린다). 升麻 1錢半, 藳香葉, 當歸身, 藿香, 木香 각 1錢, 黃連, 縮砂 각 5分, 生地黃 酒洗, 甘草生 각 3分을 作末하여 蒸餅에 和丸 綠豆大하여 白湯에 100丸 吞下한다.

※ 羌活散 處方: 柴胡 5錢, 麻黃, 防風 각 3錢, 羊脛骨灰 2錢, 羌活 1錢半, 草豆蔻 1錢, 當歸身 6分, 蒼朮, 升麻 각 5分, 藁本, 白芷, 桂枝 각 3分, 細辛 조금을 作末하여 溫水로 양치하고 淨擦하면 痛이 立止한다.

※ 固齒散 處方: 大鼠 한 마리를 去肉하여 뼈만 取하고 川椒炒, 乳香 각 2兩, 香附子炒, 白茯苓炒, 青鹽 각 1兩을 作末하여 매일 擦牙하면 영원히 잇병이 없어진다.

13. 귀 또는 코를 막아서 齒痛을 고치는 약으로 雄黃定痛膏, 殺蟲丸, 塞耳藥, 哭來笑去散, 治牙疼方 등을 쓴다.

※ 雄黃定痛膏 處方: 大蒜, 細辛, 焰硝 각 3錢, 雄黃 1錢, 猪牙鬚角 4錢을 가루로 만들어 蒜膏에 和丸 梧子大하여 매 1丸을 숨에 싸서 左牙가 아프면 左耳中을 막고 右牙가 아프면 右耳中을 막는데, 조금 지나면 痛이 그치고 特效하다.

※ 殺蟲丸 處方: 好砒霜에 黃丹을 넣고 黃蠟을 녹여 덩어리를 만들어 黃豆大로 作丸하여 숨으로 싸고 右牙痛에는 右耳에 左牙痛에는 左耳에 깊이 넣어 하루밤 지나면 蟲이 다 죽고 영원히 아프지 않다.

※ 塞耳藥 處方: 壁錢으로 胡椒末을 싸서 左牙痛에는 右耳를 右牙痛에는 左耳를 막은 후 손으로 가리우고 옆으로 누워 조금 기다리면 이마에 땀이 흐르고 즉시 낫는다.

※ 哭來笑去散 處方: 雄黃, 乳香, 胡椒, 麝香, 藳撥, 良薑, 細辛을 각 等分 作末하여 조금씩 男左女右로 코속에 吹入하면 즉시 낫는데, 만일 불이 부었으면 종이로 약가루를 말아서 香油를 찍

어 이 아픈 자리에 外用으로 燒熏하면 역시 부기가 빠진다.

※ 治牙疼方 處方：雄黃，沒藥 各 1錢，細辛半錢을 作末하여 左牙痛에는 左鼻와 右耳에 右牙痛에는 右鼻와 左耳에 各 各 조금씩 吹入한다.

14. 疳齧瘡에 血竭散，神功丸，麝香散，玉池散，治牙疳藥을 쓴다.

※ 血竭散 處方：(牙疳惡瘡(牙口瘡)이 오래도록 낫지 않는데 封貼한다)蒲黃 2錢，龍骨，枯白礬 各 1錢，寒水石 煨 4錢，血竭 5分을 作末하여 조금씩 瘡上에 뿌리고 종이로 封貼한다.

※ 麝香散 處方：枯白礬，青黛，胡黃連，蘆薈 各 2錢半，蝦蟆灰 半錢，麝香 2分半을 作末하여 每 半錢을 患處에 뿌려서 바로면 즉효하고 胡桐淚 2錢半을 加하면 더욱 妙하다.

15. 牙齒의 疾患에 쓰이는 單方

※ 白礬：牙齒의 腫痛을 다스린다.

※ 雄黃：齒蟲을 죽인다. 가루를 대추와 섞어 丸을 만들어 구멍을 메운다.

※ 膽礬：蟲牙痛을 다스린다. 가루를 젖에 개서 病齒에 1일 3회 문지르기를 100일 하면 낫는다.

※ 白鹽：이뿌리가 들어나고 흔들릴 때 쓴다. 소금으로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含漱하기를 하루 100번씩 하면 5일에 完治되고 堅牢해진다.

※ 青鹽：固齒하니 문지르고 檣化하는 것이 다 좋다. 모든 치통을 다스린다.

※ 升麻：口齒의 風齧腫痛과 牙根浮爛으로 膿血이 나오는데 煎湯해서 먹고 또 자주 含漱한다.

※ 白蒺藜：風牙痛 및 疳蝕을 다스리니 가루 2錢을 鹽 1匙와 같이 다려 뜨거운 물에 含漱하면 아픈 것을 멈추고 固齒하는데 크게 효과가 있다.

※ 骨碎補：牙齒痛으로 흔들리고 出血하는데 2兩을 썰어서 검도록 炒하여 가루로 만들어 세수한 후에 齒齦에 문질렀다가 吐한다.

※ 細辛：風冷齒痛과 蛀牙痛에 細辛，白芷 煎湯을 함수한다.

※ 苦參：齧齒痛에 1일 3升의 煎湯을 含漱하여

5~6일 계속한다.

※ 天仙子：莨菪子이다. 齒痛出血을 다스린다. 蟲牙痛에 天仙子 燒煙을 竹筒으로써 痛牙에 당게 하고 熏하면 蟲이 즉사한다.

※ 巴豆：牙疼을 다스린다. 蟲牙痛에 巴豆肉 1粒과 川椒末 1錢을 飯丸 麻子大하여 숨에 싸서 구멍을 막는다.

※ 胡桐淚：風疳齧，齒牙疼痛，骨槽風을 다스린다. 가루를 문지른다.

※ 川椒：齒痛에 醋煎하여 含漱하고 吐한다. 齒痛에 오직 川椒를 써서 마비시키나 熱痛에는 쓰지 않는다. 牙齒痛에 川椒，露蜂房을 等分 作末하여 每 2錢을 소금 1匙와 같이 水煎하여 含漱하고 吐하는데，藥名은 如神散이다.

※ 郁李根：齒齧腫痛에 郁李根 白皮를 水煎하여 含漱한다.

※ 白楊樹皮：牙痛에 醋煎하여 含漱한다.

※ 露蜂房：蟲痛에 煎湯含漱한다.

※ 啄木鳥：齧齒에 啄木鳥舌尖을 숨에 싸서 痛處에 당게 하고 씹으면 立効한다.

※ 蟾酥：蟲牙痛에 孔中에 조금 넣고 침을 吐하고 삼키는 짓은 금한다.

※ 蜘蛛：牙疳의 냄새를 다스리니 거미를 죽여 作末해서 臘脂와 麝香을 넣어 붙인다.

※ 杏仁：牙齦痛에 杏仁 100枚，鹽 1錢，水 1升을 끓여 거품이 나면 3회쯤 含漱하고 吐하면 곧 낫는다.

※ 絲瓜：蟲牙痛에 燒存作末하여 문지른다.

※ 雄雀屎：齧齒에 屎를 숨에 싸서 孔內에 하루 한번씩 막는다.

鹿茸：生齒，固齒하여 늙지 않게 하며 末服，丸服이 아울러 좋다.

※ 羊脛骨灰：齒牙의 疎豁한데 쓴다.

牛齒：牙齒 30枚를 火煨 作末하여 2錢을 煎湯으로 熱漱冷吐하고 또한 가루로 문지르면 흔들리는 것이 견고해진다.

※ 馬夜眼：風，蟲痛을 다스린다. 말의 足膝 위에 있는 馬夜眼을 칼로 끊어서 썰알만하게 하

여 孔中에 넣거나 혹은 痛處에 대고 씹으면 침이 나고 卽差 斷根되니 삼키는 짓은 禁한다.

V. 藥材 및 用語의 略說

1. 用 語

食遠服 : 음식을 먹은지 한동안 지난 후에 약을 먹는 일.

空心 : 음식이 들어 있지 않는 빈 배속.

空心服 : 속이 비었을 때에 약을 먹음.

判作 一貼 : 썰어서 한 첩을 만듦.

作末 : 빵거나 갈아서 가루를 만듦.

酒洗 : 약재를 물에 행구어 씻음.

酒浸 : 약재를 술에 담가둠.

酒炒 : 약재를 술에 담가 볶음.

炒黃 : 약재를 볶아서 누렇게 만듦.

炒黑 : 약재를 볶아서 까맣게 만듦.

炒 : 불에 볶음.

炮 : 附子 따위의 독한 약을 끓는 물에 담가서 그 독기를 빼어버리는 법

煨 : 불에 구움

蒸餅 : 멍쌀가루에 막걸리를 조금 타서 부풀어 일게 하여 찐 떡

吞下 : 삼켜버림.

含漱 : 양치질을 함(gargling)

含漱劑 : 입안이나 목구멍의 병균을 죽이려고 입에 머금고 씻는 물약(gargle)

燒薰 : 약재를 태워 거기서 발산되는 기운을 쪼게 하여 병을 고치는 일.

疳蠱瘡 : 어린아이의 疳病의 한 가지로, 잇몸에 나는 병의 총칭.

牙疳瘡 : 腎疳에 걸려 어린이들의 잇몸이나 입술이 헐어서 썩는 병. 牙口瘡(aphtha).

一兩 : 약 40g

一錢 : 약 4g

燒存性 : 불살라버린 물건의 형체가 잿속에 처져 있어 그 물건을 알아볼 수 있는 성질

2. 藥 材

葛根 : 칩의 뿌리, 甘味, 無毒하고 風毒의 頭痛을 다스린다.

甘草 : 性平, 甘味, 無毒하다. 모든 약의 毒을 풀고 調和하여 효과가 나도록 한다. 또 비위를 돕고 뿌리가 약재로 쓰인다.

薑 : 새양, 담, 구토 등에 쓰고 半夏의 毒을 제거한다.

羌活 : 미나리과 다년생 풀인 강호리의 뿌리. 性微溫, 味辛, 無毒하다. 全身의 百節痛에 쓴다.

薑黃 : 새양과의 다년생풀, 뿌리줄기를 한약재로 씀.

桂枝 : 계수나무 가지. 땀을 그치게 한다.

桂皮 : 계수나무 껍질. 性大熱, 味甘辛, 小毒하다. 肝肺의 氣를 利하게 하고 霍亂의 轉筋을 다스린다.

枯白礬 : 明礬(黃酸 알루미늄과 황산칼륨의 복합염)을 구운 것. 小兒의 臍瘡 및 臍中에 汁이나와 멎지 않는 것을 다스리니 末을 뿌려 흘린다. 처음 난 아이가 皮膚이 石榴의 膜과 같은 것이 허를 싸고 있으면 손톱으로부터 出血하고 枯白礬末을 붙이면 낫는다.

藁本 : 미나리과의 다년생풀. 頭痛, 腦痛, 齒痛을 다스린다.

苦參 : 쓴 너삼의 뿌리. 齒痛, 惡瘡과 下部蠱을 다스린다.

骨碎補 : 性溫, 味苦, 無毒하다. 破血, 止血하고 折傷과 惡瘡의 蝕爛을 다스리고 蟲을 죽인다. 生薑과 같으면서 가늘고 기니 털을 깎아버리고 細切하여 蜜水에 蒸乾하여 쓴다.

藿香 : 性微溫, 味辛, 無毒하다. 脾胃吐逆을 다스린다.

槐花 : 왜나무꽃. 五痔와 心痛을 다스리고 服臟의 蟲을 죽이고 赤白痢를 다스린다.

枸杞子 : 가지과에 딸린 낙엽관목. 괴쭉나무의 붉은 열매를 말하며, 五勞七傷을 다스린다.

韭子 : 부추씨. 腰膝을 따스하게 한다.

橘皮: 귤껍질. 보위, 담증, 해수 등의 약재로 씀.

桔梗: 도라지. 咽喉痛과 胸脇의 諸痛을 다스린다. 蟲毒을 내린다.

蘭香葉: 난초잎. 蟲毒을 죽이고 水道를 通利한다.

莢若子: 초우영의 씨. 치통이나 외과에 약재로 씀.

露蜂房: 나무 위에 큰 黃蜂의 집이다. 齒痛, 惡瘡 등을 다스린다.

蘆薈: 나리과의 상록관목. 알로에, 三蟲을 죽인다. 波斯國에서 난다.

鹿茸: 사슴뿔

膽礬: 약재로 쓰는 황산동. 石膽, 蚰牙의 息肉을 다스리고 惡瘡과 熱毒을 고친다.

當歸: 승검초의 뿌리. 보혈약에 쓰임. 止血, 止痛에 쓰임.

大蒜: 마늘. 癰腫을 홀고 蟲毒을 다스리며 健脾, 溫胃한다.

大棗: 대추, 오장을 보하고 12경맥을 도운다.

大黃: 장군풀의 뿌리, 便을 통하는 약으로 쓰임.

獨活: 뱀두릅의 뿌리. 土當歸, 모든 賊風과 白節의 痛風에 久新을 묻지 않고 다스린다.

杜冲: 두충과의 갈잎큰키나무. 思仙木, 石思仙, 腎冷과 腰痛을 다스린다.

馬牙硝: 朴硝를 고아서 만들며, 5장의 積熱과 伏氣를 除하고 눈의 赤腫과 障瞖와 澀痛을 다스린다.

馬夜眼: 말의 足膝 위에 있는 것.

麻黃: 마황과의 상록관목의 줄기. 中風, 傷寒, 頭痛, 溫瘧을 다스리고 邪熱氣와 寒熱을 다스린다.

蔓荊子: 순비기나무의 열매. 두통이나 경련 따위를 다스리는 약으로 쓰임.

芒硝: 질산칼륨. 朴硝를 데운 물에 넣어 개어서 減半하고 盆中에 投入하여서 하룻밤 재우고 나면 細芒이 나니, 卽 芒硝요, 또 盆硝라

고 한다. 傷寒의 內熱과 胃閉와 黃疸를 다스린다.

牡丹皮: 모란뿌리 껍질. 월경을 고르게 하며 血症과 鬱怒症을 고치는데 씀.

木香: 엉거시과의 다년생풀 消毒, 殺鬼하고 瘟疫을 물리친다. 冷氣脹痛, 泄瀉, 痢疾을 다스린다.

沒藥: 감람과의 관목. 아프리카의 소말릴란드 등지에서 남. 줄기에서 나오는 즙을 통경제, 건위제로 쓰이는 향기 높고 쓴 약재.

朴硝: 硝石(질산칼륨)으로 만든 稜柱 모양의 결정체, 이노제로 쓰임.

薄荷: 영생이의 잎. 강한 방향이 있어 약재로 씀.

半夏: 천남성과의 약초. 뿌리를 담, 구토, 기침의 약재로 씀.

防己: 덩굴이 덩굴의 줄기. 口面喎斜(입과 눈이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증세), 手足疼痛을 다스리고 癰腫의 惡結을 홀고 모든 瘤와 疥癬蟲瘡을 다스린다.

防風: 병풍나물의 목은 뿌리. 고뿔, 풍병 따위의 약으로 씀.

白僵蠶: 누에가 *Botylis bassiana bale*이라는 곰팡이의 기생으로 죽은 시체로, 중풍으로 말 못하는데나 어린아이의 驚氣 등에 쓴다.

白礬: 명반(황산알루미늄과)을 구워서 만든 황산칼륨의 복염

흰 덩이.

白附子: 흰바곳의 뿌리. 중풍에 약으로 쓰임.

白鹽: 흰 소금.

白楊樹皮: 打撲의 瘀血作痛과 折傷의 血滯痛을 다스린다. 膏를 만들어 筋骨의 끊어진 것을 잇는다.

白芷: 구리대의 뿌리. 감기로 허리나 머리가 쭈시는데 사용. 止痛, 生肌한다.

白蒺藜: 납가새. 두통을 다스린다.

壁錢: 납거미. 코피와 金瘡血의 止血에 쓴다.

附子: 바곳의 球根. 성질이 더워 양기를 돕는

데 씀.

砒霜: 砒石(은광이나 연광에 섞여 있는 독있는 광석, 信石)을 열하여 만든 독약, arsenic.
枇杷葉: 장미과의 상록 과실나무인 비파나무 잎. 학질, 구토, 해수, 각기, 주독 따위의 약으로 씀.

麝香: 궁노루의 향낭을 말려서 만든 향료. 흥분제로 쓰임.

絲瓜: 수세미의, 一切의 惡瘡과 小兒의 痘疹과 脚癰을 다스린다.

山茱萸: 산수유 나무 열매. 강장제로 쓰임.

山藥: 마뿌리. 강장제로 쓰임.

生薑: 薑과 같음

生地黃: 현삼과의 다년생 약초 뿌리의 생것. 성질이 온하고 혈기를 돕는 약재임.

犀角: 무소의 뿔. 癰疽와 瘡腫이 膿으로 化한 것을 다스린다.

犀角鎔: 무소뿔의 가루.

鼠粘子: 牛蒡子. 우엉의 씨.

石膏: 돌겉에서 나는데 바둑과 같고 白徹한 것이 좋다. 頭痛, 口乾, 舌焦, 咽熱을 다스린다. 유산석회의 결정.

石斛: 물가 돌에 나는 풀. 腎氣를 길러 腰痛을 그치게 한다.

石菖蒲: 천남성과의 다년생풀. 잎은 칼날 같고 광택이 있음. 뿌리를 약재로 쓰며, 성질이 온한데 건망증과 빈민증에 쓰임.

蟾酥: 蟾蜍. 두꺼비의 양 눈썹 사이의 자질구레한 혹에서 짜낸 흰물을 밀가루에 섞어 반죽한 약. 疔病, 疔, 악종 따위를 고치는데 씀.

細辛: 족두리풀과 민족두리풀의 뿌리. 頭風을 제거하고 齒痛을 다스린다.

熟地黃: 생지황을 술에 여러번 쥔 것으로, 虛損症에 쓰는 한약재.

升麻: 끼질가리의 뿌리로, 기운을 위로 끌어 올리는데 씀. 喉痛과 口瘡에 쓴다.

柴胡: 미나리과의 다년생풀. 뫓미나리. 寒熱

을 다스린다.

艾葉: 약쑥의 잎사귀.

良薑: 중국에서 나는 새알의 한 종류.

羊脛骨灰: 양의 下腿 안쪽의 긴 뼈의 재.

連翹(연교): 개나리의 열매로, 성질이 冷하며 利尿, 殺蟲, 止痛, 消腫排膿하는데 내복약으로 씀.

焰硝: 朴硝를 火煉하여 精을 取하여 밑에 처저서 돌과 같은 것이 精英은 이미 없어지고 찌꺼기만 남은 것. 화약.

零陵香: 콩과의 풀. 유럽 원산으로 腹痛을 다스리고 몸을 향기롭게 한다.

烏梅: 매실의 껍질을 벗기고 쥔 열기를 쏘여 말린 것. 설사, 해수 따위의 약으로 쓰임.

五味子: 오미자 나무 열매. 해수, 갈증 따위에 약으로 쓰임.

五靈脂: 蟲糞이라고도 부르며, 빛이 검어 鐵과 같고 四足에 肉翅(육시)가 있고 멀리 날지 못하며 心腹의 死血作痛에 神効하다.

梧子: 머귀나무 열매.

龍骨: 失血을 다스리며 땀을 거두고 소변을 축소시킨다.

牛膝: 쇠무릎지기. 骨髓를 메우고 腰脊痛을 다스리고 活血, 生血한다.

牛齒: 小兒의 驚癇을 다스린다.

郁李根: 산이스랏의 뿌리로, 齒痛과 齒根의 腫齲를 다스리고 이를 굳세게 하여 百蟲을 없애니 煎湯하여 양치질한다.

雄雀屎: 수참새의 똥.

雄黃: 石雄黃, 천연으로 나는 비소의 화합물. 惡瘡, 蠱瘡과 百蟲의 毒을 다스린다.

遠志: 아기풀의 뿌리. 耳目을 총명케 하고 건망증을 다스린다.

乳香: 감람과의 유향수에서 낸 즙액. 모든 瘡을 內消시키고 大腸의 泄瀉을 그치게 한다.

肉桂: 계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건위 강장제로 씀.

肉蓯蓉: 寒熱痛을 除하고 精血을 峻補한다.

茵陳: 더워지기의 떡잎. 성질은 냉한데 황달, 濕熱, 오줌을 잘 누게 하는데 씀. 두통에도 쓰며 사철 씀.

楮實子: 다나무의 열매. 부종, 안질에 약재로 쓰임.

豬牙皂角: 쥐엄나무 열매의 껍데기. 성질은 따스하고 맛은 시고 독이 조금 있음. 중풍, 편두통, 마비, 살충약으로 쓰이며, 齒牙痛과 積을 다스림.

赤茯苓: 소나무를 벤 뒤에 그 뿌리에 생기는 버섯으로, 붉은 빛인 것. 이뇨제로 쓴다.

赤芍藥: 꽃은 회나 뿌리가 붉은 작약.

全蠲梢: 뽕나무줄.

條芩: 黃金草의 새로 돋은 가는 뿌리. 子芩

枳殼: 탕자를 썰어 말린 약재. 위장을 맑게 하고 통변을 순하게 함. 積聚, 脹症, 痔疾에도 씀.

地骨皮: 괴죽나무(구기)의 뿌리. 땀과 骨蒸을 다스리고 肌熱을 잘 푼다.

知母: 나리과의 다년생풀. 骨蒸, 腎氣虛損을 다스린다.

蜘蛛: 거미.

蒼朮: 삼주의 結球되지 않은 뿌리. 백출보다 땀을 내는 힘이 세어서 소화기에 범한 외감을 푸는 데에 많이 씀.

川芎: 궁궁이의 뿌리. 성질은 온하고 맛은 신데, 혈액순환이 안되는 모든 병에 좋으며 의과와 부인병에 많이 쓰임.

天門冬: 호라지죽의 뿌리. 해소, 담, 객혈 등의 약재로 씀.

天仙子: 莨菪子.

川椒: 산초과의 낙엽관목인 조피나무 열매 껍질.

青黛: 어린이의 驚癇, 疳疾 따위에 쓰는 열을 내리는 약재. 頭痛과 寒熱을 다스린다. 蟲을 죽인다. 쪽으로 만든다.

青鹽: 염소와 암모니아의 화합물. 모든 血疾을 除한다.

草豆蔻: 새양과의 열대식물의 풀. 嘔吐를 除하고 口臭를 없앤다.

草龍膽: 과남풀. 뿌리를 한약재로 씀.

葱根: 파뿌리. 傷寒과 陽明經에 頭痛을 다스린다.

葱白: 파의 밑둥, 潤痰에 효험이 있으므로 傷寒에 흔히 쓰임.

縮砂: 冷泄과 休息痢를 다스린다.

梔子(치자): 꼭두서니과의 상록관목. 흰 꽃에 황갈색 열매가 열리며, 물감, 약재로 씀. 止血作用이 있다.

啄木鳥: 딱다구리

澤瀉: 택사과의 다년생풀. 뿌리가 약재이며 조금 찬 성질인데, 임질, 습증, 부종 따위에 쓴다.

破故紙: 콩과의 일년생풀. 씨는 술이나 소금을 넣고 볶아 腰痛을 고치는데 씀.

巴戟: 부조초의 뿌리. 精血, 陰痿, 夢泄, 遺精을 다스리는데 쓰임.

巴豆: 버들옷과의 상록관목. 씨가 약재로 쓰이며, 성질이 덥고 독이 있음. 痛利하는 힘이 있어 外科 약재로 많이 쓰임.

蒲黃: 부들 꽃가루. 瘀血을 生治한다. 血을 부수고 腫을 없애고자 하면 生用하고, 血을 補하고 止血하려면 炒用한다.

華撥: 후추과의 풀로 열매는 消滯, 溫中의 한 약재로 쓴다.

蝦蟆灰(하마회): 청개구리 태운 재. 癰腫과 惡瘡에 붙이고 熱이 멎힌 腫을 푼다.

寒水石: 胃熱을 다스린다. 소금의 간수를 굳힌 것으로, 이뇨제에 쓰임.

杏仁: 살구씨의 알맹이. 변비, 기침 따위의 약재가 됨.

香附子: 방동사니과의 다년생풀로, 땅속줄기는 위장병이나 월경을 다스리는 약으로 씀.

血竭: 기린수의 진액이 결정한 것. 惡瘡, 疥癬을 다스리고 金瘡의 出血을 그치나, 많이 쓰면 도리어 膿이 생긴다.

荊芥: 정가의 줄기나 잎으로, 산모가 해산 직후에 피를 깨끗이 하고 숨을 순하게 하는 약.
胡桐淚: 아라보의 나무진으로, 치통, 목병의 외용약으로 씬.

胡椒: 후추. 痰을 소화하고 風冷을 다스린다.

胡黃連: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생풀. 뿌리가 쓰이며 骨蒸, 勞熱을 다스린다.

黃芩: 속서근풀의 뿌리. 성질이 차기 때문에 해열제로 씬.

黃芪(황기): 단너삼의 뿌리. 강장제 또는 땀을 막는데 씬. 癰疽의 부패한 것을 고치고 膿을 배출하며 痛을 그친다.

黃蠟: 瘰癧를 다스린다.

黃丹: 납에 유황을 섞어서 만든 약제.

黃柏: 황경나무.

黃連: 강강이 뿌리. 口瘡을 고치며 소아의 疳蟲을 죽인다.

黃蘗蜂窠(황채봉과): 露蜂房.

茴香: 회향풀의 열매. 健胃驅風의 약재로 씬.

腎과 膀胱과 小腸을 따스게 하고 惡心을 다스린다.

黑豆: 검은 말.

VI. 結 語

“牙齒가 黃黑하여 맑고 淨潔하지 못하는데 石膏細末, 砂鍋(사기의 고운 가루를 물과 같이 흘려서 만든 보드라운 가루) 細末 各 一兩, 零陵香, 白芷, 青鹽, 升麻 各 2錢半, 細辛 1錢, 麝香 半錢을 합쳐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여 매일 이른 아침에 이것을 조금 적어서 이를 문지르고 따뜻한 물로 含漱하여 빨으면 되는데, 一名 白牙藥이라고도 한다.”

白牙藥은 오늘날 研磨劑가 많이 들은 齒藥에 해당하니, 研磨劑로 石膏(오늘날의 석고와는 약간 다름)와 사기그릇 고운가루 및 青鹽을 넣고, 芳香劑로 麝香 등을 넣고, 새살을 나게 하는 白芷, 진통효과가 있는 細辛, 白芷, 口瘡에 치료효과가 있는 升麻 등을 넣었다.

‘擦牙方’에 “荊芥, 薄荷, 細辛, 胡桐淚를 等分, 麝香 조금을 넣어 作末하여 치아를 문지르고 熱症이면 馬牙硝를, 冷症이면 川椒를 각각 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馬牙硝는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이 주성분이니 요즈음 치과과민증 환자에게 desensitizing agent로 쓰는 Dengual이나 SensodyneF의 주성분과 똑같다.

‘擦牙止痛方’에 “黃蠟 蜂窠 1개에 川椒를 넣어 窠에 가득차게하고, 다시 白鹽 1錢으로써 窠口를 封하여 燒存性하고 白芷, 羊脛骨灰 各 1錢을 같이 研末하여 먼저 茶清으로 양치한 뒤에 문지르고 구멍이 있으면 藥末을 구멍에 메우면 立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窩洞에 充填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養生이 口齒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니 양치와 씻는데 게으르면 損傷과 蟲蠹(충두: 치아우식증)의 媒介가 되는 법이다. 署毒, 酒毒이 항상 口齒의 사이에 潛伏하여 있으니 常時로 양치하고 씻어야 한다.”

“飲食을 먹은 뒤에 양치하는 법을 잊지 않으면 齒牙에 蟲蛀(충주)의 損이 없는 것이다. 養生家가 치아질환이 없는 것은 새벽마다 法에 의해 叩齒(고치)하기 때문이다.”

“齒牙에 붙은 黃黑色物이 爛骨(난골)과 같은 것을 齒牀(치상: 오늘날의 치석)이라고 하는데, 齒牙를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瘡刀로서 긁어 버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가 잇몸에 붙지 않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옛사람들의 Oral hygiene에 對한 지식이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署毒은 오늘날의 dental plague, 齒牀은 Calculus이며 瘡刀는 scaler이며, 食後 반드시 양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雄黃은 비소 화합물이고, 砒霜은 arsenic이니 ‘殺虫丸’이 비상이 주약재인 제재로서 하루밤이면 蟲을 죽인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이비산으로 치수를 mummification시키는 것과 같으나 齒痛에 귀에 약재를 넣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啄木鳥(딱따구리)의 혀를 齧齒 치료제로 쓴다는 것은 딱따구리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다는 데서 심정적으로 치아의 구멍과 유감(類感)한 듯하다. 치아 및 치주질환에 쓰인 약재중 輕粉, 膽礬, 雄黃 등은 腐蝕劑이고, 黃丹은 收斂劑이며, 槐花, 白礬, 梔子, 五靈脂, 蒲黃, 血竭 등은 止血劑이며, 當歸, 白芷, 麝香 등은 흥분제이며, 枸杞子, 杜仲, 蔓荊子, 山茱萸, 熟地黃, 五味子, 肉蓯蓉, 楮室子, 天門冬, 黃芪, 巴戟 등은 强壯劑이다. 또 苦參, 桂皮, 良薑, 木香, 白朮, 石斛, 石菖蒲, 肉桂, 瘡莢, 縮砂, 華撥, 胡椒, 黃連, 茴香, 胡黃連, 黃栢 등은 健胃劑이다.

皂莢은 殺蟲藥이며, 白朮, 防己, 茯苓, 茵陳, 瘡朮, 澤瀉 등은 利尿劑이다.

蟾酥는 마취제이며, 葛根, 當歸, 桔梗, 藿香, 獨活, 零陵香, 麻黃, 芒硝, 薄荷, 防己, 白芷, 犀角, 石膏, 柴胡, 烏梅, 升麻, 知母, 荊芥, 黃芩 등은 發汗劑이다.

앞으로 漢方에서 牙齒 및 齒周疾患에 쓰인 각

종 약재의 성분을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 응용하면 齒科發展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東醫寶鑑 國譯委員會 編「本原 東醫寶鑑<新增版>」南山堂, 1987.
2. 東醫寶鑑 國譯委員會 編譯「國譯增補 東醫寶鑑」南山堂, 1988.
3. 洪文和 著「新東醫寶鑑」한국 메디칼 인덱스사, 1982.
4. 洪文和 著「新譯東醫寶鑑」文學藝術社, 1983.
5. 李崇寧 監修「표준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87.
6. Kim, S. : Hypersensitive teeth, Desensitization of pulpal sensory nerves, J Endodon 1986 ; 12(10) :

참고자료

現代史教育 〈살아 있는 교육 캠페인〉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 87년 1월 25일 지상에 게재된 것이다.

자신의 아들과 워커家 딸의 혼인 여부를 타진하는 한 아버지의 편지로서 美고교 세계사 교과서의 「미국의 정신」이 그 236페이지에는 등장하고 있다.

「존경하는 워커氏. 제 아들 존이 선생의 따님 엘리자베스嬢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합니다. 비록 저희 집안이 지금은 넉넉지 못하나 내년이면 1천파운드 정도의 수입이 생길것으로 생각되고 내후년에는 30에이커의 토지도 살수 있을 것이며…」

인류의 기원, 4대 문명발상지, 中國의 왕조 교체, 그리고 1-2차 세계대전 등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만 관심을 쏟아왔던 우리나라 교교생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느낌을 주는 대목이다. 「과연 이런것까지 교과서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까」란 의문에 대해 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이번 章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 영향받았던 非역사적 인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이들은 집을 짓고 사랑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힘을 쏟았을 뿐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偉人は 못될지라도 이들에 의해 세월은 흘러왔고 이들의 삶에 의해 역사의 기반은 굳어져 왔읍니다.

정기시간의 활약상, 양차 세계대전 등 거창한 「갈등의 역사」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19세기말의 결혼 예물은 어떠한 것이었고, 대학생들은 왜 럭비를 즐겼는가 등의 「평화의 역사」는 사소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歐美 고교 세계사 교과서는 이러한 사소한 내용을 도처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생활에 대한 記述이 바로 歷史임을 주장하고 있다.

「처칠과 루스벨트가 발표한 대서양헌장에 의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을 거치면서 번영하였으며…」 「1944년 파리의 해방으로 영국에서 귀국한 드골이 제4 공화정을 수립…」 (대한출판공사가 펴낸 고등학교 세계사 본문에서 인용) 등등 역사상 너무나 유명함 인물과 사건들과만 친숙하게 사귀어온 우리나라 고교생들에게는 그러한 신변잡기적(?) 내용이 교과서 본문중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포용심을 갖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戰爭」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 교과서의 본문 내용의 차이는 우리와 외국의 세계사 교육방침의 상이점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경우 「폴란드에 진격한 독일군은 소련과 함께…」 「독일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점령한 뒤…」 등으로 전쟁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발생, 약육강식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식의 巨視的이고도 현실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 교과서는(우리 교과서식의 거시적 접근도 하고 있지만) 미시적인 접근방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美 세계사 교과서에는 남북전쟁 당시 南軍의 한 병사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돼있다.

「여보, 내 딸 케리가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는구료, 케리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소. 앞마당의 옥수수는 열매를 맺었는지, 또 소나 닭들도 잘 자라는지…」

그러나 내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답장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

실이오.

전쟁이란 국가와 국가의, 그리고 이념과 이념의 대립에서 발생해왔다는 「巨視的」戰爭論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전쟁을 한 병사의 고통과 갈등을 통해 묘사하며, 평화주의사상까지 은밀히 넣어주는 歐美의 세계사 교육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흑인노예 해방을 통해 너무나도 유명한 링컨 美대통령에 대한 다음과 같은 記述도 흥미롭다.

「메리 링컨女史는 집안가꾸기에 열심이였다. 테이블위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이 놓여있었고, 벽에는 다달이 새로운 그림이 걸리곤 했다. 이러한 가정에서 생활했던 링컨대통령이 불행했을 까닭이 없었다.

역사적 偉人으로 추앙받는 링컨대통령을 한명의 평범한 家長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상 아무리 위대했던 영웅이라도, 결국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명의 생활인에 불과하다는 인식,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계사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歐美교과 세계사 교과서의 現代부분은 특히 일반서민의 평범한 生活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코니 아일랜드」에 대한 記述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市북근에 있는 코니아일랜드덕에 미국인들은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해변 식당가 경마장 등을 비롯, 갖가지 오락수단은 일반대중에게 레저의 기쁨을 깨닫게 했다. 밤중에 휘황찬란히 비치는 조명은 코니아일랜드를 마치 환상의 세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중산층의 대두에 의해 나타난 생활상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제작은 歷史란 정권교체 등 갈등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화상도 포함된다는 史觀이 없는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의미있는 사회상 및 일상생활에 변화가 바로 역사 기술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에 투철한 歐美 교과서 제작자들을 코니아일랜드 외에도 자가용

시대의 도래, 양육법의 발달, 소다(음료수)소동, 건축붐, 교육제도 혁신, 중산층의 대두, 레저활동 방법의 다양화 등등 우리 교과서 본문에 수록되기에는 하찮은(?) 일반국민생활의 변화상을 충실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들어 일어난 중요한 사회변화 현상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대두, 이에 따른 레저의 부각에 대해 歐美 교과서는 現代史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프랑스 교과서가 세계 최초의 유급휴가제는 지난 3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실시됐다는 사실과 80년대 들어 「레저장관」까지 등장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美교과서들도 중산층의 대두에 따라 「레저가 일반화 됐으며」 이를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하게 하느냐가 국가의 중요정책과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본문 곳곳에서 다루고 있다.

세계를 뒤흔든 거창한 사건 못지않게 개인과 일상생활에 비중을 두어 취급하는 歐美교과서를 보고 자란 외국 학생들이 전쟁에서의 승리나 국가 이익의 확대보다는 개인과 이웃의 행복에 더 관심을 가지며 평화지향적인 사고를 지닐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美교과서에 실린 「시터드러클(30년대 美노조 지도자)」의 연설문은 외국 세계사 교과서가 역사와 개인의 연설문은 외국 세계사 교과서가 역사와 개인의 관계를 어떠한 인식하에 다루고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의 고립된 벽돌만을 만들어 왔을 뿐이지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은 여러분이 만든 벽돌 하나하나에 의해 이룩된 위대한 건축물이지만 여러분은 그 빌딩앞에 설 때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경외감만을 느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엠파이어스테이트의 벽돌중 자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벽돌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도록 합시다. 훗날 여러분이 손자와 함께 그 빌딩앞을 지날 때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야, 이 빌

딩의 55층은 내가 만든 벽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
란다.라고.」

엠펙아이스테이트빌딩으로 비유되는 위대하고
유구한 역사도 결국은 한명 한명의 평범한 벽돌
공의 땀에 의해 이룩된 것이라는 史觀인 것이다.

전쟁－정권교체 등 갈등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변
화 역시 역사이며 보잘 것 없는 개인도 역사의 기
반이 되어 왔다는 史觀이 우리 고교 세계사교과
서에서도 좀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척과 의사학회

재무보고

1988. 4. 12

결 산 보 고 서

1987. 2. — 1988. 1.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원)	항 목	금 액 (원)
이 월 금	630, 552	인 쇄, 복 사 비	54, 000
회 비	445, 000	통 신, 발 송 비	23, 000
학 회 보 조 금	400, 000	집 담 회 (총 회)	453, 000
찬 조 금	2, 000, 000	학 회 지 출 판 지	2, 509, 000
이 자 수 입	62. 328	이 월 금	413, 880
기 타		기 타	85, 000
계	3, 537, 880	계	3, 537, 880

1988년도 예 산 안

1988. 2. — 1989. 1.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원)	항 목	금 액 (원)
회 비 (5 회)	2, 000, 000	학 회 지 발 간	3, 200, 000
협 회 보 조 금	470, 000	집 담 회	2, 100, 000
찬 조 금	3, 000, 000	총 회 비	300, 000
이 월 금	630, 552	인 쇄, 통 신 비	160, 000
기 타 수 입	300, 000	예 비 비	455, 000
		기 타 사 업 비	185, 552
계	6, 400, 552	계	6, 400. 552

참고자료

본 학회 창립은 1960년 10월 7일이다. 창립 당시의 명칭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이다. 이 명칭이 대한치과의학사회라 개칭된 때는 1962년 12월 4일이다. 본 학회는 그 창립 당시에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아 그 산하 단체로서 발족되었다.

이제 창립 당시의 회칙을 보면 이러하다.

第1章 總 則

第1條 本學會는 大韓齒科醫學史研究會라 稱한다.

第2條 本學會는 科學史 特히 齒科醫學史에 관한 研究를 하며, 會員 相互間의 學術的紐帶와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本學會는 大韓齒科醫師協會 定款에 依據하여 設立한다.

第2章 事 業

第4條 本學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集談會, 學術研究發表會
2. 該當關係資料의 蒐集
3. 研究論文의 印刷配布
4. 海外斯界와의 學術交流
5. 會員의 親睦

第3章 會 員

第5章 本學會는 齒科醫史學에 關心이 있는 齒科醫師로 會員 2名의 推薦을 받은 者로서 任員會의 議決로써 加入한다.

第6章 會員의 義務는 다음과 같다.

第1項 本會會則 및 決議事項은 遵守할 義務가 있다.

第3項 決定된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第7條 會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第1項 會員은 選舉權과 被選舉權이 있다.

第2項 會員은 會員資格에 對한 證明을 받을 수 있다.

第8條 會員으로서 會費를 2年以上 未納時에는 任員會의 決議로써 그 資格을 喪失할 수 있다.

第4章 機構 및 選舉

第9條 本學會는 다음의 機構를 둔다.

1. 顧問
2. 名譽會長
3. 會 長 壹名
4. 副 會 長 壹名
5. 總 務 壹名
6. 理 事 若干名
7. 監 事 壹名

第10條 本學會는 各市道에 支部를 둘 수 있다.

第11條 顧問 및 名譽會長은 任員會에서 薦舉하여 定期總會의 認准을 받아 推戴된다. 顧問 및 名譽會長은 會의 諮問에 應한다.

第12條 會長은 本學會를 代表하여 任員會를 構成하고 그 議長이 된다. 會長은 任員會의 議決에 따라 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長 有故時는 이를 代身한다.

第14條 總務 및 理事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會務를 各其 分擔하여 處理한다.

第15條 監事は 必要에 따라 會務 및 財政을 監事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第16條 會長 및 監事は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副會長, 總務, 理事는 會長이 委嘱한다.

第17條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會長은 1回에 限하여 重任할 수도 있다.

第18條 會長團 缺員時에는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補選한다.

但, 그任期는 殘餘任期로 한다. 監事の 缺員이 있을 때는 會員中에서 最年上者로써 補選한다.

第5章 總 會

第19條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가 있다. 定期總會는 年1회로 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의 決議, 또는 會員 3分之1以上の 要請으로 會長이 召集한다.

第20條 總會는 會長이 議長이 되어 進行된다.

第21條 總會의 議決은 多數決로 決定한다.

但, 會則의 改定은 在席 3分之2가 同意하여야 可決된다.

第22條 總會에서의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第1項 會則에 關한 事項

第2項 豫算決算에 關한 事項

第3項 監事の 報告에 關한 事項

第4項 事業에 關한 事項

第5項 任員選舉에 關한 事項

第6項 會에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6章 任 員 會

第23條 任員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24條 任員會는 過半數의 參席으로 成立되어 在席者의 多數決로 議決한다.

第25條 會長은 總務 및 理事로 하여금 各部를 分擔케 할 수 있다.

第26條 任員會의 議決로 必要에 따라 會長의 諮問에 應할 別途 名稱의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27條 任員會는 每年 定期總會에서 會務全般을 報告하여야 한다.

第7章 財 政

第28條 本學會 財政은 會費 및 贊助金 其他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29條 會費는 總會에서 決定한다.

第8章 附 則

第30條 本會則에 없는 事項은 通常慣例에 準한다.

표 지 의 설 명

이번 표지에는 이치자(齒字)가 붙은 한자(漢字) 중에서도 그 획이 많은 글자들을 모았다. 이들 중에서 제일 끝의 글자는 작이라 부르며 뚫는다는 뜻이다. 언뜻 보기에 이 글자에는 이치자(齒字)가 없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우리말 사전에 없는 글자의 발음은 그 중국어로서의 발음을 그대로 해야 되리라. 이치자가 붙은 글자의 공통적인 특색은, 딱딱한 것이나 날카로운 것이나 치아와 같이 회고 그 형상이 연이어진 것 또는 남성적인 것을 뜻하는 수가 많다.

지금까지 수집된 이치자가 들어있는 한자(漢字)는 그 총수 무려 2백 10여 개이다.(李漢水)

편 집 후 기

밖에서는 88 서울 올림픽 개막의 순간이 뜨겁게 다가서고 있다 온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미소만이 물결 치는 서울 88이다. 여기에 우리의 의사학회지 9권 9호가 유난히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을 뚫고 이제 전국 회원과 여러 선생님께 선 보인다. 이한수 선생님은 금년도 계획사업인 한국치의학사 단행본 제작 및 의과학 대학교재 마무리 작업관계로 부르기 시간이 허락치 않아 선생님의 玉稿는 이번 학회지에서는 접할 수 없게 되었다.

신재의 회원의 「치과계 단체활동」 연구는 이번이 5번째 연재이고 이병태 회원의 「단군시대 치의학 연구」는 고대사 연구와 더불어 최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임경빈 회원의 「신민지 지배 하에서 치과계 변천과정」은 연구 고뇌 끝에 내놓은 역작일 것이다.

앞으로 계속 회원 여러분의 참여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박승오>

임 원 명 단

중신명예회장 이 동 섭	중신명예회장 이 덕 일	직 전 회 장 이 한 수
회 장 김 정 균	부 회 장 이병태·김관홍	총 무 박 승 오
이 사 신재의·허정규·배광식		감 사 김 지 호

1988년 10월 20일 인쇄
1988년 10월 25일 발행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 9권 제 1호 통권 9호

발행인 : 김 정 균
(대한치과의사학회장)

편집인 : 박 승 오
(학 회 총 무)

발행소 :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의사학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의8

<비 매 품>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Vol. 9 No.1 1988

Publisher : Kim, Jeong-Gyun
Editor in chief : Park, Sung-Oh
Address : Yung-Doong-Po,
C.P.O Box 41, SEOUL, KOREA